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지원사업  
**프로그램 요구도 조사**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지원사업  
**프로그램 요구도 조사**



# | 목차 |

## I. 서론

- 1. 조사 배경 및 목적 ..... 11
- 2. 조사 내용과 방법 ..... 11

## II. 조사결과

- 1. 조사개요 ..... 15
- 2. 응답자 특성 ..... 17
- 3. 생활현황 ..... 19
- 4. 사회적 관계망 ..... 49
- 5. 프로그램 요구도 ..... 80

## III. 요약 및 제언

- 1. 요약 ..... 111
- 2. 제언 ..... 114

| 참고문헌 | ..... 116

| 부 록 | 성별 · 연령에 따른 프로그램 필요성 ..... 117  
설문지 ..... 119

## | 표 목차 |

|   |    |
|---|----|
| 표 1. 설문조사 영역 및 내용 .....                         | 15 |
| 표 2. 응답자 특성 .....                               | 17 |
| 표 3. 혼자 생활하는 가장 큰 이유 .....                      | 19 |
| 표 4. 응답자 특성별 - 혼자 생활하는 가장 큰 이유 .....            | 20 |
| 표 5.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만족도 .....                      | 21 |
| 표 6. 응답자 특성별 -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만족도 .....            | 21 |
| 표 7. 앞으로도 혼자서 생활할 생각 .....                      | 22 |
| 표 8. 응답자 특성별 - 앞으로도 혼자서 생활할 생각 .....            | 23 |
| 표 9. 혼자 생활하면서 가장 불편한 점 .....                    | 24 |
| 표 10. 응답자 특성별 - 혼자 생활하면서 가장 불편한 점 .....         | 25 |
| 표 11. 혼자 생활하면서 가장 불안한 점 .....                   | 26 |
| 표 12. 응답자 특성별 - 혼자 생활하면서 가장 불안한 점 .....         | 28 |
| 표 13. 스스로 평가하는 신체 및 정신 건강상태 .....               | 29 |
| 표 14. 응답자 특성별 - 스스로 평가하는 신체 건강상태 .....          | 30 |
| 표 15. 응답자 특성별 - 스스로 평가하는 정신 건강상태 .....          | 31 |
| 표 16. 정신건강 관련 경험 .....                          | 32 |
| 표 17. 응답자 특성별 - [정신건강 관련 경험] 우울 정도 .....        | 33 |
| 표 18. 응답자 특성별 - [정신건강 관련 경험] 불안감 정도 .....       | 34 |
| 표 19. 응답자 특성별 - [정신건강 관련 경험] 외로움 정도 .....       | 35 |
| 표 20. 혼자 식사하는 주된 방법 .....                       | 36 |
| 표 21. 응답자 특성별 - 혼자 식사하는 주된 방법 .....             | 37 |
| 표 22. 주거지 결정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 .....             | 38 |
| 표 23. 응답자 특성별 - 주거지 결정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 .....   | 40 |
| 표 24. 여가활동을 하는데 있어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 .....           | 41 |
| 표 25. 응답자 특성별 - 여가활동을 하는데 있어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 ..... | 42 |
| 표 26. 주된 소득 발생 .....                            | 43 |
| 표 27. 응답자 특성별 - 주된 소득 발생 .....                  | 44 |
| 표 28. 월평균 지출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           | 45 |
| 표 29. 응답자 특성별 - 월평균 지출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 | 46 |
| 표 30. 부채(대출) 여부 .....                           | 47 |
| 표 31. 응답자 특성별 - 부채(대출) 여부 .....                 | 47 |
| 표 32. 부채(대출)의 사용 용도 .....                       | 48 |
| 표 33. 관계 만족도 .....                              | 49 |

|   |    |
|---|----|
| 표 34. 응답자 특성별 - [관계 만족도] 부모 .....                           | 50 |
| 표 35. 응답자 특성별 - [관계 만족도] 형제 · 자매 .....                      | 51 |
| 표 36. 응답자 특성별 - [관계 만족도] 자녀 .....                           | 52 |
| 표 37. 응답자 특성별 - [관계 만족도] 친구 .....                           | 53 |
| 표 38. 응답자 특성별 - [관계 만족도] 이웃 .....                           | 54 |
| 표 39. 소통 및 접촉 빈도 .....                                      | 55 |
| 표 40. 응답자 특성별 - [소통 및 접촉 빈도] 부모 .....                       | 56 |
| 표 41. 응답자 특성별 - [소통 및 접촉 빈도] 형제 · 자매 .....                  | 57 |
| 표 42. 응답자 특성별 - [소통 및 접촉 빈도] 자녀 .....                       | 58 |
| 표 43. 응답자 특성별 - [소통 및 접촉 빈도] 친구 .....                       | 59 |
| 표 44. 응답자 특성별 - [소통 및 접촉 빈도] 이웃 .....                       | 60 |
| 표 45. 가족관계의 가장 큰 어려움 .....                                  | 61 |
| 표 46. 응답자 특성별 - 가족관계의 가장 큰 어려움 .....                        | 63 |
| 표 47. 사회적 관계 활동의 가장 큰 어려운 점 .....                           | 64 |
| 표 48. 응답자 특성별 - 사회적 관계 활동의 가장 큰 어려운 점 .....                 | 65 |
| 표 49. 생활 전반의 고민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주된 행동 방식 .....                  | 66 |
| 표 50. 응답자 특성별 - 생활 전반의 고민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주된 행동 방식 .....        | 68 |
| 표 51. 연락 가능한 대상 .....                                       | 69 |
| 표 52. 응답자 특성별 - [연락 가능한 대상] 가끔이라도 연락을 하는 사이 .....           | 70 |
| 표 53. 응답자 특성별 - [연락 가능한 대상]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이 .....  | 71 |
| 표 54. 지난 1년 동안 참여 경험이 있는 온 · 오프라인 사회적 관계 활동 여부 .....        | 72 |
| 표 55. 응답자 특성별 - 지난 1년 동안 참여 경험이 있는 온 · 오프라인 사회적 관계 활동 여부 .. | 72 |
| 표 56. 월 평균 활동 횟수 .....                                      | 73 |
| 표 57. 응답자 특성별 - 월 평균 활동 횟수 .....                            | 74 |
| 표 58. 사회적 관계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                     | 75 |
| 표 59. 응답자 특성별 - 사회적 관계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1순위) .....     | 76 |
| 표 60. 사회적 관계 활동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                         | 77 |
| 표 61. 응답자 특성별 - 사회적 관계 활동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               | 78 |
| 표 62. 프로그램 필요성 .....  | 80 |
| 표 63. 응답자 특성별 - [건강] 스트레스 완화 등 정신건강 회복 프로그램 .....           | 83 |
| 표 64. 응답자 특성별 - [건강] 건강관리교육 .....                           | 84 |
| 표 65. 응답자 특성별 - [건강] 신체운동 프로그램 .....                        | 85 |
| 표 66. 응답자 특성별 - [건강] 요리 프로그램 .....                          | 86 |
| 표 67. 응답자 특성별 - [주거] 부동산 및 재무 교육 .....                      | 87 |
| 표 68. 응답자 특성별 - [주거] 주거공간 개선 .....                          | 88 |
| 표 69. 응답자 특성별 - [주거] 주거안전 지원 .....                          | 89 |

|   |     |
|---|-----|
| 표 70. 응답자 특성별 - [주거] 주거공동체 지원 .....       | 90  |
| 표 71. 응답자 특성별 - [여가] 취미·자기개발 활동 .....     | 91  |
| 표 72. 응답자 특성별 - [여가] 관람·감상활동 .....        | 92  |
| 표 73. 응답자 특성별 - [여가] 관광활동 .....           | 93  |
| 표 74. 응답자 특성별 - [여가] 봉사활동 .....           | 94  |
| 표 75. 응답자 특성별 - [경제] 재테크 및 예금·적금 운용 ..... | 95  |
| 표 76. 응답자 특성별 - [경제] 금융정보 관련 교육 .....     | 96  |
| 표 77. 응답자 특성별 - [경제] 노후(자금) 설계 교육 .....   | 97  |
| 표 78. 응답자 특성별 - [경제] 소비·지출 관리 교육 .....    | 98  |
| 표 79. 응답자 특성별 - [가족 관계] 가족상담 .....        | 99  |
| 표 80. 응답자 특성별 - [가족 관계] 의사소통교육 .....      | 100 |
| 표 81. 응답자 특성별 - [가족 관계] 가족문화프로그램 .....    | 101 |
| 표 82. 응답자 특성별 - [사회적 관계망] 동아리 활동 .....    | 102 |
| 표 83. 응답자 특성별 - [사회적 관계망] 생활 품앗이 .....    | 103 |
| 표 84. 응답자 특성별 - [사회적 관계망] 공유부엌 .....      | 104 |
| 표 85. 응답자 특성별 - [사회적 관계망] 마을공동체 .....     | 105 |
| 표 86. 1인가구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 .....             | 106 |
| 표 87. 응답자 특성별 - 1인가구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 .....   | 106 |
| 표 88. 1인가구 정책 및 서비스 관련 기타의견 .....         | 107 |
| 표 89. 성별, 연령에 따른 프로그램 필요성 .....           | 117 |



## | 그림 목차 |

|   |    |
|---|----|
| 그림 1. 혼자 생활하는 가장 큰 이유 .....                 | 19 |
| 그림 2. 혼자 생활하면서 가장 불편한 점 .....               | 24 |
| 그림 3. 혼자 생활하면서 가장 불안한 점 .....               | 27 |
| 그림 4. 스스로 평가하는 신체 및 정신 건강상태 .....           | 29 |
| 그림 5. 정신건강 관련 경험 .....                      | 32 |
| 그림 6. 혼자 식사하는 주된 방법 .....                   | 36 |
| 그림 7. 주거지 결정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 .....         | 39 |
| 그림 8. 여가활동을 하는데 있어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 .....       | 41 |
| 그림 9. 주된 소득 발생 .....                        | 43 |
| 그림 10. 월평균 지출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      | 45 |
| 그림 11. 관계 만족도 .....                         | 49 |
| 그림 12. 소통 및 접촉 빈도 .....                     | 55 |
| 그림 13. 가족관계의 가장 큰 어려움 .....                 | 62 |
| 그림 14. 사회적 관계 활동의 가장 큰 어려운 점 .....          | 64 |
| 그림 15. 생활 전반의 고민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주된 행동 방식 ..... | 67 |
| 그림 16. 연락 가능한 대상 .....                      | 69 |
| 그림 17. 월 평균 활동 횟수 .....                     | 73 |
| 그림 18. 사회적 관계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    | 75 |
| 그림 19. 사회적 관계 활동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        | 77 |
| 그림 20. 프로그램 필요성 .....                       | 82 |



# I. 서론

1. 조사 배경 및 목적

2. 조사 내용과 방법



# I. 서론

## 1. 조사 배경 및 목적

-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부산시 1인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 유형 중 34%로 전국 7대 광역시 중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2035년은 36.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1인가구 지원서비스 및 프로그램 등 사회관계망 지원을 위한 1인가구 프로그램 욕구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3-1. 지역 기반 다양한 가족의 돌봄 지원 확대)에 따라 1인가구 고독·고립 등 방지를 위한 사회관계망 지원을 위해 생애주기별 대상에 따른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 본 조사를 통해 부산 지역 1인가구의 생활현황, 사회적 관계망, 프로그램 요구도 등을 파악하여 지역센터에서 1인가구 사업 기획 및 사회적관계망 형성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 2. 조사 내용과 방법

- 설문 구성을 위해 1차 기존 문헌 검토 및 회의를 통해 기본 설계하였고, 2차 전문가 자문 절차를 거쳤다.
- 조사내용은 생활현황, 사회적 관계망, 프로그램 요구도로 구성하였다.
- 조사대상은 부산지역 내 1인가구로 성별, 연령대에 따라 참여 가능 인원을 정하여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300부를 분석하여 연령과 성별에 따라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하였다.



## Ⅱ. 조사결과

1. 조사개요
2. 응답자 특성
3. 생활현황
4. 사회적 관계망
5. 프로그램 요구도





## II. 조사결과

### 1. 조사개요

#### 1) 조사 대상

-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프로그램 기획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부산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 3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기관 홈페이지, SNS(블로그, 카카오톡 채널), 유관기관 협조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온라인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성별, 연령의 구분을 둔 할당표집 방법을 사용하여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으며, 총 300부의 설문 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결과분석에 사용되었다.

#### 2) 조사 내용

- 조사내용은 생활현황, 사회적 관계망, 프로그램 요구도로 구성하였다.
- 조사내용은 기존 문헌 검토 및 센터 내부 회의를 거쳐 기본 설계 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전체 문항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였다.

| 표 1 설문조사 영역 및 내용 |   |
|------------------|---|
| 영역               | 조사내용  |
| 응답자 특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li> <li>· 연령</li> <li>· 혼인상태</li> <li>· 주관적 경제</li> <li>· 학력</li> <li>· 취업상태</li> <li>· 1인가구 생활 기간</li> <li>· 현재 거주 지역(구)</li> </ul> |
| 생활현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가구 생활 이유</li> <li>· 1인가구 생활 만족도</li> <li>· 1인가구 생활 지속여부</li> <li>· 1인가구 생활의 불편한 점</li> <li>· 1인가구 생활의 불안한 점</li> </ul>                 |

| 영역  | 조사내용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스로 평가하는 신체 건강상태</li> <li>· 스스로 평가하는 정신 건강상태</li> <li>· 정신건강 관련(우울정도, 불안감정도, 외로움정도) 경험여부</li> <li>· 식사 방법</li> <li>· 주거지 결정 요인</li> <li>· 여가활동의 어려운 점</li> <li>· 주 소득원</li> <li>· 월평균 지출액 비중</li> <li>· 부채(대출) 여부 및 사용용도</li> </ul>                            |
| <p style="text-align: center;">사회적 관계망</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li> <li>· 가족, 사회적 친분관계의 소통 및 접촉(만남, 전화) 빈도</li> <li>· 가족관계의 어려운 점</li> <li>· 사회적 관계 활동(모임 또는 단체활동)의 어려운 점</li> <li>· 고민 해결방식</li> <li>· 상황별(위급 시 등) 연락 가능한 대상</li> <li>· 사회적 관계 활동 여부, 활동횟수, 활동지속 이유</li> <li>· 사회적 관계 활동에 필요한 지원</li> </ul> |
| <p style="text-align: center;">프로그램 요구도</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 필요성(건강, 주거, 여가, 경제,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망)</li> <li>· 프로그램 참여 의사</li> <li>· 1인가구 정책 및 서비스 관련 의견</li> </ul>  |

### 3) 조사 분석

- 설문조사 분석은 spss win 22.0을 이용한 기술통계 분석으로 하여 성별, 연령대별, 연령·성별, 혼인상태별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 연령대별로 20~30대는 청년층, 40~50대는 중장년층, 60대 이상은 노년층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 2. 응답자 특성

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300명으로 응답자의 58.3%는 ‘여성’이고, 41.7%는 ‘남성’이었다. 응답자의 연령대는 ‘20대’ 23.7%, ‘30대’ 34.7%, ‘40대’ 20.3%, ‘50대’ 7.0%, ‘60대 이상’ 14.3%로 ‘30대’가 34.7%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혼인상태는 ‘비혼(미혼)’이 74.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기혼’ 11.0%, ‘이혼’ 10.3%, ‘사별’ 4.0%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거주지역은 ‘사하구’가 24.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부산진구’ 13.7%, ‘남구’ 6.7%(그 외 13개구·군 54.9%) 순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로 생활한 기간은 ‘1년 이상~3년 미만’이 33.0%로 가장 많았고, ‘10년 이상’ 19.7%, ‘3년 이상~5년 미만’ 18.3%, ‘5년 이상~10년 미만’ 16.3%, ‘1년 미만’ 12.7% 순으로 나타났다.

| 표 2 응답자 특성    |              |     |       |
|---------------|--------------|-----|-------|
| 구분            |              | 빈도  | 비율(%) |
| 성별            | 남성           | 125 | 41.7  |
|               | 여성           | 175 | 58.3  |
| 연령대           | 20대          | 71  | 23.7  |
|               | 30대          | 104 | 34.7  |
|               | 40대          | 61  | 20.3  |
|               | 50대          | 21  | 7.0   |
|               | 60대 이상       | 43  | 14.3  |
| 혼인상태          | 기혼           | 33  | 11.0  |
|               | 비혼(미혼)       | 224 | 74.7  |
|               | 이혼           | 31  | 10.3  |
|               | 사별           | 12  | 4.0   |
| 1인가구<br>생활 기간 | 1년 미만        | 38  | 12.7  |
|               | 1년 이상~3년 미만  | 99  | 33.0  |
|               | 3년 이상~5년 미만  | 55  | 18.3  |
|               | 5년 이상~10년 미만 | 49  | 16.3  |
|               | 10년 이상       | 59  | 19.7  |
| 주관적 경제수준      | 하            | 159 | 53.0  |
|               | 중            | 119 | 39.7  |
|               | 상            | 22  | 7.3   |

| 구분      |                                   | 빈도  | 비율(%) |
|---------|-----------------------------------|-----|-------|
| 학력      | 중졸이하                              | 10  | 3.3   |
|         | 고졸                                | 46  | 15.3  |
|         | 대졸(대재)                            | 224 | 74.7  |
|         | 대학원졸                              | 20  | 6.7   |
| 취업상태    | 취업                                | 206 | 68.7  |
|         | 실업(현재 무직이나 일을 구하고 있음)             | 51  | 17.0  |
|         | 비경제활동(현재 무직, 1개월 이상 일을 구하고 있지 않음) | 43  | 14.3  |
| 비취업 이유  | 재학, 진학준비                          | 7   | 16.3  |
|         | 취업준비 및 직업교육 과정                    | 14  | 32.6  |
|         | 건강상의 이유                           | 17  | 39.5  |
|         | 기타                                | 5   | 11.6  |
| 거주지역(구) | 강서구                               | 14  | 4.7   |
|         | 금정구                               | 19  | 6.3   |
|         | 기장군                               | 15  | 5.0   |
|         | 남구                                | 20  | 6.7   |
|         | 동구                                | 4   | 1.3   |
|         | 동래구                               | 18  | 6.0   |
|         | 부산진구                              | 41  | 13.7  |
|         | 북구                                | 18  | 6.0   |
|         | 사상구                               | 18  | 6.0   |
|         | 사하구                               | 74  | 24.7  |
|         | 서구                                | 5   | 1.7   |
|         | 수영구                               | 19  | 6.3   |
|         | 연제구                               | 11  | 3.7   |
|         | 영도구                               | 10  | 3.3   |
|         | 중구                                | 4   | 1.3   |
|         | 해운대구                              | 10  | 3.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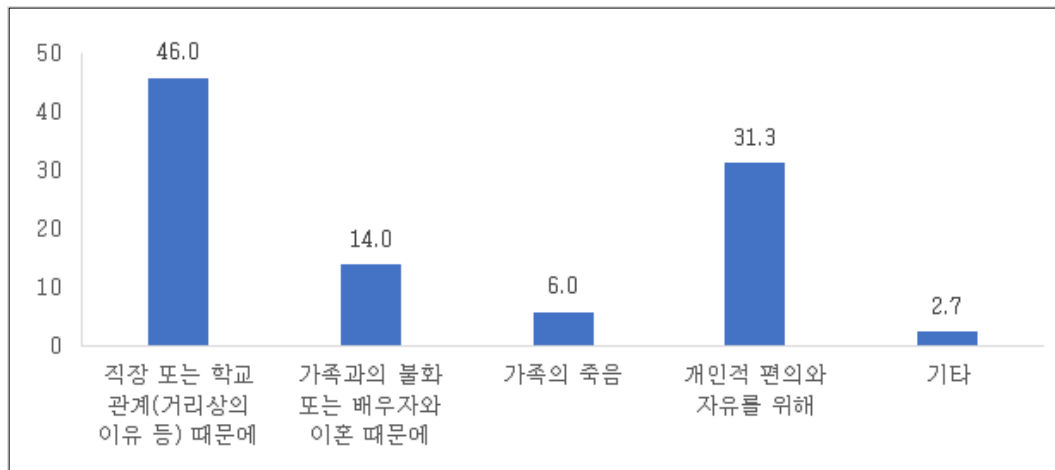
### 3. 생활현황

#### 1) 혼자 생활하는 가장 큰 이유

혼자 생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직장 또는 학교 관계(거리상의 이유 등) 때문에’가 46.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개인적 편의와 자유를 위해’ 31.3%, ‘가족과의 불화 또는 배우자와 이혼 때문에’ 14.0%, ‘가족의 죽음’ 6.0%, ‘기타’ 2.7% 순으로 나타났다.

| 구분                         | 빈도  | %     |
|----------------------------|-----|-------|
| 직장 또는 학교 관계(거리상의 이유 등) 때문에 | 138 | 46.0  |
| 가족과의 불화 또는 배우자와 이혼 때문에     | 42  | 14.0  |
| 가족의 죽음                     | 18  | 6.0   |
| 개인적 편의와 자유를 위해             | 94  | 31.3  |
| 기타                         | 8   | 2.7   |
| 합계                         | 300 | 100.0 |

그림 1 혼자 생활하는 가장 큰 이유 단위: %



혼자 생활하는 가장 큰 이유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과 비혼(미혼), 청년층은 ‘직장 또는 학교 관계(거리상의 이유 등) 때문에’를 높게 응답하였고, 특히 청년층 남성이 78.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가족과의 불화 또는 배우자와 이혼 때문에’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직장 또는 학교 관계(거리상의 이유 등) 때문에(56.0%)’, 여성은 ‘개인적 편의와 자유를 위해(39.4%)’, 연령대별로는 청년층은 ‘직장 또는 학교 관계(거리상의 이유 등) 때문에(63.4%)’, 중장년층은 ‘개인적 편의와 자유를 위해(42.7%)’, 노년층은 ‘가족의 죽음(32.6%)’으로 나타났다.

| 구분            |         | 직장 또는 학교<br>(거리상의<br>이유 등) | 가족과의<br>불화 또는<br>배우자와<br>이혼 | 가족의<br>죽음    | 개인적<br>편의와<br>자유 | 기타           | 합계          |                |
|---------------|---------|----------------------------|-----------------------------|--------------|------------------|--------------|-------------|----------------|
| 전체            |         | (빈도)<br>%                  | (138)<br>46.0               | (42)<br>14.0 | (18)<br>6.0      | (94)<br>31.3 | (8)<br>2.7  | (300)<br>100.0 |
| 성별            | 남성      | (빈도)<br>%                  | (70)<br>56.0                | (22)<br>17.6 | (7)<br>5.6       | (25)<br>20.0 | (1)<br>0.8  | (125)<br>100.0 |
|               | 여성      | (빈도)<br>%                  | (68)<br>38.9                | (20)<br>11.4 | (11)<br>6.3      | (69)<br>39.4 | (7)<br>4.0  | (175)<br>100.0 |
| 연령대           | 청년층     | (빈도)<br>%                  | (111)<br>63.4               | (14)<br>8.0  | (1)<br>0.6       | (47)<br>26.9 | (2)<br>1.1  | (175)<br>100.0 |
|               | 중장년층    | (빈도)<br>%                  | (25)<br>30.5                | (16)<br>19.5 | (3)<br>3.7       | (35)<br>42.7 | (3)<br>3.7  | (82)<br>100.0  |
|               | 노년층     | (빈도)<br>%                  | (2)<br>4.7                  | (12)<br>27.9 | (14)<br>32.6     | (12)<br>27.9 | (3)<br>7.0  | (43)<br>100.0  |
| 연령<br>·<br>성별 | 청년층 남성  | (빈도)<br>%                  | (59)<br>78.7                | (8)<br>10.7  | -                | (8)<br>10.7  | -           | (75)<br>100.0  |
|               | 청년층 여성  | (빈도)<br>%                  | (52)<br>52.0                | (6)<br>6.0   | (1)<br>1.0       | (39)<br>39.0 | (2)<br>2.0  | (100)<br>100.0 |
|               | 중장년층 남성 | (빈도)<br>%                  | (10)<br>38.5                | (3)<br>11.5  | (2)<br>7.7       | (10)<br>38.5 | (1)<br>3.8  | (26)<br>100.0  |
|               | 중장년층 여성 | (빈도)<br>%                  | (15)<br>26.8                | (13)<br>23.2 | (1)<br>1.8       | (25)<br>44.6 | (2)<br>3.6  | (56)<br>100.0  |
|               | 노년층 남성  | (빈도)<br>%                  | (1)<br>4.2                  | (11)<br>45.8 | (5)<br>20.8      | (7)<br>29.2  | -           | (24)<br>100.0  |
|               | 노년층 여성  | (빈도)<br>%                  | (1)<br>5.3                  | (1)<br>5.3   | (9)<br>47.4      | (5)<br>26.3  | (3)<br>15.8 | (19)<br>100.0  |
| 혼인<br>상태      | 기혼      | (빈도)<br>%                  | (10)<br>30.3                | (9)<br>27.3  | (5)<br>15.2      | (8)<br>24.2  | (1)<br>3.0  | (33)<br>100.0  |
|               | 비혼(미혼)  | (빈도)<br>%                  | (126)<br>56.3               | (10)<br>4.5  | (6)<br>2.7       | (78)<br>34.8 | (4)<br>1.8  | (224)<br>100.0 |
|               | 이혼      | (빈도)<br>%                  | (2)<br>6.5                  | (23)<br>74.2 | -                | (6)<br>19.4  | -           | (31)<br>100.0  |
|               | 사별      | (빈도)<br>%                  | -                           | -            | (7)<br>58.3      | (2)<br>16.7  | (3)<br>25.0 | (12)<br>100.0  |

2)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만족도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만족도는 5점 평균 3.71이며, 만족(다소 만족+매우 만족) 59.0%, 보통 33.0%, 불만족(다소 불만족+매우 불만족) 8.0%로 나타났다.

| 표 5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만족도 |        |      |       |
|---------------------|--------|------|-------|
| 구분                  |        | 빈도   | %     |
| 5점 평균               |        | 3.71 |       |
| 5점 척도               | 매우 불만족 | 5    | 1.7   |
|                     | 다소 불만족 | 19   | 6.3   |
|                     | 보통     | 99   | 33.0  |
|                     | 다소 만족  | 111  | 37.0  |
|                     | 매우 만족  | 66   | 22.0  |
| 합계                  |        | 300  | 100.0 |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만족도의 ‘만족’비율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 69.1%, 남성 44.8%, 연령대별로는 청년층 65.7%, 중장년층 51.2%, 노년층 46.5%, 혼인상태별로는 비혼(미혼) 62.9%, 이혼 61.3%, 사별 41.7%, 기혼 36.4%로 나타났다.

| 표 6 응답자 특성별 -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만족도 |      |           |        |            |             |              |               |              |                |
|-------------------------------|------|-----------|--------|------------|-------------|--------------|---------------|--------------|----------------|
| 구분                            |      | 5점 평균     | 5점 척도  |            |             |              |               | 합계           |                |
|                               |      |           | 매우 불만족 | 다소 불만족     | 보통          | 다소 만족        | 매우 만족         |              |                |
| 전체                            |      | (빈도)<br>% | 3.71   | (5)<br>1.7 | (19)<br>6.3 | (99)<br>33.0 | (111)<br>37.0 | (66)<br>22.0 | (300)<br>100.0 |
| 성별                            | 남성   | (빈도)<br>% | 3.43   | (3)<br>2.4 | (8)<br>6.4  | (58)<br>46.4 | (44)<br>35.2  | (12)<br>9.6  | (125)<br>100.0 |
|                               | 여성   | (빈도)<br>% | 3.91   | (2)<br>1.1 | (11)<br>6.3 | (41)<br>23.4 | (67)<br>38.3  | (54)<br>30.9 | (175)<br>100.0 |
| 연령대                           | 청년층  | (빈도)<br>% | 3.87   | (2)<br>1.1 | (6)<br>3.4  | (52)<br>29.7 | (67)<br>38.3  | (48)<br>27.4 | (175)<br>100.0 |
|                               | 중장년층 | (빈도)<br>% | 3.56   | (2)<br>2.4 | (9)<br>11.0 | (29)<br>35.4 | (25)<br>30.5  | (17)<br>20.7 | (82)<br>100.0  |
|                               | 노년층  | (빈도)<br>% | 3.35   | (1)<br>2.3 | (4)<br>9.3  | (18)<br>41.9 | (19)<br>44.2  | (1)<br>2.3   | (43)<br>100.0  |

| 구분            |         |           | 5점 평균 | 5점 척도      |             |              |              |              | 합계             |
|---------------|---------|-----------|-------|------------|-------------|--------------|--------------|--------------|----------------|
|               |         |           |       | 매우 불만족     | 다소 불만족      | 보통           | 다소 만족        | 매우 만족        |                |
| 연령<br>·<br>성별 | 청년층 남성  | (빈도)<br>% | 3.56  | (1)<br>1.3 | (2)<br>2.7  | (36)<br>48.0 | (26)<br>34.7 | (10)<br>13.3 | (75)<br>100.0  |
|               | 청년층 여성  | (빈도)<br>% | 4.11  | (1)<br>1.0 | (4)<br>4.0  | (16)<br>16.0 | (41)<br>41.0 | (38)<br>38.0 | (100)<br>100.0 |
|               | 중장년층 남성 | (빈도)<br>% | 3.19  | (1)<br>3.8 | (3)<br>11.5 | (14)<br>53.8 | (6)<br>23.1  | (2)<br>7.7   | (26)<br>100.0  |
|               | 중장년층 여성 | (빈도)<br>% | 3.73  | (1)<br>1.8 | (6)<br>10.7 | (15)<br>26.8 | (19)<br>33.9 | (15)<br>26.8 | (56)<br>100.0  |
|               | 노년층 남성  | (빈도)<br>% | 3.29  | (1)<br>4.2 | (3)<br>12.5 | (8)<br>33.3  | (12)<br>50.0 | -<br>-       | (24)<br>100.0  |
|               | 노년층 여성  | (빈도)<br>% | 3.42  | -<br>-     | (1)<br>5.3  | (10)<br>52.6 | (7)<br>36.8  | (1)<br>5.3   | (19)<br>100.0  |
| 혼인<br>상태      | 기혼      | (빈도)<br>% | 3.33  | (1)<br>3.0 | (2)<br>6.1  | (18)<br>54.5 | (9)<br>27.3  | (3)<br>9.1   | (33)<br>100.0  |
|               | 비혼(미혼)  | (빈도)<br>% | 3.81  | (4)<br>1.8 | (11)<br>4.9 | (68)<br>30.4 | (82)<br>36.6 | (59)<br>26.3 | (224)<br>100.0 |
|               | 이혼      | (빈도)<br>% | 3.58  | -<br>-     | (4)<br>12.9 | (8)<br>25.8  | (16)<br>51.6 | (3)<br>9.7   | (31)<br>100.0  |
|               | 사별      | (빈도)<br>% | 3.33  | -<br>-     | (2)<br>16.7 | (5)<br>41.7  | (4)<br>33.3  | (1)<br>8.3   | (12)<br>100.0  |

### 3) 앞으로도 혼자서 생활할 생각

앞으로도 혼자서 생활할 생각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혼자 살 것이다’ 46.7%, ‘언젠가는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 것이다’ 53.3%로 나타났다.

| 표 7   앞으로도 혼자서 생활할 생각      |     |       |
|----------------------------|-----|-------|
| 구분                         | 빈도  | %     |
| 앞으로도 계속 혼자 살 것이다           | 140 | 46.7  |
| 언젠가는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 것이다 | 160 | 53.3  |
| 합계                         | 300 | 100.0 |

앞으로도 혼자서 생활할 생각인지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 혼자 살 것이다’는 응답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노년층, 특히 노년층 여성과 사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 46.9%, 남성 46.4%로 큰 차이가 없었다. 연령대별로는 노년층 62.8%, 청



년층 44.6%, 중장년층 42.7%, 연령·성별로는 노년층 여성 89.5%, 중장년층 남성 50.0%, 청년층 남성 46.7%, 청년층 여성 43.0%, 노년층 남성 41.7%, 중장년층 여성 39.3%, 혼인상태별로는 사별 91.7%, 기혼 48.5%, 이혼 48.4%, 비혼(미혼) 43.8%로 나타났다.

| 구분        |          |           | 앞으로도 계속 혼자<br>살 것이다 | 언젠가는 가족이나<br>다른 사람들과 함께<br>살 것이다 | 합계             |
|-----------|----------|-----------|---------------------|----------------------------------|----------------|
| 전체        |          | (빈도)<br>% | (140)<br>46.7       | (160)<br>53.3                    | (300)<br>100.0 |
| 성별        | 남성       | (빈도)<br>% | (58)<br>46.4        | (67)<br>53.6                     | (125)<br>100.0 |
|           | 여성       | (빈도)<br>% | (82)<br>46.9        | (93)<br>53.1                     | (175)<br>100.0 |
| 연령대       | 청년층      | (빈도)<br>% | (78)<br>44.6        | (97)<br>55.4                     | (175)<br>100.0 |
|           | 중장년층     | (빈도)<br>% | (35)<br>42.7        | (47)<br>57.3                     | (82)<br>100.0  |
|           | 노년층      | (빈도)<br>% | (27)<br>62.8        | (16)<br>37.2                     | (43)<br>100.0  |
| 연령·<br>성별 | 청년층 남성   | (빈도)<br>% | (35)<br>46.7        | (40)<br>53.3                     | (75)<br>100.0  |
|           | 청년층 여성   | (빈도)<br>% | (43)<br>43.0        | (57)<br>57.0                     | (100)<br>100.0 |
|           | 중장년층 남성  | (빈도)<br>% | (13)<br>50.0        | (13)<br>50.0                     | (26)<br>100.0  |
|           | 중장년층 여성  | (빈도)<br>% | (22)<br>39.3        | (34)<br>60.7                     | (56)<br>100.0  |
|           | 노년층 남성   | (빈도)<br>% | (10)<br>41.7        | (14)<br>58.3                     | (24)<br>100.0  |
|           | 노년층 여성   | (빈도)<br>% | (17)<br>89.5        | (2)<br>10.5                      | (19)<br>100.0  |
|           | 혼인<br>상태 | 기혼        | (빈도)<br>%           | (16)<br>48.5                     | (17)<br>51.5   |
|           | 비혼(미혼)   | (빈도)<br>% | (98)<br>43.8        | (126)<br>56.3                    | (224)<br>100.0 |
|           | 이혼       | (빈도)<br>% | (15)<br>48.4        | (16)<br>51.6                     | (31)<br>100.0  |
|           | 사별       | (빈도)<br>% | (11)<br>91.7        | (1)<br>8.3                       | (12)<br>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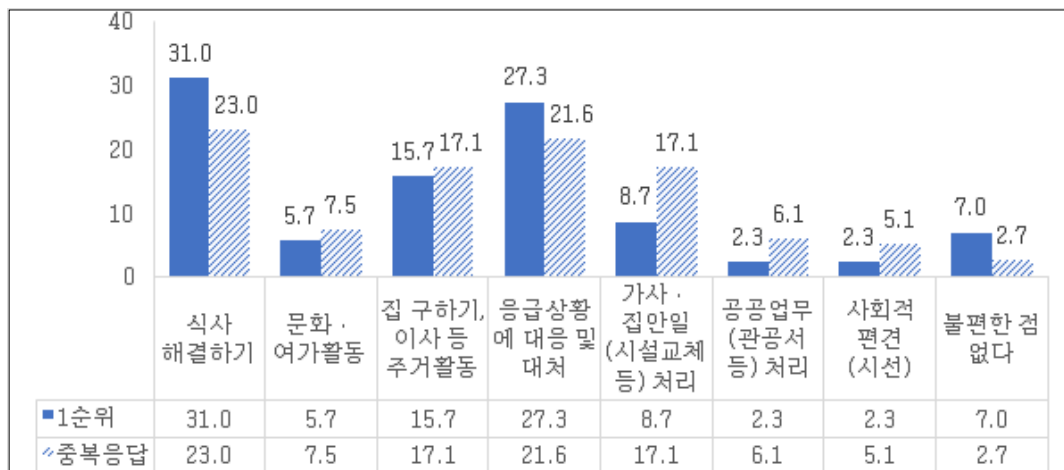
#### 4) 혼자 생활하면서 가장 불편한 점

혼자 생활하면서 가장 불편한 점 1순위 응답은 ‘식사 해결하기’가 31.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응급상황에 대응 및 대처’ 27.3%, ‘집(방) 구하기, 이사 등 주거활동’ 15.7% 순으로 나타났다.

표 9 혼자 생활하면서 가장 불편한 점

| 구분                    |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중복응답 합계 |       |
|-----------------------|-----|-------|-----|-------|-----|-------|---------|-------|
|                       | 빈도  | %     | 빈도  | %     | 빈도  | %     | 빈도      | %     |
| 식사 해결하기               | 93  | 31.0  | 50  | 19.1  | 39  | 17.0  | 182     | 23.0  |
| 문화·여가활동               | 17  | 5.7   | 24  | 9.2   | 18  | 7.9   | 59      | 7.5   |
| 집(방) 구하기, 이사 등 주거활동   | 47  | 15.7  | 38  | 14.5  | 50  | 21.8  | 135     | 17.1  |
| 응급상황에 대응 및 대처         | 82  | 27.3  | 49  | 18.7  | 40  | 17.5  | 171     | 21.6  |
| 가사·집안일(시설교체 등) 처리     | 26  | 8.7   | 73  | 27.9  | 36  | 15.7  | 135     | 17.1  |
| 공공업무(관공서, 은행 업무 등) 처리 | 7   | 2.3   | 17  | 6.5   | 24  | 10.5  | 48      | 6.1   |
| 사회적 편견(시선)            | 7   | 2.3   | 11  | 4.2   | 22  | 9.6   | 40      | 5.1   |
| 불편한 점 없다              | 21  | 7.0   | -   | -     | -   | -     | 21      | 2.7   |
| 합계                    | 300 | 100.0 | 262 | 100.0 | 229 | 100.0 | 791     | 100.0 |

그림 2 혼자 생활하면서 가장 불편한 점 단위: %



1순위 응답 결과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식사 해결하기’가 가장 불편한 반면, 여성은 ‘응급상황에 대응 및 대처’가 가장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령이 낮

을수록 ‘식사 해결하기’가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청년층 남성의 ‘식사 해결하기’는 6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은 ‘식사 해결하기(44.8%)’, ‘응급상황에 대응 및 대처(17.6%)’, ‘집(방) 구하기, 이사 등 주거활동(13.6%)’, 여성은 ‘응급상황에 대응 및 대처(34.3%)’, ‘식사 해결하기(21.1%)’, ‘집(방) 구하기, 이사 등 주거활동(17.1%)’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청년층은 ‘식사 해결하기(41.7%)’, ‘응급상황에 대응 및 대처(21.1%)’, 중장년층은 ‘응급상황에 대응 및 대처(39.0%)’, ‘식사 해결하기(20.7%)’, 노년층은 ‘응급상황에 대응 및 대처(30.2%)’, ‘문화·여가활동(18.6%)’ 순으로 나타났다.

표 10 응답자 특성별 - 혼자 생활하면서 가장 불편한 점 (1순위)

| 구분        |         | 식사<br>해결하기 | 문화·<br>여가활동  | 집(방)<br>구하기,<br>이사 등<br>주거활동 | 응급<br>상황에<br>대응 및<br>대처 | 가사·<br>집안일<br>(시설교<br>체 등)<br>처리 | 공공업무<br>(관공서,<br>은행<br>업무 등)<br>처리 | 사회적<br>편견<br>(시선) | 불편한<br>점<br>없다 | 합계          |                |
|-----------|---------|------------|--------------|------------------------------|-------------------------|----------------------------------|------------------------------------|-------------------|----------------|-------------|----------------|
| 전체        |         | (빈도)<br>%  | (93)<br>31.0 | (17)<br>5.7                  | (47)<br>15.7            | (82)<br>27.3                     | (26)<br>8.7                        | (7)<br>2.3        | (7)<br>2.3     | (21)<br>7.0 | (300)<br>100.0 |
| 성별        | 남성      | (빈도)<br>%  | (56)<br>44.8 | (10)<br>8.0                  | (17)<br>13.6            | (22)<br>17.6                     | (8)<br>6.4                         | (3)<br>2.4        | (3)<br>2.4     | (6)<br>4.8  | (125)<br>100.0 |
|           | 여성      | (빈도)<br>%  | (37)<br>21.1 | (7)<br>4.0                   | (30)<br>17.1            | (60)<br>34.3                     | (18)<br>10.3                       | (4)<br>2.3        | (4)<br>2.3     | (15)<br>8.6 | (175)<br>100.0 |
| 연령대       | 청년층     | (빈도)<br>%  | (73)<br>41.7 | (5)<br>2.9                   | (29)<br>16.6            | (37)<br>21.1                     | (14)<br>8.0                        | (5)<br>2.9        | (2)<br>1.1     | (10)<br>5.7 | (175)<br>100.0 |
|           | 중장년층    | (빈도)<br>%  | (17)<br>20.7 | (4)<br>4.9                   | (12)<br>14.6            | (32)<br>39.0                     | (6)<br>7.3                         | -<br>-            | (5)<br>6.1     | (6)<br>7.3  | (82)<br>100.0  |
|           | 노년층     | (빈도)<br>%  | (3)<br>7.0   | (8)<br>18.6                  | (6)<br>14.0             | (13)<br>30.2                     | (6)<br>14.0                        | (2)<br>4.7        | -<br>-         | (5)<br>11.6 | (43)<br>100.0  |
| 연령·<br>성별 | 청년층 남성  | (빈도)<br>%  | (45)<br>60.0 | (2)<br>2.7                   | (9)<br>12.0             | (9)<br>12.0                      | (3)<br>4.0                         | (2)<br>2.7        | (1)<br>1.3     | (4)<br>5.3  | (75)<br>100.0  |
|           | 청년층 여성  | (빈도)<br>%  | (28)<br>28.0 | (3)<br>3.0                   | (20)<br>20.0            | (28)<br>28.0                     | (11)<br>11.0                       | (3)<br>3.0        | (1)<br>1.0     | (6)<br>6.0  | (100)<br>100.0 |
|           | 중장년층 남성 | (빈도)<br>%  | (8)<br>30.8  | (2)<br>7.7                   | (4)<br>15.4             | (7)<br>26.9                      | (1)<br>3.8                         | -<br>-            | (2)<br>7.7     | (2)<br>7.7  | (26)<br>100.0  |
|           | 중장년층 여성 | (빈도)<br>%  | (9)<br>16.1  | (2)<br>3.6                   | (8)<br>14.3             | (25)<br>44.6                     | (5)<br>8.9                         | -<br>-            | (3)<br>5.4     | (4)<br>7.1  | (56)<br>100.0  |
|           | 노년층 남성  | (빈도)<br>%  | (3)<br>12.5  | (6)<br>25.0                  | (4)<br>16.7             | (6)<br>25.0                      | (4)<br>16.7                        | (1)<br>4.2        | -<br>-         | -<br>-      | (24)<br>100.0  |
|           | 노년층 여성  | (빈도)<br>%  | -<br>-       | (2)<br>10.5                  | (2)<br>10.5             | (7)<br>36.8                      | (2)<br>10.5                        | (1)<br>5.3        | -<br>-         | (5)<br>26.3 | (19)<br>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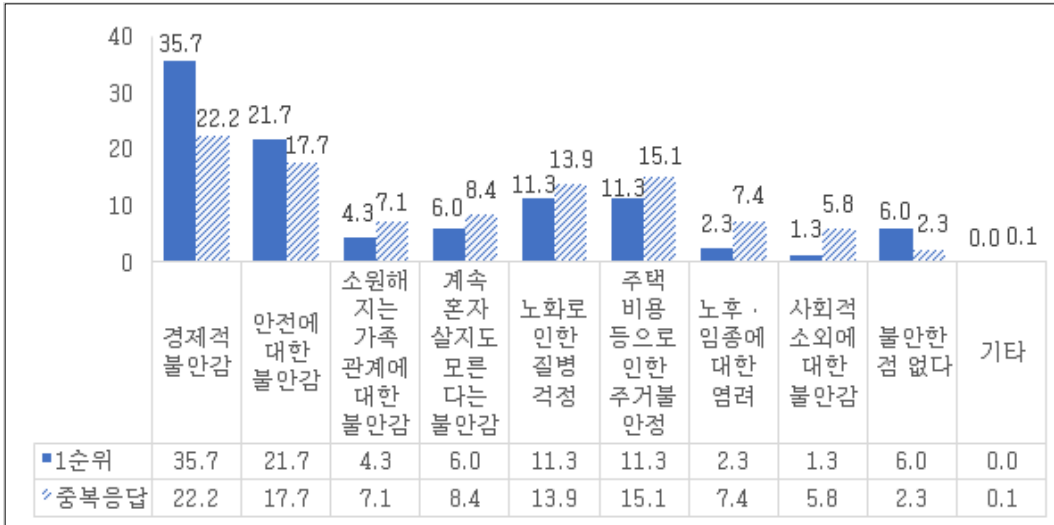
| 구분       |        | 식사<br>해결하기 | 문화·<br>여가활동  | 집(방)<br>구하기,<br>이사 등<br>주거활동 | 응급<br>상황에<br>대응 및<br>대처 | 가사·<br>집안일<br>(시설교<br>체 등)<br>처리 | 공공업무<br>(관공서,<br>은행<br>업무 등)<br>처리 | 사회적<br>편견<br>(시선) | 불편한<br>점<br>없다 | 합계            |                |
|----------|--------|------------|--------------|------------------------------|-------------------------|----------------------------------|------------------------------------|-------------------|----------------|---------------|----------------|
| 혼인<br>상태 | 기혼     | (빈도)<br>%  | (7)<br>21.2  | (5)<br>15.2                  | (5)<br>15.2             | (9)<br>27.3                      | (4)<br>12.1                        | -<br>-            | (3)<br>9.1     | (33)<br>100.0 |                |
|          | 비혼(미혼) | (빈도)<br>%  | (77)<br>34.4 | (11)<br>4.9                  | (39)<br>17.4            | (53)<br>23.7                     | (21)<br>9.4                        | (5)<br>2.2        | (3)<br>1.3     | (15)<br>6.7   | (224)<br>100.0 |
|          | 이혼     | (빈도)<br>%  | (8)<br>25.8  | -<br>-                       | (1)<br>3.2              | (14)<br>45.2                     | (1)<br>3.2                         | (2)<br>6.5        | (4)<br>12.9    | (1)<br>3.2    | (31)<br>100.0  |
|          | 사별     | (빈도)<br>%  | (1)<br>8.3   | (1)<br>8.3                   | (2)<br>16.7             | (6)<br>50.0                      | -<br>-                             | -<br>-            | -<br>-         | (2)<br>16.7   | (12)<br>100.0  |

### 5) 혼자 생활하면서 가장 불안한 점

혼자 생활하면서 가장 불안한 점 1순위 응답은 ‘경제적 불안감’이 35.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안전(성폭력, 범죄 등)에 대한 불안감’ 21.7%, ‘노화로 인한 질병 걱정’, ‘주택비용 등으로 인한 주거불안정’ 각 11.3% 순으로 나타났다.

| 구분                    |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중복응답 합계 |       |
|-----------------------|-----|-------|-----|-------|-----|-------|---------|-------|
|                       | 빈도  | %     | 빈도  | %     | 빈도  | %     | 빈도      | %     |
| 경제적 불안감               | 107 | 35.7  | 41  | 15.6  | 27  | 12.1  | 175     | 22.2  |
| 안전(성폭력, 범죄 등)에 대한 불안감 | 65  | 21.7  | 46  | 17.5  | 28  | 12.5  | 139     | 17.7  |
| 소원해지는 가족관계에 대한 불안감    | 13  | 4.3   | 18  | 6.8   | 25  | 11.2  | 56      | 7.1   |
| 계속 혼자 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 18  | 6.0   | 31  | 11.8  | 17  | 7.6   | 66      | 8.4   |
| 노화로 인한 질병 걱정          | 34  | 11.3  | 44  | 16.7  | 31  | 13.8  | 109     | 13.9  |
| 주택비용 등으로 인한 주거불안정     | 34  | 11.3  | 50  | 19.0  | 35  | 15.6  | 119     | 15.1  |
| 노후·임종에 대한 염려          | 7   | 2.3   | 22  | 8.4   | 29  | 12.9  | 58      | 7.4   |
| 사회적 소외에 대한 불안감        | 4   | 1.3   | 11  | 4.2   | 31  | 13.8  | 46      | 5.8   |
| 불안한 점 없다              | 18  | 6.0   | -   | -     | -   | -     | 18      | 2.3   |
| 기타                    | -   | -     | -   | -     | 1   | 0.4   | 1       | 0.1   |
| 합계                    | 300 | 100.0 | 263 | 100.0 | 224 | 100.0 | 787     | 100.0 |

그림 3 혼자 생활하면서 가장 불안한 점 단위: %



1순위 응답 결과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안전(성폭력, 범죄 등)에 대한 불안감’이 높게 나타났고, 연령이 낮을수록 ‘경제적 불안감’과 ‘주택비용 등으로 인한 주거불안정’에 높게 응답하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경제적 불안감(40.0%)’, ‘주택비용 등으로 인한 주거불안정(11.2%)’, ‘계속 혼자 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10.4%)’, 여성은 ‘경제적 불안감(32.6%)’, ‘안전(성폭력, 범죄 등)에 대한 불안감(30.9%)’, ‘노화로 인한 질병 걱정(13.1%)’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청년층은 ‘경제적 불안감(40.0%)’, ‘안전(성폭력, 범죄 등)에 대한 불안감(21.7%)’, ‘주택비용 등으로 인한 주거불안정(16.0%)’, 중장년층은 ‘경제적 불안감(32.9%)’, ‘안전(성폭력, 범죄 등)에 대한 불안감(24.4%)’, ‘노화로 인한 질병 걱정(19.5%)’, 노년층은 ‘경제적 불안감(23.3%)’, ‘노화로 인한 질병 걱정(20.9%)’, ‘안전(성폭력, 범죄 등)에 대한 불안감(16.3%)’ 순으로 나타났다.

| 구분    |         | 경제적 불안감   | 안전 (성폭력, 범죄 등)에 대한 불안감 | 소원해 지는 가족 관계에 대한 불안감 | 계속 혼자 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 노화로 인한 질병 걱정 | 주택비용 등으로 인한 주거 불안정 | 노후·임종에 대한 염려 | 사회적 소외에 대한 불안감 | 불안한 점 없다   | 합계          |                |
|-------|---------|-----------|------------------------|----------------------|--------------------|--------------|--------------------|--------------|----------------|------------|-------------|----------------|
| 전체    |         | (빈도)<br>% | (107)<br>35.7          | (65)<br>21.7         | (13)<br>4.3        | (18)<br>6.0  | (34)<br>11.3       | (34)<br>11.3 | (7)<br>2.3     | (4)<br>1.3 | (18)<br>6.0 | (300)<br>100.0 |
| 성별    | 남성      | (빈도)<br>% | (50)<br>40.0           | (11)<br>8.8          | (8)<br>6.4         | (13)<br>10.4 | (11)<br>8.8        | (14)<br>11.2 | (6)<br>4.8     | (2)<br>1.6 | (10)<br>8.0 | (125)<br>100.0 |
|       | 여성      | (빈도)<br>% | (57)<br>32.6           | (54)<br>30.9         | (5)<br>2.9         | (5)<br>2.9   | (23)<br>13.1       | (20)<br>11.4 | (1)<br>0.6     | (2)<br>1.1 | (8)<br>4.6  | (175)<br>100.0 |
| 연령대   | 청년층     | (빈도)<br>% | (70)<br>40.0           | (38)<br>21.7         | (5)<br>2.9         | (11)<br>6.3  | (9)<br>5.1         | (28)<br>16.0 | (2)<br>1.1     | (2)<br>1.1 | (10)<br>5.7 | (175)<br>100.0 |
|       | 중장년층    | (빈도)<br>% | (27)<br>32.9           | (20)<br>24.4         | (3)<br>3.7         | (4)<br>4.9   | (16)<br>19.5       | (5)<br>6.1   | (1)<br>1.2     | (1)<br>1.2 | (5)<br>6.1  | (82)<br>100.0  |
|       | 노년층     | (빈도)<br>% | (10)<br>23.3           | (7)<br>16.3          | (5)<br>11.6        | (3)<br>7.0   | (9)<br>20.9        | (1)<br>2.3   | (4)<br>9.3     | (1)<br>2.3 | (3)<br>7.0  | (43)<br>100.0  |
| 연령·성별 | 청년층 남성  | (빈도)<br>% | (37)<br>49.3           | (5)<br>6.7           | (2)<br>2.7         | (7)<br>9.3   | (2)<br>2.7         | (12)<br>16.0 | (2)<br>2.7     | (1)<br>1.3 | (7)<br>9.3  | (75)<br>100.0  |
|       | 청년층 여성  | (빈도)<br>% | (33)<br>33.0           | (33)<br>33.0         | (3)<br>3.0         | (4)<br>4.0   | (7)<br>7.0         | (16)<br>16.0 | -              | (1)<br>1.0 | (3)<br>3.0  | (100)<br>100.0 |
|       | 중장년층 남성 | (빈도)<br>% | (9)<br>34.6            | -                    | (1)<br>3.8         | (3)<br>11.5  | (6)<br>23.1        | (2)<br>7.7   | (1)<br>3.8     | (1)<br>3.8 | (3)<br>11.5 | (26)<br>100.0  |
|       | 중장년층 여성 | (빈도)<br>% | (18)<br>32.1           | (20)<br>35.7         | (2)<br>3.6         | (1)<br>1.8   | (10)<br>17.9       | (3)<br>5.4   | -              | -          | (2)<br>3.6  | (56)<br>100.0  |
|       | 노년층 남성  | (빈도)<br>% | (4)<br>16.7            | (6)<br>25.0          | (5)<br>20.8        | (3)<br>12.5  | (3)<br>12.5        | -            | (3)<br>12.5    | -          | -           | (24)<br>100.0  |
|       | 노년층 여성  | (빈도)<br>% | (6)<br>31.6            | (1)<br>5.3           | -                  | -            | (6)<br>31.6        | (1)<br>5.3   | (1)<br>5.3     | (1)<br>5.3 | (3)<br>15.8 | (19)<br>100.0  |
| 혼인 상태 | 기혼      | (빈도)<br>% | (9)<br>27.3            | (7)<br>21.2          | (3)<br>9.1         | (4)<br>12.1  | (4)<br>12.1        | (2)<br>6.1   | (1)<br>3.0     | (1)<br>3.0 | (2)<br>6.1  | (33)<br>100.0  |
|       | 비혼(미혼)  | (빈도)<br>% | (86)<br>38.4           | (51)<br>22.8         | (6)<br>2.7         | (14)<br>6.3  | (18)<br>8.0        | (29)<br>12.9 | (5)<br>2.2     | (3)<br>1.3 | (12)<br>5.4 | (224)<br>100.0 |
|       | 이혼      | (빈도)<br>% | (9)<br>29.0            | (7)<br>22.6          | (3)<br>9.7         | -            | (7)<br>22.6        | (2)<br>6.5   | -              | -          | (3)<br>9.7  | (31)<br>100.0  |
|       | 사별      | (빈도)<br>% | (3)<br>25.0            | -                    | (1)<br>8.3         | -            | (5)<br>41.7        | (1)<br>8.3   | (1)<br>8.3     | -          | (1)<br>8.3  | (12)<br>100.0  |

6) 스스로 평가하는 신체 및 정신 건강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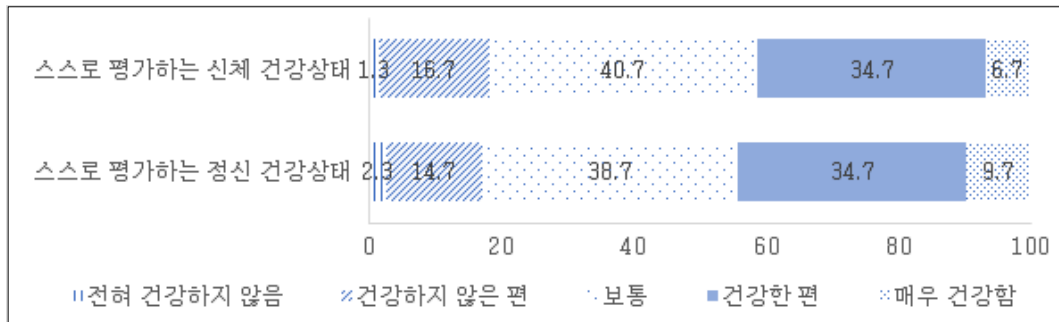
스스로 평가하는 건강함 정도를 건강함(건강한 편+매우 건강함), 보통, 건강하지 않음(건강하지 않은 편+전혀 건강하지 않음)으로 보았을 때, 건강함의 정도는 ‘정신 건강상태’ 44.3%, ‘신체 건강상태’ 41.3%로 나타났다.

스스로 평가하는 건강함 정도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신체 건강상태’는 5점 평균 3.29이며, 건강함 41.3%, 보통 40.7%, 건강하지 않음 18.0%, ‘정신 건강상태’는 5점 평균 3.35이며, 건강함 44.3%, 보통 38.7%, 건강하지 않음 17.0%로 나타났다.

표 13 스스로 평가하는 신체 및 정신 건강상태

| 구분             | 5점 평균 | 5점 척도      |              |               |               |             | 합계             |
|----------------|-------|------------|--------------|---------------|---------------|-------------|----------------|
|                |       | 전혀 건강하지 않음 | 건강하지 않은 편    | 보통            | 건강한 편         | 매우 건강함      |                |
| 신체 건강상태 (빈도) % | 3.29  | (4)<br>1.3 | (50)<br>16.7 | (122)<br>40.7 | (104)<br>34.7 | (20)<br>6.7 | (300)<br>100.0 |
| 정신 건강상태 (빈도) % | 3.35  | (7)<br>2.3 | (44)<br>14.7 | (116)<br>38.7 | (104)<br>34.7 | (29)<br>9.7 | (300)<br>100.0 |

그림 4 스스로 평가하는 신체 및 정신 건강상태 단위: %



스스로 평가하는 신체 건강상태의 ‘건강함’ 비율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 47.2%, 여성 37.1%, 연령대별로는 청년층 44.0%, 노년층 41.9%, 중장년층 35.4%, 연령·성별로는 노년층 남성 54.2%, 청년층 남성 48.0%, 청년층 여성 41.0%, 중장년층 남성 38.5%, 중장년층 여성 33.9%, 노년층 여성 26.3%, 혼인상태별로는 기혼 45.5%, 비혼(미혼) 44.2%, 이혼 25.8%, 사별 16.7%로 나타났다.

표 14 응답자 특성별 - 스스로 평가하는 신체 건강상태

| 구분            |         | 5점 평균     | 5점 척도          |               |              |               |               | 합계          |                |
|---------------|---------|-----------|----------------|---------------|--------------|---------------|---------------|-------------|----------------|
|               |         |           | 전혀 건강<br>하지 않음 | 건강 하지<br>않은 편 | 보통           | 건강한 편         | 매우<br>건강함     |             |                |
| 전체            |         | (빈도)<br>% | 3.29           | (4)<br>1.3    | (50)<br>16.7 | (122)<br>40.7 | (104)<br>34.7 | (20)<br>6.7 | (300)<br>100.0 |
| 성별            | 남성      | (빈도)<br>% | 3.46           | (2)<br>1.6    | (9)<br>7.2   | (55)<br>44.0  | (48)<br>38.4  | (11)<br>8.8 | (125)<br>100.0 |
|               | 여성      | (빈도)<br>% | 3.17           | (2)<br>1.1    | (41)<br>23.4 | (67)<br>38.3  | (56)<br>32.0  | (9)<br>5.1  | (175)<br>100.0 |
| 연령대           | 청년층     | (빈도)<br>% | 3.31           | (2)<br>1.1    | (31)<br>17.7 | (65)<br>37.1  | (64)<br>36.6  | (13)<br>7.4 | (175)<br>100.0 |
|               | 중장년층    | (빈도)<br>% | 3.18           | (2)<br>2.4    | (15)<br>18.3 | (36)<br>43.9  | (24)<br>29.3  | (5)<br>6.1  | (82)<br>100.0  |
|               | 노년층     | (빈도)<br>% | 3.37           | -<br>-        | (4)<br>9.3   | (21)<br>48.8  | (16)<br>37.2  | (2)<br>4.7  | (43)<br>100.0  |
| 연령<br>·<br>성별 | 청년층 남성  | (빈도)<br>% | 3.48           | (1)<br>1.3    | (6)<br>8.0   | (32)<br>42.7  | (28)<br>37.3  | (8)<br>10.7 | (75)<br>100.0  |
|               | 청년층 여성  | (빈도)<br>% | 3.19           | (1)<br>1.0    | (25)<br>25.0 | (33)<br>33.0  | (36)<br>36.0  | (5)<br>5.0  | (100)<br>100.0 |
|               | 중장년층 남성 | (빈도)<br>% | 3.23           | (1)<br>3.8    | (3)<br>11.5  | (12)<br>46.2  | (9)<br>34.6   | (1)<br>3.8  | (26)<br>100.0  |
|               | 중장년층 여성 | (빈도)<br>% | 3.16           | (1)<br>1.8    | (12)<br>21.4 | (24)<br>42.9  | (15)<br>26.8  | (4)<br>7.1  | (56)<br>100.0  |
|               | 노년층 남성  | (빈도)<br>% | 3.63           | -<br>-        | -<br>-       | (11)<br>45.8  | (11)<br>45.8  | (2)<br>8.3  | (24)<br>100.0  |
|               | 노년층 여성  | (빈도)<br>% | 3.05           | -<br>-        | (4)<br>21.1  | (10)<br>52.6  | (5)<br>26.3   | -<br>-      | (19)<br>100.0  |
| 혼인<br>상태      | 기혼      | (빈도)<br>% | 3.36           | (1)<br>3.0    | (1)<br>3.0   | (16)<br>48.5  | (15)<br>45.5  | -<br>-      | (33)<br>100.0  |
|               | 비혼(미혼)  | (빈도)<br>% | 3.33           | (2)<br>0.9    | (37)<br>16.5 | (86)<br>38.4  | (82)<br>36.6  | (17)<br>7.6 | (224)<br>100.0 |
|               | 이혼      | (빈도)<br>% | 3.03           | (1)<br>3.2    | (8)<br>25.8  | (14)<br>45.2  | (5)<br>16.1   | (3)<br>9.7  | (31)<br>100.0  |
|               | 사별      | (빈도)<br>% | 2.83           | -<br>-        | (4)<br>33.3  | (6)<br>50.0   | (2)<br>16.7   | -<br>-      | (12)<br>100.0  |

스스로 평가하는 정신 건강상태의 ‘건강함’ 비율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 46.4%, 여성 42.9%, 연령대별로는 청년층 48.0%, 노년층 39.5%, 중장년층 39.0%, 연령·성별로는 청년층 남성 52.0%, 노년층 남성 45.8%, 청년층 여성 45.0%, 중장년층 여성 42.9%, 노년층 여성 31.6%, 중장년층 남성 30.8%, 혼인상태별로는 비혼(미혼) 47.8%, 이혼 35.5%, 기혼 33.3%, 사별 33.3%로 나타났다.



표 15 응답자 특성별 - 스스로 평가하는 정신 건강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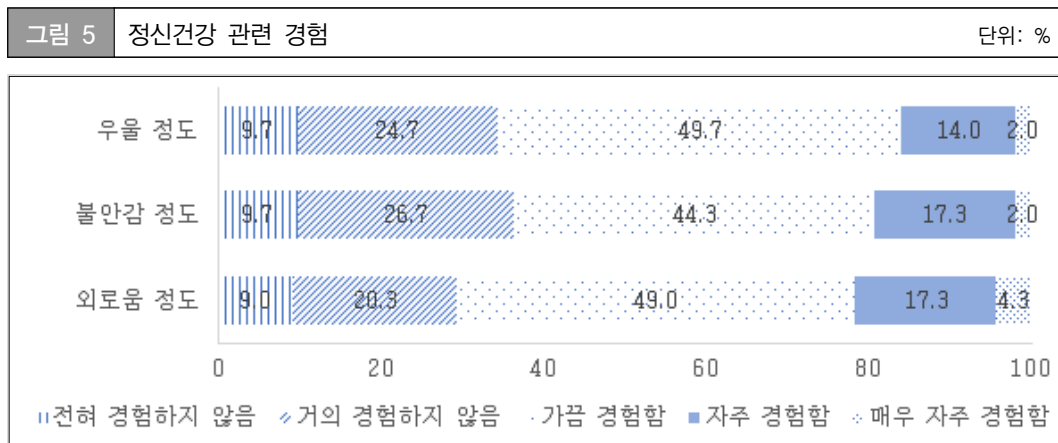
| 구분            |         | 5점 평균     | 5점 척도                |                     |              |               |               | 합계           |                |
|---------------|---------|-----------|----------------------|---------------------|--------------|---------------|---------------|--------------|----------------|
|               |         |           | 전혀<br>건강<br>하지<br>않음 | 건강<br>하지<br>않은<br>편 | 보통           | 건강한<br>편      | 매우<br>건강함     |              |                |
| 전체            |         | (빈도)<br>% | 3.35                 | (7)<br>2.3          | (44)<br>14.7 | (116)<br>38.7 | (104)<br>34.7 | (29)<br>9.7  | (300)<br>100.0 |
| 성별            | 남성      | (빈도)<br>% | 3.38                 | (3)<br>2.4          | (18)<br>14.4 | (46)<br>36.8  | (44)<br>35.2  | (14)<br>11.2 | (125)<br>100.0 |
|               | 여성      | (빈도)<br>% | 3.32                 | (4)<br>2.3          | (26)<br>14.9 | (70)<br>40.0  | (60)<br>34.3  | (15)<br>8.6  | (175)<br>100.0 |
| 연령대           | 청년층     | (빈도)<br>% | 3.39                 | (5)<br>2.9          | (24)<br>13.7 | (62)<br>35.4  | (65)<br>37.1  | (19)<br>10.9 | (175)<br>100.0 |
|               | 중장년층    | (빈도)<br>% | 3.30                 | (2)<br>2.4          | (11)<br>13.4 | (37)<br>45.1  | (24)<br>29.3  | (8)<br>9.8   | (82)<br>100.0  |
|               | 노년층     | (빈도)<br>% | 3.23                 | -<br>-              | (9)<br>20.9  | (17)<br>39.5  | (15)<br>34.9  | (2)<br>4.7   | (43)<br>100.0  |
| 연령<br>·<br>성별 | 청년층 남성  | (빈도)<br>% | 3.53                 | (2)<br>2.7          | (7)<br>9.3   | (27)<br>36.0  | (27)<br>36.0  | (12)<br>16.0 | (75)<br>100.0  |
|               | 청년층 여성  | (빈도)<br>% | 3.29                 | (3)<br>3.0          | (17)<br>17.0 | (35)<br>35.0  | (38)<br>38.0  | (7)<br>7.0   | (100)<br>100.0 |
|               | 중장년층 남성 | (빈도)<br>% | 3.12                 | (1)<br>3.8          | (4)<br>15.4  | (13)<br>50.0  | (7)<br>26.9   | (1)<br>3.8   | (26)<br>100.0  |
|               | 중장년층 여성 | (빈도)<br>% | 3.39                 | (1)<br>1.8          | (7)<br>12.5  | (24)<br>42.9  | (17)<br>30.4  | (7)<br>12.5  | (56)<br>100.0  |
|               | 노년층 남성  | (빈도)<br>% | 3.21                 | -<br>-              | (7)<br>29.2  | (6)<br>25.0   | (10)<br>41.7  | (1)<br>4.2   | (24)<br>100.0  |
|               | 노년층 여성  | (빈도)<br>% | 3.26                 | -<br>-              | (2)<br>10.5  | (11)<br>57.9  | (5)<br>26.3   | (1)<br>5.3   | (19)<br>100.0  |
| 혼인<br>상태      | 기혼      | (빈도)<br>% | 3.21                 | (1)<br>3.0          | (3)<br>9.1   | (18)<br>54.5  | (10)<br>30.3  | (1)<br>3.0   | (33)<br>100.0  |
|               | 비혼(미혼)  | (빈도)<br>% | 3.40                 | (5)<br>2.2          | (32)<br>14.3 | (80)<br>35.7  | (82)<br>36.6  | (25)<br>11.2 | (224)<br>100.0 |
|               | 이혼      | (빈도)<br>% | 3.16                 | (1)<br>3.2          | (7)<br>22.6  | (12)<br>38.7  | (8)<br>25.8   | (3)<br>9.7   | (31)<br>100.0  |
|               | 사별      | (빈도)<br>% | 3.17                 | -<br>-              | (2)<br>16.7  | (6)<br>50.0   | (4)<br>33.3   | -<br>-       | (12)<br>100.0  |

### 7) 정신건강 관련 경험

정신건강 관련 경험 정도를 경험함(가끔 경험함+자주 경험함+매우 자주 경험함), 경험하지 않음(거의 경험하지 않음+전혀 경험하지 않음)으로 보았을 때, ‘외로움 정도’ 70.7%, ‘우울 정도’ 65.7%, ‘불안감 정도’ 63.7%로 나타났다.

정신건강 관련 경험 정도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우울 정도’는 5점 평균 2.74이며, 경험함 65.7%, 경험하지 않음 34.3%, ‘불안감 정도’는 5점 평균 2.75이며, 경험함 63.7%, 경험하지 않음 36.3%, ‘외로움 정도’는 5점 평균 2.88이며, 경험함 70.7%, 경험하지 않음 29.3%로 나타났다.

| 구분     | 5점 평균     | 5점 척도      |             |              |               |              | 합계          |                |
|--------|-----------|------------|-------------|--------------|---------------|--------------|-------------|----------------|
|        |           | 전혀 경험하지 않음 | 거의 경험하지 않음  | 가끔 경험함       | 자주 경험함        | 매우 자주 경험함    |             |                |
| 우울 정도  | (빈도)<br>% | 2.74       | (29)<br>9.7 | (74)<br>24.7 | (149)<br>49.7 | (42)<br>14.0 | (6)<br>2.0  | (300)<br>100.0 |
| 불안감 정도 | (빈도)<br>% | 2.75       | (29)<br>9.7 | (80)<br>26.7 | (133)<br>44.3 | (52)<br>17.3 | (6)<br>2.0  | (300)<br>100.0 |
| 외로움 정도 | (빈도)<br>% | 2.88       | (27)<br>9.0 | (61)<br>20.3 | (147)<br>49.0 | (52)<br>17.3 | (13)<br>4.3 | (300)<br>100.0 |



‘우울 정도’ 경험 비율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 72.6%, 남성 56.0%, 연령대별로는 중장년층 73.2%, 청년층 64.6%, 노년층 55.8%, 연령·성별로는 중장년층 남

성 76.9%, 청년층 여성 76.0%, 중장년층 여성 71.4%, 노년층 여성 57.9%, 노년층 남성 54.2%, 청년층 남성 49.3%, 혼인상태별로는 사별 83.3%, 비혼(미혼) 68.3%, 이혼 61.3%, 기혼 45.5%로 나타났다.

| 구분            |         | 5점 평균     | 5점 척도          |                |              |               |              | 합계         |                |
|---------------|---------|-----------|----------------|----------------|--------------|---------------|--------------|------------|----------------|
|               |         |           | 전혀 경험<br>하지 않음 | 거의 경험<br>하지 않음 | 가끔<br>경험함    | 자주<br>경험함     | 매우 자주<br>경험함 |            |                |
| 전체            |         | (빈도)<br>% | 2.74           | (29)<br>9.7    | (74)<br>24.7 | (149)<br>49.7 | (42)<br>14.0 | (6)<br>2.0 | (300)<br>100.0 |
| 성별            | 남성      | (빈도)<br>% | 2.56           | (18)<br>14.4   | (37)<br>29.6 | (54)<br>43.2  | (14)<br>11.2 | (2)<br>1.6 | (125)<br>100.0 |
|               | 여성      | (빈도)<br>% | 2.87           | (11)<br>6.3    | (37)<br>21.1 | (95)<br>54.3  | (28)<br>16.0 | (4)<br>2.3 | (175)<br>100.0 |
| 연령대           | 청년층     | (빈도)<br>% | 2.70           | (22)<br>12.6   | (40)<br>22.9 | (84)<br>48.0  | (27)<br>15.4 | (2)<br>1.1 | (175)<br>100.0 |
|               | 중장년층    | (빈도)<br>% | 2.89           | (4)<br>4.9     | (18)<br>22.0 | (47)<br>57.3  | (9)<br>11.0  | (4)<br>4.9 | (82)<br>100.0  |
|               | 노년층     | (빈도)<br>% | 2.63           | (3)<br>7.0     | (16)<br>37.2 | (18)<br>41.9  | (6)<br>14.0  | -<br>-     | (43)<br>100.0  |
| 연령<br>·<br>성별 | 청년층 남성  | (빈도)<br>% | 2.36           | (15)<br>20.0   | (23)<br>30.7 | (32)<br>42.7  | (5)<br>6.7   | -<br>-     | (75)<br>100.0  |
|               | 청년층 여성  | (빈도)<br>% | 2.95           | (7)<br>7.0     | (17)<br>17.0 | (52)<br>52.0  | (22)<br>22.0 | (2)<br>2.0 | (100)<br>100.0 |
|               | 중장년층 남성 | (빈도)<br>% | 3.00           | (2)<br>7.7     | (4)<br>15.4  | (14)<br>53.8  | (4)<br>15.4  | (2)<br>7.7 | (26)<br>100.0  |
|               | 중장년층 여성 | (빈도)<br>% | 2.84           | (2)<br>3.6     | (14)<br>25.0 | (33)<br>58.9  | (5)<br>8.9   | (2)<br>3.6 | (56)<br>100.0  |
|               | 노년층 남성  | (빈도)<br>% | 2.71           | (1)<br>4.2     | (10)<br>41.7 | (8)<br>33.3   | (5)<br>20.8  | -<br>-     | (24)<br>100.0  |
|               | 노년층 여성  | (빈도)<br>% | 2.53           | (2)<br>10.5    | (6)<br>31.6  | (10)<br>52.6  | (1)<br>5.3   | -<br>-     | (19)<br>100.0  |
| 혼인<br>상태      | 기혼      | (빈도)<br>% | 2.45           | (4)<br>12.1    | (14)<br>42.4 | (11)<br>33.3  | (4)<br>12.1  | -<br>-     | (33)<br>100.0  |
|               | 비혼(미혼)  | (빈도)<br>% | 2.77           | (24)<br>10.7   | (47)<br>21.0 | (115)<br>51.3 | (33)<br>14.7 | (5)<br>2.2 | (224)<br>100.0 |
|               | 이혼      | (빈도)<br>% | 2.77           | (1)<br>3.2     | (11)<br>35.5 | (14)<br>45.2  | (4)<br>12.9  | (1)<br>3.2 | (31)<br>100.0  |
|               | 사별      | (빈도)<br>% | 2.92           | -<br>-         | (2)<br>16.7  | (9)<br>75.0   | (1)<br>8.3   | -<br>-     | (12)<br>100.0  |

‘불안감 정도’ 경험 비율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 67.4%, 남성 58.4%, 연령대별로는 중장년층 72.0%, 노년층 65.1%, 청년층 59.4%, 연령·성별로는 중장년층 여성 75.0%, 노년층 남성 66.7%, 중장년층 남성 65.4%, 청년층 여성 64.0%, 노년층 여성 63.2%, 청년층 남성 53.3%, 혼인상태별로는 사별 83.3%, 이혼 71.0%, 비혼(미혼) 62.1%, 기혼 60.6%로 나타났다.

| 구분        | 5점 평균     | 5점 척도                |                      |              |               |                 | 합계         |                |
|-----------|-----------|----------------------|----------------------|--------------|---------------|-----------------|------------|----------------|
|           |           | 전혀<br>경험<br>하지<br>않음 | 거의<br>경험<br>하지<br>않음 | 가끔<br>경험함    | 자주<br>경험함     | 매우<br>자주<br>경험함 |            |                |
| 전체        | (빈도)<br>% | 2.75                 | (29)<br>9.7          | (80)<br>26.7 | (133)<br>44.3 | (52)<br>17.3    | (6)<br>2.0 | (300)<br>100.0 |
| 성별        | 남성        | (빈도)<br>%            | (19)<br>15.2         | (33)<br>26.4 | (50)<br>40.0  | (21)<br>16.8    | (2)<br>1.6 | (125)<br>100.0 |
|           | 여성        | (빈도)<br>%            | (10)<br>5.7          | (47)<br>26.9 | (83)<br>47.4  | (31)<br>17.7    | (4)<br>2.3 | (175)<br>100.0 |
| 연령대       | 청년층       | (빈도)<br>%            | (19)<br>10.9         | (52)<br>29.7 | (72)<br>41.1  | (30)<br>17.1    | (2)<br>1.1 | (175)<br>100.0 |
|           | 중장년층      | (빈도)<br>%            | (3)<br>3.7           | (20)<br>24.4 | (43)<br>52.4  | (13)<br>15.9    | (3)<br>3.7 | (82)<br>100.0  |
|           | 노년층       | (빈도)<br>%            | (7)<br>16.3          | (8)<br>18.6  | (18)<br>41.9  | (9)<br>20.9     | (1)<br>2.3 | (43)<br>100.0  |
| 연령·<br>성별 | 청년층 남성    | (빈도)<br>%            | (13)<br>17.3         | (22)<br>29.3 | (31)<br>41.3  | (9)<br>12.0     | -          | (75)<br>100.0  |
|           | 청년층 여성    | (빈도)<br>%            | (6)<br>6.0           | (30)<br>30.0 | (41)<br>41.0  | (21)<br>21.0    | (2)<br>2.0 | (100)<br>100.0 |
|           | 중장년층 남성   | (빈도)<br>%            | (2)<br>7.7           | (7)<br>26.9  | (12)<br>46.2  | (4)<br>15.4     | (1)<br>3.8 | (26)<br>100.0  |
|           | 중장년층 여성   | (빈도)<br>%            | (1)<br>1.8           | (13)<br>23.2 | (31)<br>55.4  | (9)<br>16.1     | (2)<br>3.6 | (56)<br>100.0  |
|           | 노년층 남성    | (빈도)<br>%            | (4)<br>16.7          | (4)<br>16.7  | (7)<br>29.2   | (8)<br>33.3     | (1)<br>4.2 | (24)<br>100.0  |
|           | 노년층 여성    | (빈도)<br>%            | (3)<br>15.8          | (4)<br>21.1  | (11)<br>57.9  | (1)<br>5.3      | -          | (19)<br>100.0  |
| 혼인<br>상태  | 기혼        | (빈도)<br>%            | (6)<br>18.2          | (7)<br>21.2  | (12)<br>36.4  | (7)<br>21.2     | (1)<br>3.0 | (33)<br>100.0  |
|           | 비혼(미혼)    | (빈도)<br>%            | (21)<br>9.4          | (64)<br>28.6 | (98)<br>43.8  | (37)<br>16.5    | (4)<br>1.8 | (224)<br>100.0 |
|           | 이혼        | (빈도)<br>%            | (2)<br>6.5           | (7)<br>22.6  | (14)<br>45.2  | (7)<br>22.6     | (1)<br>3.2 | (31)<br>100.0  |
|           | 사별        | (빈도)<br>%            | -                    | (2)<br>16.7  | (9)<br>75.0   | (1)<br>8.3      | -          | (12)<br>100.0  |

‘외로움 정도’ 경험 비율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 70.9%, 남성 70.4%로 큰 차이가 없었다. 연령대별로는 중장년층 79.3%, 청년층 68.0%, 노년층 65.1%, 연령·성별로는 중장년층 남성 84.6%, 중장년층 여성 76.8%, 청년층 여성 69.0%, 청년층 남성 66.7%, 노년층 남성 66.7%, 노년층 여성 63.2%, 혼인상태별로는 사별 83.3%, 이혼 77.4%, 비혼(미혼) 69.6%, 기혼 66.7%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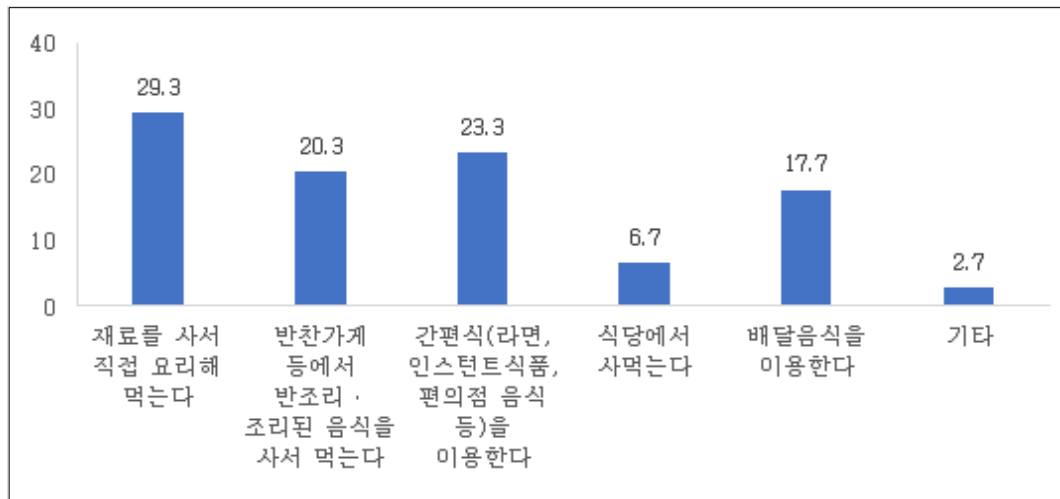
| 구분        |         | 5점 평균     | 5점 척도                |                      |              |               |                 | 합계          |                |
|-----------|---------|-----------|----------------------|----------------------|--------------|---------------|-----------------|-------------|----------------|
|           |         |           | 전혀<br>경험<br>하지<br>않음 | 거의<br>경험<br>하지<br>않음 | 가끔<br>경험함    | 자주<br>경험함     | 매우<br>자주<br>경험함 |             |                |
| 전체        |         | (빈도)<br>% | 2.88                 | (27)<br>9.0          | (61)<br>20.3 | (147)<br>49.0 | (52)<br>17.3    | (13)<br>4.3 | (300)<br>100.0 |
| 성별        | 남성      | (빈도)<br>% | 2.82                 | (14)<br>11.2         | (23)<br>18.4 | (65)<br>52.0  | (17)<br>13.6    | (6)<br>4.8  | (125)<br>100.0 |
|           | 여성      | (빈도)<br>% | 2.91                 | (13)<br>7.4          | (38)<br>21.7 | (82)<br>46.9  | (35)<br>20.0    | (7)<br>4.0  | (175)<br>100.0 |
| 연령대       | 청년층     | (빈도)<br>% | 2.80                 | (21)<br>12.0         | (35)<br>20.0 | (82)<br>46.9  | (32)<br>18.3    | (5)<br>2.9  | (175)<br>100.0 |
|           | 중장년층    | (빈도)<br>% | 3.07                 | (3)<br>3.7           | (14)<br>17.1 | (45)<br>54.9  | (14)<br>17.1    | (6)<br>7.3  | (82)<br>100.0  |
|           | 노년층     | (빈도)<br>% | 2.81                 | (3)<br>7.0           | (12)<br>27.9 | (20)<br>46.5  | (6)<br>14.0     | (2)<br>4.7  | (43)<br>100.0  |
| 연령·<br>성별 | 청년층 남성  | (빈도)<br>% | 2.64                 | (12)<br>16.0         | (13)<br>17.3 | (41)<br>54.7  | (8)<br>10.7     | (1)<br>1.3  | (75)<br>100.0  |
|           | 청년층 여성  | (빈도)<br>% | 2.92                 | (9)<br>9.0           | (22)<br>22.0 | (41)<br>41.0  | (24)<br>24.0    | (4)<br>4.0  | (100)<br>100.0 |
|           | 중장년층 남성 | (빈도)<br>% | 3.23                 | (1)<br>3.8           | (3)<br>11.5  | (15)<br>57.7  | (3)<br>11.5     | (4)<br>15.4 | (26)<br>100.0  |
|           | 중장년층 여성 | (빈도)<br>% | 3.00                 | (2)<br>3.6           | (11)<br>19.6 | (30)<br>53.6  | (11)<br>19.6    | (2)<br>3.6  | (56)<br>100.0  |
|           | 노년층 남성  | (빈도)<br>% | 2.96                 | (1)<br>4.2           | (7)<br>29.2  | (9)<br>37.5   | (6)<br>25.0     | (1)<br>4.2  | (24)<br>100.0  |
|           | 노년층 여성  | (빈도)<br>% | 2.63                 | (2)<br>10.5          | (5)<br>26.3  | (11)<br>57.9  | -               | (1)<br>5.3  | (19)<br>100.0  |
| 혼인<br>상태  | 기혼      | (빈도)<br>% | 2.79                 | (3)<br>9.1           | (8)<br>24.2  | (16)<br>48.5  | (5)<br>15.2     | (1)<br>3.0  | (33)<br>100.0  |
|           | 비혼(미혼)  | (빈도)<br>% | 2.84                 | (22)<br>9.8          | (46)<br>20.5 | (110)<br>49.1 | (37)<br>16.5    | (9)<br>4.0  | (224)<br>100.0 |
|           | 이혼      | (빈도)<br>% | 3.10                 | (2)<br>6.5           | (5)<br>16.1  | (14)<br>45.2  | (8)<br>25.8     | (2)<br>6.5  | (31)<br>100.0  |
|           | 사별      | (빈도)<br>% | 3.17                 | -                    | (2)<br>16.7  | (7)<br>58.3   | (2)<br>16.7     | (1)<br>8.3  | (12)<br>100.0  |

### 8) 혼자 식사하는 주된 방법

혼자 식사하는 주된 방법은 ‘재료를 사서 직접 요리해 먹는다’가 29.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간편식(라면, 인스턴트식품, 편의점 음식 등)을 이용한다’ 23.3%, ‘반찬가게 등에서 반조리·조리된 음식을 사서 먹는다’ 20.3%, ‘배달음식을 이용한다’ 17.7% 순으로 나타났다.

| 구분                              | 빈도  | %     |
|---------------------------------|-----|-------|
| 재료를 사서 직접 요리해 먹는다               | 88  | 29.3  |
| 반찬가게 등에서 반조리·조리된 음식을 사서 먹는다     | 61  | 20.3  |
| 간편식(라면, 인스턴트식품, 편의점 음식 등)을 이용한다 | 70  | 23.3  |
| 식당에서 사먹는다                       | 20  | 6.7   |
| 배달음식을 이용한다                      | 53  | 17.7  |
| 기타                              | 8   | 2.7   |
| 합계                              | 300 | 100.0 |

그림 6 혼자 식사하는 주된 방법 단위: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반찬가게 등에서 반조리·조리된 음식을 사서 먹는다’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고, ‘재료를 사서 직접 요리해 먹는다’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노년층 여성은 68.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배달음식을 이용한다’는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은 ‘간편식(라면, 인스턴트식품, 편의점 음식 등)을 이용한다(26.4%)’, ‘반찬가게 등에서 반조리·조리된 음식을 사서 먹는다(24.8%)’, 여성은 ‘재료를 사서 직접 요리해 먹는다(34.9%)’, ‘간편식(라면, 인스턴트식품, 편의점 음식 등)을 이용한다(21.1%)’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청년층은 ‘재료를 사서 직접 요리해 먹는다(25.1%)’, ‘간편식(라면, 인스턴트식품, 편의점 음식 등)을 이용한다(24.6%)’, 중장년층은 ‘재료를 사서 직접 요리해 먹는다(34.1%)’, ‘반찬가게 등에서 반조리·조리된 음식을 사서 먹는다’, ‘간편식(라면, 인스턴트식품, 편의점 음식 등)을 이용한다’(각 22.0%), 노년층은 ‘재료를 사서 직접 요리해 먹는다(37.2%)’, ‘반찬가게 등에서 반조리·조리된 음식을 사서 먹는다(30.2%)’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성별로는 청년층 남성은 ‘간편식(라면, 인스턴트식품, 편의점 음식 등)을 이용한다(28.0%)’, 청년층 여성은 ‘배달음식을 이용한다(28.0%)’, 중장년층 남성은 ‘배달음식을 이용한다(26.9%)’, 중장년층 여성은 ‘재료를 사서 직접 요리해 먹는다(39.3%)’, 노년층 남성은 ‘반찬가게 등에서 반조리·조리된 음식을 사서 먹는다(45.8%)’, 노년층 여성은 ‘재료를 사서 직접 요리해 먹는다(68.4%)’로 나타났다.

**표 21** 응답자 특성별 - 혼자 식사하는 주된 방법

| 구분        |         | 재료 사서<br>직접 요리해<br>먹는다 | 반찬가게<br>등에서<br>반조리·<br>조리된 음식<br>사서 먹는다 | 간편식<br>(라면,<br>인스턴트식품,<br>편의점 음식<br>등)을 이용한다 | 식당에서<br>사먹는다 | 배달<br>음식을<br>이용한다 | 기타           | 합계         |                |
|-----------|---------|------------------------|---|--|--------------|-------------------|--------------|------------|----------------|
| 전체        |         | (빈도)<br>%              | (88)<br>29.3                            | (61)<br>20.3                                 | (70)<br>23.3 | (20)<br>6.7       | (53)<br>17.7 | (8)<br>2.7 | (300)<br>100.0 |
| 성별        | 남성      | (빈도)<br>%              | (27)<br>21.6                            | (31)<br>24.8                                 | (33)<br>26.4 | (11)<br>8.8       | (21)<br>16.8 | (2)<br>1.6 | (125)<br>100.0 |
|           | 여성      | (빈도)<br>%              | (61)<br>34.9                            | (30)<br>17.1                                 | (37)<br>21.1 | (9)<br>5.1        | (32)<br>18.3 | (6)<br>3.4 | (175)<br>100.0 |
| 연령대       | 청년층     | (빈도)<br>%              | (44)<br>25.1                            | (30)<br>17.1                                 | (43)<br>24.6 | (11)<br>6.3       | (41)<br>23.4 | (6)<br>3.4 | (175)<br>100.0 |
|           | 중장년층    | (빈도)<br>%              | (28)<br>34.1                            | (18)<br>22.0                                 | (18)<br>22.0 | (6)<br>7.3        | (11)<br>13.4 | (1)<br>1.2 | (82)<br>100.0  |
|           | 노년층     | (빈도)<br>%              | (16)<br>37.2                            | (13)<br>30.2                                 | (9)<br>20.9  | (3)<br>7.0        | (1)<br>2.3   | (1)<br>2.3 | (43)<br>100.0  |
| 연령·<br>성별 | 청년층 남성  | (빈도)<br>%              | (18)<br>24.0                            | (16)<br>21.3                                 | (21)<br>28.0 | (6)<br>8.0        | (13)<br>17.3 | (1)<br>1.3 | (75)<br>100.0  |
|           | 청년층 여성  | (빈도)<br>%              | (26)<br>26.0                            | (14)<br>14.0                                 | (22)<br>22.0 | (5)<br>5.0        | (28)<br>28.0 | (5)<br>5.0 | (100)<br>100.0 |
|           | 중장년층 남성 | (빈도)<br>%              | (6)<br>23.1                             | (4)<br>15.4                                  | (4)<br>15.4  | (4)<br>15.4       | (7)<br>26.9  | (1)<br>3.8 | (26)<br>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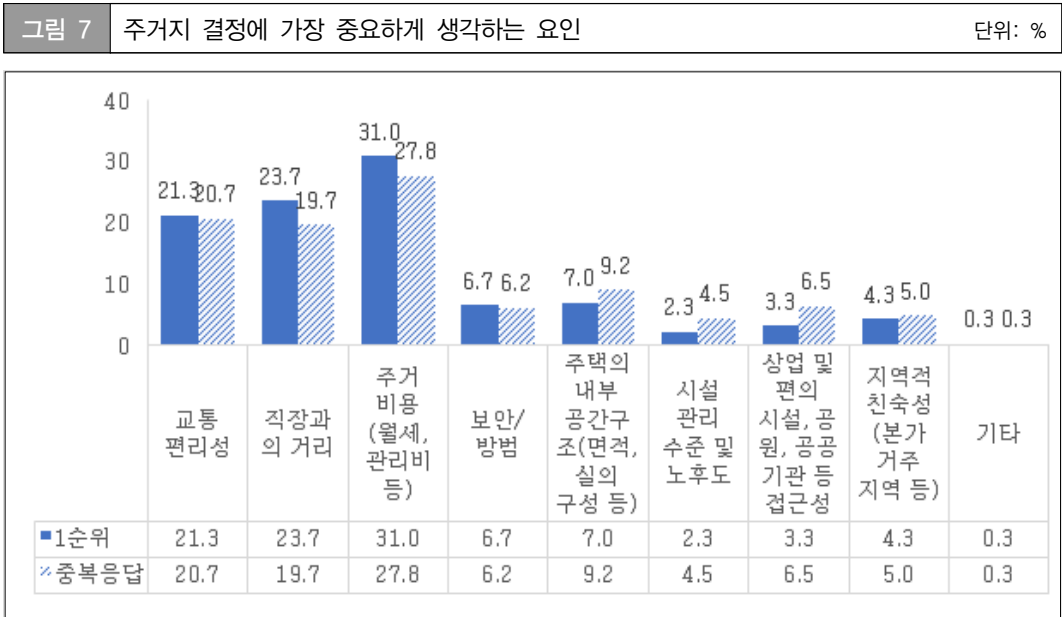
| 구분      |        | 재료를 사서 직접 요리해 먹는다 | 반찬가게 등에서 반조리·조리된 음식을 사서 먹는다 | 간편식 (라면, 인스턴트식품, 편의점 음식 등)을 이용한다 | 식당에서 사먹는다 | 배달 음식을 이용한다 | 기타    | 합계    |       |
|---------|--------|-------------------|-----------------------------|----------------------------------|-----------|-------------|-------|-------|-------|
| 중장년층 여성 | (빈도)   | (22)              | (14)                        | (14)                             | (2)       | (4)         | -     | (56)  |       |
|         | %      | 39.3              | 25.0                        | 25.0                             | 3.6       | 7.1         | -     | 100.0 |       |
|         | (빈도)   | (3)               | (11)                        | (8)                              | (1)       | (1)         | -     | (24)  |       |
| 노년층 남성  | %      | 12.5              | 45.8                        | 33.3                             | 4.2       | 4.2         | -     | 100.0 |       |
| 노년층 여성  | (빈도)   | (13)              | (2)                         | (1)                              | (2)       | -           | (1)   | (19)  |       |
|         | %      | 68.4              | 10.5                        | 5.3                              | 10.5      | -           | 5.3   | 100.0 |       |
|         | (빈도)   | (8)               | (12)                        | (8)                              | (2)       | (3)         | -     | (33)  |       |
| 혼인 상태   | 기혼     | %                 | 24.2                        | 36.4                             | 24.2      | 6.1         | 9.1   | -     | 100.0 |
|         | 비혼(미혼) | (빈도)              | (63)                        | (38)                             | (55)      | (14)        | (47)  | (7)   | (224) |
|         | %      | 28.1              | 17.0                        | 24.6                             | 6.3       | 21.0        | 3.1   | 100.0 |       |
|         | 이혼     | (빈도)              | (9)                         | (9)                              | (7)       | (3)         | (3)   | -     | (31)  |
| %       | 29.0   | 29.0              | 22.6                        | 9.7                              | 9.7       | -           | 100.0 |       |       |
| 사별      | (빈도)   | (8)               | (2)                         | -                                | (1)       | -           | (1)   | (12)  |       |
| %       | 66.7   | 16.7              | -                           | 8.3                              | -         | 8.3         | 100.0 |       |       |

### 9) 주거지 결정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

주거지 결정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 1순위 응답은 ‘주거비용(월세, 관리비 등)’이 31.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직장과의 거리’ 23.7%, ‘교통 편리성’ 21.3%, ‘주택의 내부 공간구조(면적, 실의 구성 등)’ 7.0% 순으로 나타났다.

| 구분                         | 1순위 |       | 2순위 |       | 중복응답 합계 |       |
|----------------------------|-----|-------|-----|-------|---------|-------|
|                            | 빈도  | %     | 빈도  | %     | 빈도      | %     |
| 교통 편리성                     | 64  | 21.3  | 60  | 20.1  | 124     | 20.7  |
| 직장과의 거리                    | 71  | 23.7  | 47  | 15.8  | 118     | 19.7  |
| 주거비용(월세, 관리비 등)            | 93  | 31.0  | 73  | 24.5  | 166     | 27.8  |
| 보안/방법                      | 20  | 6.7   | 17  | 5.7   | 37      | 6.2   |
| 주택의 내부 공간구조(면적, 실의 구성 등)   | 21  | 7.0   | 34  | 11.4  | 55      | 9.2   |
| 시설관리수준 및 노후도               | 7   | 2.3   | 20  | 6.7   | 27      | 4.5   |
| 상업 및 편의시설, 공원, 공공기관 등의 접근성 | 10  | 3.3   | 29  | 9.7   | 39      | 6.5   |
| 지역적 친숙성(본가 거주 지역 등)        | 13  | 4.3   | 17  | 5.7   | 30      | 5.0   |
| 기타                         | 1   | 0.3   | 1   | 0.3   | 2       | 0.3   |
| 합계                         | 300 | 100.0 | 298 | 100.0 | 598     | 100.0 |





1순위 응답 결과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여성에 비해 ‘교통 편리성’이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직장과의 거리’와 ‘주거비용(월세, 관리비 등)’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은 ‘주거비용(월세, 관리비 등)(32.0%)’, ‘교통 편리성(25.6%)’, ‘직장과의 거리(24.8%)’, 여성은 ‘주거비용(월세, 관리비 등)(30.3%)’, ‘직장과의 거리(22.9%)’, ‘교통 편리성(18.3%)’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청년층과 중장년층은 ‘주거비용(월세, 관리비 등)’, 직장과의 거리, 교통 편리성 순으로 높고, 노년층은 ‘교통 편리성(23.3%)’, ‘보안/방법(20.9%)’, ‘주거비용(월세, 관리비 등)(14.0%)’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성별로는 청년층과 중장년층은 성별에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교통 편의성’은 남성이 여성보다, ‘직장과의 거리’는 여성이 남성보다 응답이 높았다. 노년층 남성은 ‘보안/방법(25.0%)’, ‘직장과의 거리(20.8%)’, 노년층 여성은 ‘교통 편리성(36.8%)’, ‘보안/방법’, ‘주택의 내부 공간구조(면적, 실의 구성 등)’, ‘지역적 친숙성(본가 거주 지역 등)’(각 15.8%) 순으로 나타났다.

**표 23** 응답자 특성별 - 주거지 결정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 (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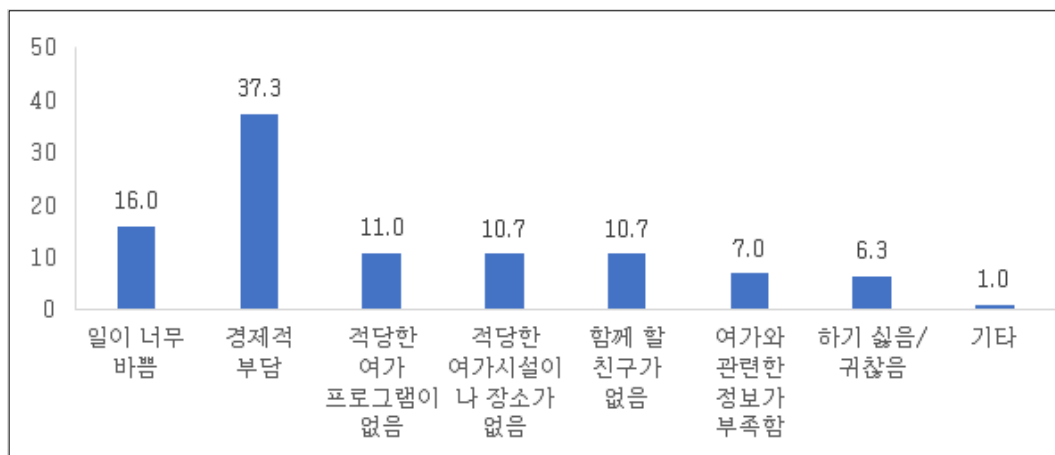
| 구분            |         | 교통<br>편리성 | 직장과의<br>거리   | 주거비용<br>(월세,<br>관리비<br>등) | 보안/<br>방법    | 주택의<br>내부<br>공간구조<br>(면적,<br>실의<br>구성 등) | 시설관리<br>수준 및<br>노후도 | 상업 및<br>편의시설,<br>공원,<br>공공기관<br>등의<br>접근성 | 지역적<br>친숙성<br>(본가<br>거주<br>지역 등) | 기타          | 합계         |                |
|---------------|---------|-----------|--------------|---------------------------|--------------|--|---------------------|---|----------------------------------|-------------|------------|----------------|
| 전체            |         | (빈도)<br>% | (64)<br>21.3 | (71)<br>23.7              | (93)<br>31.0 | (20)<br>6.7                              | (21)<br>7.0         | (7)<br>2.3                                | (10)<br>3.3                      | (13)<br>4.3 | (1)<br>0.3 | (300)<br>100.0 |
| 성별            | 남성      | (빈도)<br>% | (32)<br>25.6 | (31)<br>24.8              | (40)<br>32.0 | (6)<br>4.8                               | (5)<br>4.0          | (3)<br>2.4                                | (5)<br>4.0                       | (3)<br>2.4  | -<br>-     | (125)<br>100.0 |
|               | 여성      | (빈도)<br>% | (32)<br>18.3 | (40)<br>22.9              | (53)<br>30.3 | (14)<br>8.0                              | (16)<br>9.1         | (4)<br>2.3                                | (5)<br>2.9                       | (10)<br>5.7 | (1)<br>0.6 | (175)<br>100.0 |
| 연령대           | 청년층     | (빈도)<br>% | (38)<br>21.7 | (48)<br>27.4              | (64)<br>36.6 | (5)<br>2.9                               | (12)<br>6.9         | (2)<br>1.1                                | (3)<br>1.7                       | (3)<br>1.7  | -<br>-     | (175)<br>100.0 |
|               | 중장년층    | (빈도)<br>% | (16)<br>19.5 | (18)<br>22.0              | (23)<br>28.0 | (6)<br>7.3                               | (4)<br>4.9          | (4)<br>4.9                                | (3)<br>3.7                       | (7)<br>8.5  | (1)<br>1.2 | (82)<br>100.0  |
|               | 노년층     | (빈도)<br>% | (10)<br>23.3 | (5)<br>11.6               | (6)<br>14.0  | (9)<br>20.9                              | (5)<br>11.6         | (1)<br>2.3                                | (4)<br>9.3                       | (3)<br>7.0  | -<br>-     | (43)<br>100.0  |
| 연령<br>·<br>성별 | 청년층 남성  | (빈도)<br>% | (22)<br>29.3 | (20)<br>26.7              | (27)<br>36.0 | -<br>-                                   | (2)<br>2.7          | (1)<br>1.3                                | (2)<br>2.7                       | (1)<br>1.3  | -<br>-     | (75)<br>100.0  |
|               | 청년층 여성  | (빈도)<br>% | (16)<br>16.0 | (28)<br>28.0              | (37)<br>37.0 | (5)<br>5.0                               | (10)<br>10.0        | (1)<br>1.0                                | (1)<br>1.0                       | (2)<br>2.0  | -<br>-     | (100)<br>100.0 |
|               | 중장년층 남성 | (빈도)<br>% | (7)<br>26.9  | (6)<br>23.1               | (9)<br>34.6  | -<br>-                                   | (1)<br>3.8          | (1)<br>3.8                                | -<br>-                           | (2)<br>7.7  | -<br>-     | (26)<br>100.0  |
|               | 중장년층 여성 | (빈도)<br>% | (9)<br>16.1  | (12)<br>21.4              | (14)<br>25.0 | (6)<br>10.7                              | (3)<br>5.4          | (3)<br>5.4                                | (3)<br>5.4                       | (5)<br>8.9  | (1)<br>1.8 | (56)<br>100.0  |
|               | 노년층 남성  | (빈도)<br>% | (3)<br>12.5  | (5)<br>20.8               | (4)<br>16.7  | (6)<br>25.0                              | (2)<br>8.3          | (1)<br>4.2                                | (3)<br>12.5                      | -<br>-      | -<br>-     | (24)<br>100.0  |
|               | 노년층 여성  | (빈도)<br>% | (7)<br>36.8  | -<br>-                    | (2)<br>10.5  | (3)<br>15.8                              | (3)<br>15.8         | -<br>-                                    | (1)<br>5.3                       | (3)<br>15.8 | -<br>-     | (19)<br>100.0  |
| 혼인<br>상태      | 기혼      | (빈도)<br>% | (9)<br>27.3  | (7)<br>21.2               | (4)<br>12.1  | (4)<br>12.1                              | (3)<br>9.1          | (2)<br>6.1                                | (2)<br>6.1                       | (2)<br>6.1  | -<br>-     | (33)<br>100.0  |
|               | 비혼(미혼)  | (빈도)<br>% | (45)<br>20.1 | (61)<br>27.2              | (79)<br>35.3 | (10)<br>4.5                              | (15)<br>6.7         | (4)<br>1.8                                | (4)<br>1.8                       | (5)<br>2.2  | (1)<br>0.4 | (224)<br>100.0 |
|               | 이혼      | (빈도)<br>% | (7)<br>22.6  | (2)<br>6.5                | (8)<br>25.8  | (4)<br>12.9                              | (2)<br>6.5          | (1)<br>3.2                                | (3)<br>9.7                       | (4)<br>12.9 | -<br>-     | (31)<br>100.0  |
|               | 사별      | (빈도)<br>% | (3)<br>25.0  | (1)<br>8.3                | (2)<br>16.7  | (2)<br>16.7                              | (1)<br>8.3          | -<br>-                                    | (1)<br>8.3                       | (2)<br>16.7 | -<br>-     | (12)<br>100.0  |

### 10) 여가활동을 하는데 있어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

여가활동을 하는데 있어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부담’이 37.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일이 너무 바쁨’ 16.0%, ‘적당한 여가프로그램이 없음’ 11.0%, ‘적당한 여가시설이나 장소가 없음’, ‘함께 할 친구가 없음’ 각 10.7% 순으로 나타났다.

| 구분                | 빈도  | %     |
|-------------------|-----|-------|
| 일이 너무 바쁨          | 48  | 16.0  |
| 경제적 부담            | 112 | 37.3  |
| 적당한 여가프로그램이 없음    | 33  | 11.0  |
| 적당한 여가시설이나 장소가 없음 | 32  | 10.7  |
| 함께 할 친구가 없음       | 32  | 10.7  |
| 여가와 관련한 정보가 부족함   | 21  | 7.0   |
| 하기 싫음/귀찮음         | 19  | 6.3   |
| 기타                | 3   | 1.0   |
| 합계                | 300 | 100.0 |

그림 8 여가활동을 하는데 있어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 단위: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일이 너무 바쁨’과 ‘경제적 부담’이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적당한 여가프로그램이 없음’과 ‘적당한 여가시설이나 장소가 없음’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은 ‘경제적 부담(35.2%)’, ‘일이 너무 바쁨(15.2%)’, ‘적당한 여가프로그램

이 없음’, ‘적당한 여가시설이나 장소가 없음’(각 12.8%), 여성은 ‘경제적 부담(38.9%)’, ‘일이 너무 바쁨(16.6%)’, ‘함께 할 친구가 없음(10.9%)’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청년층은 ‘경제적 부담(40.6%)’, ‘일이 너무 바쁨(20.6%)’, 중장년층은 ‘경제적 부담(36.6%)’, ‘일이 너무 바쁨’, ‘함께 할 친구가 없음’(각 13.4%), 노년층은 ‘경제적 부담(25.6%)’, ‘적당한 여가프로그램이 없음(23.3%)’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성별로는 청년층과 중장년층은 성별에 차이가 크지 않았다. 노년층 남성은 ‘적당한 여가프로그램이 없음’, ‘적당한 여가시설이나 장소가 없음’(각 29.2%), ‘하기 싫음/귀찮음(20.8%)’, 노년층 여성은 ‘경제적 부담(42.1%)’, ‘적당한 여가프로그램이 없음’, ‘여가와 관련한 정보가 부족함’(각 15.8%) 순으로 나타났다.

표 25 응답자 특성별 - 여가활동을 하는데 있어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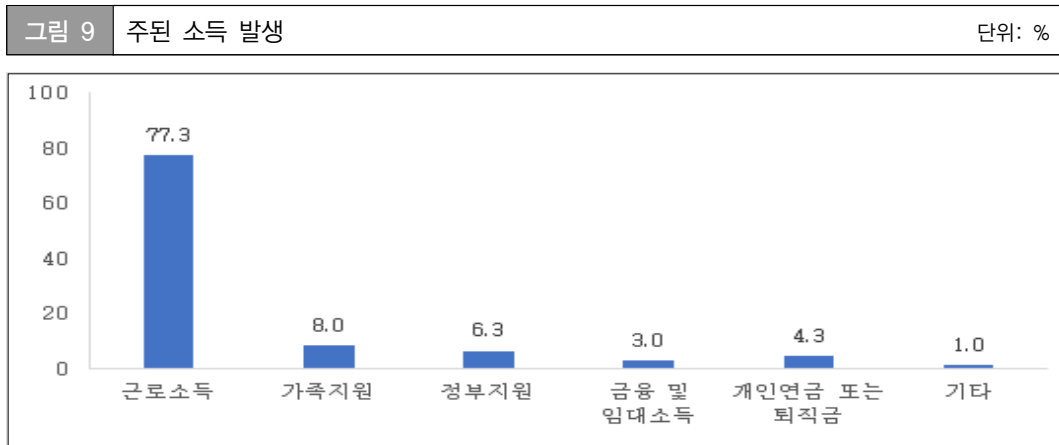
| 구분    |         | 일이 너무 바쁨  | 경제적 부담       | 적당한 여가프로그램이 없음 | 적당한 여가시설이나 장소가 없음 | 함께 할 친구가 없음  | 여가와 관련한 정보가 부족함 | 하기 싫음/귀찮음   | 기타          | 합계         |                |
|-------|---------|-----------|--------------|----------------|-------------------|--------------|-----------------|-------------|-------------|------------|----------------|
| 전체    |         | (빈도)<br>% | (48)<br>16.0 | (112)<br>37.3  | (33)<br>11.0      | (32)<br>10.7 | (32)<br>10.7    | (21)<br>7.0 | (19)<br>6.3 | (3)<br>1.0 | (300)<br>100.0 |
| 성별    | 남성      | (빈도)<br>% | (19)<br>15.2 | (44)<br>35.2   | (16)<br>12.8      | (16)<br>12.8 | (13)<br>10.4    | (5)<br>4.0  | (10)<br>8.0 | (2)<br>1.6 | (125)<br>100.0 |
|       | 여성      | (빈도)<br>% | (29)<br>16.6 | (68)<br>38.9   | (17)<br>9.7       | (16)<br>9.1  | (19)<br>10.9    | (16)<br>9.1 | (9)<br>5.1  | (1)<br>0.6 | (175)<br>100.0 |
| 연령대   | 청년층     | (빈도)<br>% | (36)<br>20.6 | (71)<br>40.6   | (13)<br>7.4       | (14)<br>8.0  | (18)<br>10.3    | (12)<br>6.9 | (10)<br>5.7 | (1)<br>0.6 | (175)<br>100.0 |
|       | 중장년층    | (빈도)<br>% | (11)<br>13.4 | (30)<br>36.6   | (10)<br>12.2      | (10)<br>12.2 | (11)<br>13.4    | (5)<br>6.1  | (3)<br>3.7  | (2)<br>2.4 | (82)<br>100.0  |
|       | 노년층     | (빈도)<br>% | (1)<br>2.3   | (11)<br>25.6   | (10)<br>23.3      | (8)<br>18.6  | (3)<br>7.0      | (4)<br>9.3  | (6)<br>14.0 | -          | (43)<br>100.0  |
| 연령·성별 | 청년층 남성  | (빈도)<br>% | (15)<br>20.0 | (33)<br>44.0   | (6)<br>8.0        | (6)<br>8.0   | (8)<br>10.7     | (3)<br>4.0  | (3)<br>4.0  | (1)<br>1.3 | (75)<br>100.0  |
|       | 청년층 여성  | (빈도)<br>% | (21)<br>21.0 | (38)<br>38.0   | (7)<br>7.0        | (8)<br>8.0   | (10)<br>10.0    | (9)<br>9.0  | (7)<br>7.0  | -          | (100)<br>100.0 |
|       | 중장년층 남성 | (빈도)<br>% | (4)<br>15.4  | (8)<br>30.8    | (3)<br>11.5       | (3)<br>11.5  | (4)<br>15.4     | (1)<br>3.8  | (2)<br>7.7  | (1)<br>3.8 | (26)<br>100.0  |
|       | 중장년층 여성 | (빈도)<br>% | (7)<br>12.5  | (22)<br>39.3   | (7)<br>12.5       | (7)<br>12.5  | (7)<br>12.5     | (4)<br>7.1  | (1)<br>1.8  | (1)<br>1.8 | (56)<br>100.0  |
|       | 노년층 남성  | (빈도)<br>% | -            | (3)<br>12.5    | (7)<br>29.2       | (7)<br>29.2  | (1)<br>4.2      | (1)<br>4.2  | (5)<br>20.8 | -          | (24)<br>100.0  |
|       | 노년층 여성  | (빈도)<br>% | (1)<br>5.3   | (8)<br>42.1    | (3)<br>15.8       | (1)<br>5.3   | (2)<br>10.5     | (3)<br>15.8 | (1)<br>5.3  | -          | (19)<br>100.0  |

| 구분    |        | 일이 너무 바쁨  | 경제적 부담       | 적당한 여가프로그램이 없음 | 적당한 여가시설이나 장소가 없음 | 함께 할 친구가 없음  | 여가와 관련한 정보가 부족함 | 하기 싫음/귀찮음   | 기타          | 합계         |                |
|-------|--------|-----------|--------------|----------------|-------------------|--------------|-----------------|-------------|-------------|------------|----------------|
| 혼인 상태 | 기혼     | (빈도)<br>% | (5)<br>15.2  | (8)<br>24.2    | (8)<br>24.2       | (5)<br>15.2  | (3)<br>9.1      | (2)<br>6.1  | (2)<br>6.1  | -<br>-     | (33)<br>100.0  |
|       | 비혼(미혼) | (빈도)<br>% | (43)<br>19.2 | (83)<br>37.1   | (21)<br>9.4       | (25)<br>11.2 | (23)<br>10.3    | (15)<br>6.7 | (12)<br>5.4 | (2)<br>0.9 | (224)<br>100.0 |
|       | 이혼     | (빈도)<br>% | -<br>-       | (16)<br>51.6   | (4)<br>12.9       | (1)<br>3.2   | (3)<br>9.7      | (3)<br>9.7  | (3)<br>9.7  | (1)<br>3.2 | (31)<br>100.0  |
|       | 사별     | (빈도)<br>% | -<br>-       | (5)<br>41.7    | -<br>-            | (1)<br>8.3   | (3)<br>25.0     | (1)<br>8.3  | (2)<br>16.7 | -<br>-     | (12)<br>100.0  |

### 11) 주된 소득 발생

주된 소득 발생은 ‘근로소득’이 77.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가족지원’ 8.0%, ‘정부지원’ 6.3%, ‘개인연금 또는 퇴직금’ 4.3% 순으로 나타났다.

| 구분          | 빈도  | %     |
|-------------|-----|-------|
| 근로소득        | 232 | 77.3  |
| 가족지원        | 24  | 8.0   |
| 정부지원        | 19  | 6.3   |
| 금융 및 임대소득   | 9   | 3.0   |
| 개인연금 또는 퇴직금 | 13  | 4.3   |
| 기타          | 3   | 1.0   |
| 합계          | 300 | 100.0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청년층과 중장년층은 ‘근로소득’에 집중된 반면, 노년층은 다양한 경로로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72.0%), 여성(81.1%) 모두 근로소득이 높게 나타났고, 연령대별로는 청년층은 ‘근로소득(85.7%)’, ‘가족지원(7.4%)’, 중장년층은 ‘근로소득(85.4%)’, ‘정부지원(4.9%)’, 노년층은 ‘근로소득(27.9%)’, ‘개인연금 또는 퇴직금(20.9%)’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성별로는 청년층은 성별에 차이 없이 ‘근로소득’, ‘가족지원’ 순으로 높고, 중장년층 남성은 ‘근로소득(80.8%)’, ‘정부지원(7.7%)’, 중장년층 여성은 ‘근로소득(87.5%)’, ‘가족지원’, ‘정부지원’, ‘개인연금 또는 퇴직금’(각 3.6%), 노년층 남성은 ‘근로소득(33.3%)’, ‘금융 및 임대소득(25.0%)’, 노년층 여성은 ‘개인연금 또는 퇴직금(31.6%)’, ‘가족지원’, ‘정부지원’, ‘근로소득’(각 21.1%) 순으로 나타났다.

| 구분    |         | 근로소득      | 가족지원          | 정부지원        | 금융 및 임대소득   | 개인연금 또는 퇴직금 | 기타          | 합계         |                |
|-------|---------|-----------|---------------|-------------|-------------|-------------|-------------|------------|----------------|
| 전체    |         | (빈도)<br>% | (232)<br>77.3 | (24)<br>8.0 | (19)<br>6.3 | (9)<br>3.0  | (13)<br>4.3 | (3)<br>1.0 | (300)<br>100.0 |
| 성별    | 남성      | (빈도)<br>% | (90)<br>72.0  | (12)<br>9.6 | (10)<br>8.0 | (8)<br>6.4  | (4)<br>3.2  | (1)<br>0.8 | (125)<br>100.0 |
|       | 여성      | (빈도)<br>% | (142)<br>81.1 | (12)<br>6.9 | (9)<br>5.1  | (1)<br>0.6  | (9)<br>5.1  | (2)<br>1.1 | (175)<br>100.0 |
| 연령대   | 청년층     | (빈도)<br>% | (150)<br>85.7 | (13)<br>7.4 | (8)<br>4.6  | (2)<br>1.1  | (1)<br>0.6  | (1)<br>0.6 | (175)<br>100.0 |
|       | 중장년층    | (빈도)<br>% | (70)<br>85.4  | (3)<br>3.7  | (4)<br>4.9  | -           | (3)<br>3.7  | (2)<br>2.4 | (82)<br>100.0  |
|       | 노년층     | (빈도)<br>% | (12)<br>27.9  | (8)<br>18.6 | (7)<br>16.3 | (7)<br>16.3 | (9)<br>20.9 | -          | (43)<br>100.0  |
| 연령·성별 | 청년층 남성  | (빈도)<br>% | (61)<br>81.3  | (7)<br>9.3  | (5)<br>6.7  | (2)<br>2.7  | -           | -          | (75)<br>100.0  |
|       | 청년층 여성  | (빈도)<br>% | (89)<br>89.0  | (6)<br>6.0  | (3)<br>3.0  | -           | (1)<br>1.0  | (1)<br>1.0 | (100)<br>100.0 |
|       | 중장년층 남성 | (빈도)<br>% | (21)<br>80.8  | (1)<br>3.8  | (2)<br>7.7  | -           | (1)<br>3.8  | (1)<br>3.8 | (26)<br>100.0  |
|       | 중장년층 여성 | (빈도)<br>% | (49)<br>87.5  | (2)<br>3.6  | (2)<br>3.6  | -           | (2)<br>3.6  | (1)<br>1.8 | (56)<br>100.0  |
|       | 노년층 남성  | (빈도)<br>% | (8)<br>33.3   | (4)<br>16.7 | (3)<br>12.5 | (6)<br>25.0 | (3)<br>12.5 | -          | (24)<br>100.0  |
|       | 노년층 여성  | (빈도)<br>% | (4)<br>21.1   | (4)<br>21.1 | (4)<br>21.1 | (1)<br>5.3  | (6)<br>31.6 | -          | (19)<br>100.0  |
| 혼인    | 기혼      | (빈도)      | (16)          | (5)         | (2)         | (6)         | (4)         | -          | (33)           |

| 구분 |        |      | 근로소득  | 가족지원 | 정부지원 | 금융 및 임대소득 | 개인연금 또는 퇴직금 | 기타  | 합계    |
|----|--------|------|-------|------|------|-----------|-------------|-----|-------|
| 상태 |        | %    | 48.5  | 15.2 | 6.1  | 18.2      | 12.1        | -   | 100.0 |
|    | 비혼(미혼) | (빈도) | (191) | (13) | (12) | (2)       | (3)         | (3) | (224) |
|    |        | %    | 85.3  | 5.8  | 5.4  | 0.9       | 1.3         | 1.3 | 100.0 |
|    | 이혼     | (빈도) | (21)  | (4)  | (2)  | (1)       | (3)         | -   | (31)  |
|    |        | %    | 67.7  | 12.9 | 6.5  | 3.2       | 9.7         | -   | 100.0 |
|    | 사별     | (빈도) | (4)   | (2)  | (3)  | -         | (3)         | -   | (12)  |
|    |        | %    | 33.3  | 16.7 | 25.0 | -         | 25.0        | -   |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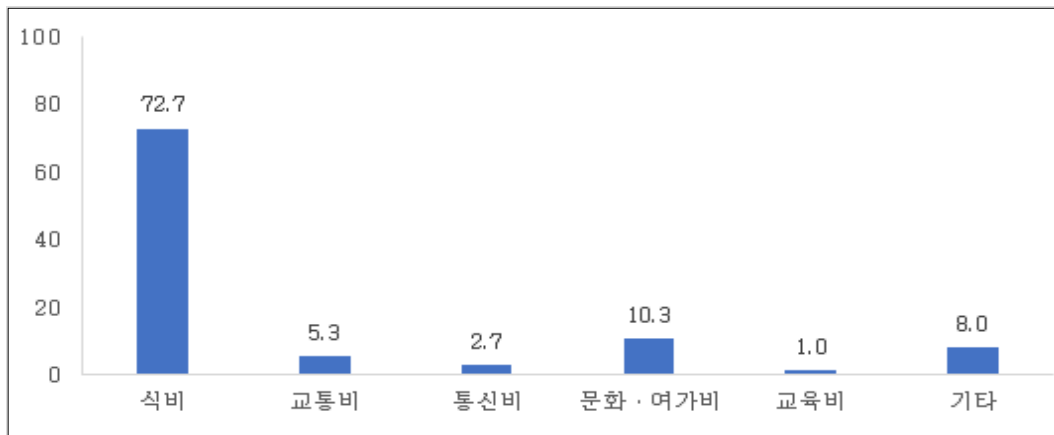
12) 월평균 지출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월평균 지출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식비’가 72.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문화·여가비’ 10.3%, ‘기타’ 8.0%, ‘교통비’ 5.3% 순으로 나타났다.

표 28 월평균 지출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 구분     | 빈도  | %     |
|--------|-----|-------|
| 식비     | 218 | 72.7  |
| 교통비    | 16  | 5.3   |
| 통신비    | 8   | 2.7   |
| 문화·여가비 | 31  | 10.3  |
| 교육비    | 3   | 1.0   |
| 기타     | 24  | 8.0   |
| 합계     | 300 | 100.0 |

그림 10 월평균 지출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단위: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청년층과 중장년층은 ‘식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반면, 노년층은 상대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은 ‘식비(72.8%)’, ‘문화·여가비(11.2%)’, 여성은 ‘식비(72.6%)’, ‘기타(12.0%)’, 연령대별로는 청년층은 ‘식비(79.4%)’, ‘문화·여가비’, ‘기타’(각 6.9%), 중장년층은 ‘식비(74.4%)’, ‘기타(11.0%)’, 노년층은 ‘식비(41.9%)’, ‘문화·여가비(25.6%)’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성별로는 청년층 남성은 ‘식비(82.7%)’, ‘교통비(8.0%)’, 청년층 여성은 ‘식비(77.0%)’, ‘기타(10.0%)’, 중장년층 남성은 ‘식비(76.9%)’, ‘문화·여가비(19.2%)’, 중장년층 여성은 ‘식비(73.2%)’, ‘기타(14.3%)’, 노년층 남성은 ‘식비(37.5%)’, ‘통신비’, ‘문화·여가비’(각 25.0%), 노년층 여성은 ‘식비(47.4%)’, ‘문화·여가비(26.3%)’ 순으로 나타났다.

**표 29** 응답자 특성별 - 월평균 지출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 구분    |         | 식비        | 교통비           | 통신비         | 문화·여가비      | 교육비          | 기타         | 합계           |                |
|-------|---------|-----------|---------------|-------------|-------------|--------------|------------|--------------|----------------|
| 전체    |         | (빈도)<br>% | (218)<br>72.7 | (16)<br>5.3 | (8)<br>2.7  | (31)<br>10.3 | (3)<br>1.0 | (24)<br>8.0  | (300)<br>100.0 |
| 성별    | 남성      | (빈도)<br>% | (91)<br>72.8  | (9)<br>7.2  | (7)<br>5.6  | (14)<br>11.2 | (1)<br>0.8 | (3)<br>2.4   | (125)<br>100.0 |
|       | 여성      | (빈도)<br>% | (127)<br>72.6 | (7)<br>4.0  | (1)<br>0.6  | (17)<br>9.7  | (2)<br>1.1 | (21)<br>12.0 | (175)<br>100.0 |
| 연령대   | 청년층     | (빈도)<br>% | (139)<br>79.4 | (8)<br>4.6  | (1)<br>0.6  | (12)<br>6.9  | (3)<br>1.7 | (12)<br>6.9  | (175)<br>100.0 |
|       | 중장년층    | (빈도)<br>% | (61)<br>74.4  | (3)<br>3.7  | (1)<br>1.2  | (8)<br>9.8   | -          | (9)<br>11.0  | (82)<br>100.0  |
|       | 노년층     | (빈도)<br>% | (18)<br>41.9  | (5)<br>11.6 | (6)<br>14.0 | (11)<br>25.6 | -          | (3)<br>7.0   | (43)<br>100.0  |
| 연령·성별 | 청년층 남성  | (빈도)<br>% | (62)<br>82.7  | (6)<br>8.0  | (1)<br>1.3  | (3)<br>4.0   | (1)<br>1.3 | (2)<br>2.7   | (75)<br>100.0  |
|       | 청년층 여성  | (빈도)<br>% | (77)<br>77.0  | (2)<br>2.0  | -           | (9)<br>9.0   | (2)<br>2.0 | (10)<br>10.0 | (100)<br>100.0 |
|       | 중장년층 남성 | (빈도)<br>% | (20)<br>76.9  | -           | -           | (5)<br>19.2  | -          | (1)<br>3.8   | (26)<br>100.0  |
|       | 중장년층 여성 | (빈도)<br>% | (41)<br>73.2  | (3)<br>5.4  | (1)<br>1.8  | (3)<br>5.4   | -          | (8)<br>14.3  | (56)<br>100.0  |
|       | 노년층 남성  | (빈도)<br>% | (9)<br>37.5   | (3)<br>12.5 | (6)<br>25.0 | (6)<br>25.0  | -          | -            | (24)<br>100.0  |
|       | 노년층 여성  | (빈도)<br>% | (9)<br>47.4   | (2)<br>10.5 | -           | (5)<br>26.3  | -          | (3)<br>15.8  | (19)<br>100.0  |



| 구분    |        | 식비        | 교통비           | 통신비         | 문화·여가비     | 교육비         | 기타         | 합계            |                |
|-------|--------|-----------|---------------|-------------|------------|-------------|------------|---------------|----------------|
| 혼인 상태 | 기혼     | (빈도)<br>% | (19)<br>57.6  | (4)<br>12.1 | (3)<br>9.1 | (7)<br>21.2 | -<br>-     | (33)<br>100.0 |                |
|       | 비혼(미혼) | (빈도)<br>% | (170)<br>75.9 | (10)<br>4.5 | (5)<br>2.2 | (19)<br>8.5 | (3)<br>1.3 | (17)<br>7.6   | (224)<br>100.0 |
|       | 이혼     | (빈도)<br>% | (23)<br>74.2  | (1)<br>3.2  | -<br>-     | (3)<br>9.7  | -<br>-     | (4)<br>12.9   | (31)<br>100.0  |
|       | 사별     | (빈도)<br>% | (6)<br>50.0   | (1)<br>8.3  | -<br>-     | (2)<br>16.7 | -<br>-     | (3)<br>25.0   | (12)<br>100.0  |

### 13) 부채(대출) 여부

부채(대출) 여부는 ‘부채 있음’ 52.0%, ‘부채 없음’ 48.0%로 나타났다.

| 구분    | 빈도  | %     |
|-------|-----|-------|
| 부채 있음 | 156 | 52.0  |
| 부채 없음 | 144 | 48.0  |
| 합계    | 300 | 100.0 |

부채(대출) 여부에서 ‘부채 있음’ 응답비율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 57.7%, 남성 44.0%로 여성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청년층 58.3%, 중장년층 57.3%, 노년층 16.3%로 노년층이 타 연령대에 비해 부채가 있는 응답자가 적게 나타났다. 연령·성별로는 중장년층 남성 69.2%, 청년층 여성 67.0%, 중장년층 여성 51.8%, 청년층 남성 46.7%, 노년층 여성 26.3%, 노년층 남성 8.3%로 나타났다.

| 구분  |      | 부채 있음     | 부채 없음         | 합계            |                |
|-----|------|-----------|---------------|---------------|----------------|
| 전체  |      | (빈도)<br>% | (156)<br>52.0 | (144)<br>48.0 | (300)<br>100.0 |
| 성별  | 남성   | (빈도)<br>% | (55)<br>44.0  | (70)<br>56.0  | (125)<br>100.0 |
|     | 여성   | (빈도)<br>% | (101)<br>57.7 | (74)<br>42.3  | (175)<br>100.0 |
| 연령대 | 청년층  | (빈도)<br>% | (102)<br>58.3 | (73)<br>41.7  | (175)<br>100.0 |
|     | 중장년층 | (빈도)<br>% | (47)<br>57.3  | (35)<br>42.7  | (82)<br>100.0  |
|     | 노년층  | (빈도)<br>% | (7)<br>16.3   | (36)<br>83.7  | (43)<br>100.0  |

| 구분            |         | 부채 있음        | 부채 없음        | 합계             |
|---------------|---------|--------------|--------------|----------------|
| 연령<br>·<br>성별 | 청년층 남성  | (빈도)<br>46.7 | (40)<br>53.3 | (75)<br>100.0  |
|               | 청년층 여성  | (빈도)<br>67.0 | (33)<br>33.0 | (100)<br>100.0 |
|               | 중장년층 남성 | (빈도)<br>69.2 | (8)<br>30.8  | (26)<br>100.0  |
|               | 중장년층 여성 | (빈도)<br>51.8 | (27)<br>48.2 | (56)<br>100.0  |
|               | 노년층 남성  | (빈도)<br>8.3  | (22)<br>91.7 | (24)<br>100.0  |
|               | 노년층 여성  | (빈도)<br>26.3 | (14)<br>73.7 | (19)<br>100.0  |
| 혼인<br>상태      | 기혼      | (빈도)<br>30.3 | (23)<br>69.7 | (33)<br>100.0  |
|               | 비혼(미혼)  | (빈도)<br>56.7 | (97)<br>43.3 | (224)<br>100.0 |
|               | 이혼      | (빈도)<br>51.6 | (15)<br>48.4 | (31)<br>100.0  |
|               | 사별      | (빈도)<br>25.0 | (9)<br>75.0  | (12)<br>100.0  |

(1) 부채(대출)의 사용 용도

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156명의 부채(대출)의 사용 용도는 주거비(전·월세 보증금, 거주주택 마련 등)가 높게 나타났고 세부적인 사용 용도는 아래와 같이 응답되었다.

| 표 32 부채(대출)의 사용 용도              |        |
|---------------------------------|--------|
| 구분                              | 중복응답 수 |
| 주거비(거주주택 마련, 전·월세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 118    |
| 생활비(식비 등)                       | 23     |
| 교육비(학자금 대출 등)                   | 17     |
| 자동차 구입                          | 7      |
| 사업비(사업채 마련 등)                   | 3      |
| 투자비(주식 등)                       | 3      |
| 여가비                             | 1      |
| 의료비                             | 1      |
| 기타                              | 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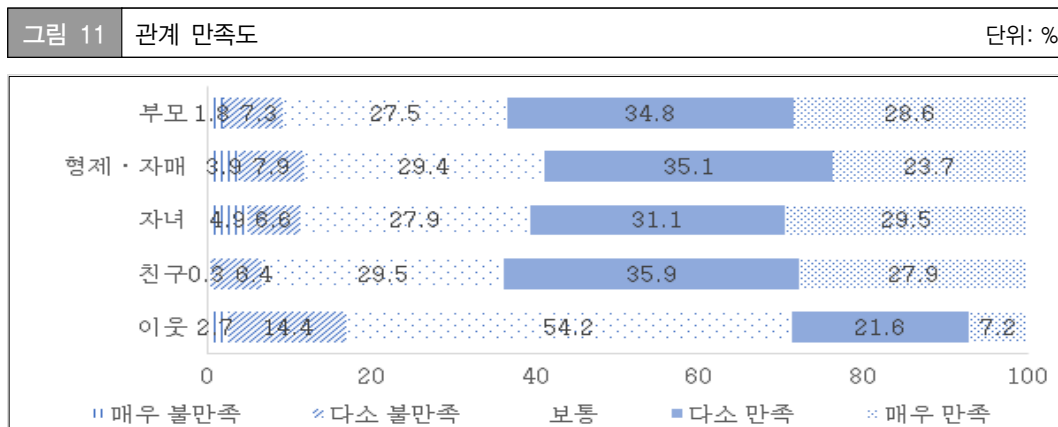
### 4. 사회적 관계망

#### 1) 관계 만족도

가족, 친구, 이웃관계 만족도를 만족(다소 만족+매우 만족), 보통, 불만족(다소 불만족+매우 불만족)으로 보았을 때, 만족도는 ‘친구’ 63.8%, ‘부모’ 63.4%, ‘자녀’ 60.7%, ‘형제·자매’ 58.8%, ‘이웃’ 28.8%로 나타났다.

가족, 친구, 이웃관계 만족도를 관계별로 살펴보면, ‘부모’는 평균 3.81이며, 만족 63.4%, 보통 27.5%, 불만족 9.2%, ‘형제·자매’는 평균 3.67이며, 만족 58.8%, 보통 29.4%, 불만족 11.8%, ‘자녀’는 평균 3.74이며, 만족 60.7%, 보통 27.9%, 불만족 11.5%, ‘친구’는 평균 3.85이며, 만족 63.8%, 보통 29.5%, 불만족 6.7%, ‘이웃’은 평균 3.16이며, 만족 28.8%, 보통 54.2%, 불만족 17.0%로 나타났다.

| 구분    | 5점 평균 | 5점 척도       |              |               |               |              | 합계             |
|-------|-------|-------------|--------------|---------------|---------------|--------------|----------------|
|       |       | 매우 불만족      | 다소 불만족       | 보통            | 다소 만족         | 매우 만족        |                |
| 부모    | 3.81  | (5)<br>1.8  | (20)<br>7.3  | (75)<br>27.5  | (95)<br>34.8  | (78)<br>28.6 | (273)<br>100.0 |
| 형제·자매 | 3.67  | (11)<br>3.9 | (22)<br>7.9  | (82)<br>29.4  | (98)<br>35.1  | (66)<br>23.7 | (279)<br>100.0 |
| 자녀    | 3.74  | (3)<br>4.9  | (4)<br>6.6   | (17)<br>27.9  | (19)<br>31.1  | (18)<br>29.5 | (61)<br>100.0  |
| 친구    | 3.85  | (1)<br>0.3  | (19)<br>6.4  | (88)<br>29.5  | (107)<br>35.9 | (83)<br>27.9 | (298)<br>100.0 |
| 이웃    | 3.16  | (7)<br>2.7  | (38)<br>14.4 | (143)<br>54.2 | (57)<br>21.6  | (19)<br>7.2  | (264)<br>100.0 |



‘부모’ 만족 비율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 63.6%, 여성 63.2%, 연령대별로는 청년층 67.6%, 노년층 58.6%, 중장년층 54.9%, 연령·성별로는 노년층 남성 70.0%, 청년층 여성 67.7%, 청년층 남성 67.6%, 중장년층 여성 59.6%, 중장년층 남성 45.8%, 노년층 여성 33.3%, 혼인상태별로는 기혼 67.9%, 비혼(미혼) 65.6%, 이혼 40.9%, 사별 40.0%로 나타났다.

| 구분    |         | 5점 평균     | 5점 척도     |            |             |              |              | 합계           |                |
|-------|---------|-----------|-----------|------------|-------------|--------------|--------------|--------------|----------------|
|       |         |           | 매우 불만족    | 다소 불만족     | 보통          | 다소 만족        | 매우 만족        |              |                |
| 전체    |         | (빈도)<br>% | 3.81      | (5)<br>1.8 | (20)<br>7.3 | (75)<br>27.5 | (95)<br>34.8 | (78)<br>28.6 | (273)<br>100.0 |
| 성별    | 남성      | (빈도)<br>% | 3.88      | (1)<br>0.8 | (7)<br>5.9  | (35)<br>29.7 | (37)<br>31.4 | (38)<br>32.2 | (118)<br>100.0 |
|       | 여성      | (빈도)<br>% | 3.75      | (4)<br>2.6 | (13)<br>8.4 | (40)<br>25.8 | (58)<br>37.4 | (40)<br>25.8 | (155)<br>100.0 |
| 연령대   | 청년층     | (빈도)<br>% | 3.88      | (3)<br>1.7 | (13)<br>7.5 | (40)<br>23.1 | (63)<br>36.4 | (54)<br>31.2 | (173)<br>100.0 |
|       | 중장년층    | (빈도)<br>% | 3.61      | (2)<br>2.8 | (6)<br>8.5  | (24)<br>33.8 | (25)<br>35.2 | (14)<br>19.7 | (71)<br>100.0  |
|       | 노년층     | (빈도)<br>% | 3.90      | -<br>-     | (1)<br>3.4  | (11)<br>37.9 | (7)<br>24.1  | (10)<br>34.5 | (29)<br>100.0  |
| 연령·성별 | 청년층 남성  | (빈도)<br>% | 3.91      | (1)<br>1.4 | (4)<br>5.4  | (19)<br>25.7 | (27)<br>36.5 | (23)<br>31.1 | (74)<br>100.0  |
|       | 청년층 여성  | (빈도)<br>% | 3.86      | (2)<br>2.0 | (9)<br>9.1  | (21)<br>21.2 | (36)<br>36.4 | (31)<br>31.3 | (99)<br>100.0  |
|       | 중장년층 남성 | (빈도)<br>% | 3.63      | -<br>-     | (3)<br>12.5 | (10)<br>41.7 | (4)<br>16.7  | (7)<br>29.2  | (24)<br>100.0  |
|       | 중장년층 여성 | (빈도)<br>% | 3.60      | (2)<br>4.3 | (3)<br>6.4  | (14)<br>29.8 | (21)<br>44.7 | (7)<br>14.9  | (47)<br>100.0  |
|       | 노년층 남성  | (빈도)<br>% | 4.10      | -<br>-     | -<br>-      | (6)<br>30.0  | (6)<br>30.0  | (8)<br>40.0  | (20)<br>100.0  |
|       | 노년층 여성  | (빈도)<br>% | 3.44      | -<br>-     | (1)<br>11.1 | (5)<br>55.6  | (1)<br>11.1  | (2)<br>22.2  | (9)<br>100.0   |
|       | 혼인 상태   | 기혼        | (빈도)<br>% | 3.96       | -<br>-      | (1)<br>3.6   | (8)<br>28.6  | (10)<br>35.7 | (9)<br>32.1    |
|       | 비혼(미혼)  | (빈도)<br>% | 3.85      | (4)<br>1.8 | (14)<br>6.4 | (57)<br>26.1 | (78)<br>35.8 | (65)<br>29.8 | (218)<br>100.0 |
|       | 이혼      | (빈도)<br>% | 3.23      | (1)<br>4.5 | (5)<br>22.7 | (7)<br>31.8  | (6)<br>27.3  | (3)<br>13.6  | (22)<br>100.0  |
|       | 사별      | (빈도)<br>% | 3.60      | -<br>-     | -<br>-      | (3)<br>60.0  | (1)<br>20.0  | (1)<br>20.0  | (5)<br>100.0   |

‘형제·자매’ 만족 비율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 61.7%, 여성 56.7%, 연령대별로는 노년층 74.4%, 청년층 60.4%, 중장년층 46.8%, 연령·성별로는 노년층 남성 91.7%, 청년층 여성 61.5%, 청년층 남성 58.8%, 노년층 여성 52.6%, 중장년층 여성 50.0%, 중장년층 남성 39.1%, 혼인상태별로는 기혼 78.8%, 비혼(미혼) 58.7%, 이혼 42.9%, 사별 41.7%로 나타났다.

| 구분    |         | 5점 평균     | 5점 척도  |             |              |              |              | 합계           |                |
|-------|---------|-----------|--------|-------------|--------------|--------------|--------------|--------------|----------------|
|       |         |           | 매우 불만족 | 다소 불만족      | 보통           | 다소 만족        | 매우 만족        |              |                |
| 전체    |         | (빈도)<br>% | 3.67   | (11)<br>3.9 | (22)<br>7.9  | (82)<br>29.4 | (98)<br>35.1 | (66)<br>23.7 | (279)<br>100.0 |
| 성별    | 남성      | (빈도)<br>% | 3.77   | (2)<br>1.7  | (5)<br>4.3   | (37)<br>32.2 | (44)<br>38.3 | (27)<br>23.5 | (115)<br>100.0 |
|       | 여성      | (빈도)<br>% | 3.59   | (9)<br>5.5  | (17)<br>10.4 | (45)<br>27.4 | (54)<br>32.9 | (39)<br>23.8 | (164)<br>100.0 |
| 연령대   | 청년층     | (빈도)<br>% | 3.74   | (5)<br>3.1  | (13)<br>8.2  | (45)<br>28.3 | (52)<br>32.7 | (44)<br>27.7 | (159)<br>100.0 |
|       | 중장년층    | (빈도)<br>% | 3.36   | (6)<br>7.8  | (8)<br>10.4  | (27)<br>35.1 | (24)<br>31.2 | (12)<br>15.6 | (77)<br>100.0  |
|       | 노년층     | (빈도)<br>% | 3.95   | -<br>-      | (1)<br>2.3   | (10)<br>23.3 | (22)<br>51.2 | (10)<br>23.3 | (43)<br>100.0  |
| 연령·성별 | 청년층 남성  | (빈도)<br>% | 3.76   | (1)<br>1.5  | (4)<br>5.9   | (23)<br>33.8 | (22)<br>32.4 | (18)<br>26.5 | (68)<br>100.0  |
|       | 청년층 여성  | (빈도)<br>% | 3.71   | (4)<br>4.4  | (9)<br>9.9   | (22)<br>24.2 | (30)<br>33.0 | (26)<br>28.6 | (91)<br>100.0  |
|       | 중장년층 남성 | (빈도)<br>% | 3.35   | (1)<br>4.3  | (1)<br>4.3   | (12)<br>52.2 | (7)<br>30.4  | (2)<br>8.7   | (23)<br>100.0  |
|       | 중장년층 여성 | (빈도)<br>% | 3.37   | (5)<br>9.3  | (7)<br>13.0  | (15)<br>27.8 | (17)<br>31.5 | (10)<br>18.5 | (54)<br>100.0  |
|       | 노년층 남성  | (빈도)<br>% | 4.21   | -<br>-      | -<br>-       | (2)<br>8.3   | (15)<br>62.5 | (7)<br>29.2  | (24)<br>100.0  |
|       | 노년층 여성  | (빈도)<br>% | 3.63   | -<br>-      | (1)<br>5.3   | (8)<br>42.1  | (7)<br>36.8  | (3)<br>15.8  | (19)<br>100.0  |
| 혼인 상태 | 기혼      | (빈도)<br>% | 4.06   | -<br>-      | -<br>-       | (7)<br>21.2  | (17)<br>51.5 | (9)<br>27.3  | (33)<br>100.0  |
|       | 비혼(미혼)  | (빈도)<br>% | 3.70   | (6)<br>2.9  | (17)<br>8.3  | (62)<br>30.1 | (69)<br>33.5 | (52)<br>25.2 | (206)<br>100.0 |
|       | 이혼      | (빈도)<br>% | 3.04   | (5)<br>17.9 | (4)<br>14.3  | (7)<br>25.0  | (9)<br>32.1  | (3)<br>10.7  | (28)<br>100.0  |
|       | 사별      | (빈도)<br>% | 3.50   | -<br>-      | (1)<br>8.3   | (6)<br>50.0  | (3)<br>25.0  | (2)<br>16.7  | (12)<br>100.0  |

‘자녀’ 만족 비율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 62.5%, 여성 59.5%, 연령대별로는 노년층 67.9%, 중장년층 58.3%, 청년층 44.4%, 연령·성별로는 노년층 남성 75.0%, 노년층 여성 62.5%, 중장년층 여성 60.0%, 중장년층 남성 50.0%, 청년층 남성 50.0%, 청년층 여성 0.0%, 혼인상태별로는 비혼(미혼) 100.0%, 기혼 77.3%, 이혼 50.0%, 사별 50.0%로 나타났다.

| 구분    |         | 5점 평균     | 5점 척도     |             |              |              |              | 합계           |               |
|-------|---------|-----------|-----------|-------------|--------------|--------------|--------------|--------------|---------------|
|       |         |           | 매우 불만족    | 다소 불만족      | 보통           | 다소 만족        | 매우 만족        |              |               |
| 전체    |         | (빈도)<br>% | 3.74      | (3)<br>4.9  | (4)<br>6.6   | (17)<br>27.9 | (19)<br>31.1 | (18)<br>29.5 | (61)<br>100.0 |
| 성별    | 남성      | (빈도)<br>% | 3.79      | (2)<br>8.3  | -<br>-       | (7)<br>29.2  | (7)<br>29.2  | (8)<br>33.3  | (24)<br>100.0 |
|       | 여성      | (빈도)<br>% | 3.70      | (1)<br>2.7  | (4)<br>10.8  | (10)<br>27.0 | (12)<br>32.4 | (10)<br>27.0 | (37)<br>100.0 |
| 연령대   | 청년층     | (빈도)<br>% | 3.44      | (1)<br>11.1 | (1)<br>11.1  | (3)<br>33.3  | (1)<br>11.1  | (3)<br>33.3  | (9)<br>100.0  |
|       | 중장년층    | (빈도)<br>% | 3.67      | (2)<br>8.3  | (3)<br>12.5  | (5)<br>20.8  | (5)<br>20.8  | (9)<br>37.5  | (24)<br>100.0 |
|       | 노년층     | (빈도)<br>% | 3.89      | -<br>-      | -<br>-       | (9)<br>32.1  | (13)<br>46.4 | (6)<br>21.4  | (28)<br>100.0 |
| 연령·성별 | 청년층 남성  | (빈도)<br>% | 3.63      | (1)<br>12.5 | -<br>-       | (3)<br>37.5  | (1)<br>12.5  | (3)<br>37.5  | (8)<br>100.0  |
|       | 청년층 여성  | (빈도)<br>% | 2.00      | -<br>-      | (1)<br>100.0 | -<br>-       | -<br>-       | -<br>-       | (1)<br>100.0  |
|       | 중장년층 남성 | (빈도)<br>% | 3.25      | (1)<br>25.0 | -<br>-       | (1)<br>25.0  | (1)<br>25.0  | (1)<br>25.0  | (4)<br>100.0  |
|       | 중장년층 여성 | (빈도)<br>% | 3.75      | (1)<br>5.0  | (3)<br>15.0  | (4)<br>20.0  | (4)<br>20.0  | (8)<br>40.0  | (20)<br>100.0 |
|       | 노년층 남성  | (빈도)<br>% | 4.08      | -<br>-      | -<br>-       | (3)<br>25.0  | (5)<br>41.7  | (4)<br>33.3  | (12)<br>100.0 |
|       | 노년층 여성  | (빈도)<br>% | 3.75      | -<br>-      | -<br>-       | (6)<br>37.5  | (8)<br>50.0  | (2)<br>12.5  | (16)<br>100.0 |
|       | 혼인상태    | 기혼        | (빈도)<br>% | 4.00        | -<br>-       | -<br>-       | (5)<br>22.7  | (12)<br>54.5 | (5)<br>22.7   |
|       | 비혼(미혼)  | (빈도)<br>% | 4.00      | -<br>-      | -<br>-       | -<br>-       | (1)<br>100.0 | -<br>-       | (1)<br>100.0  |
|       | 이혼      | (빈도)<br>% | 3.54      | (2)<br>7.7  | (4)<br>15.4  | (7)<br>26.9  | (4)<br>15.4  | (9)<br>34.6  | (26)<br>100.0 |
|       | 사별      | (빈도)<br>% | 3.67      | (1)<br>8.3  | -<br>-       | (5)<br>41.7  | (2)<br>16.7  | (4)<br>33.3  | (12)<br>100.0 |

‘친구’ 만족 비율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 65.9%, 남성 60.8%, 연령 대별로는 청년층 67.2%, 노년층 64.3%, 중장년층 56.1%, 연령·성별로는 노년층 남성 70.8%, 청년층 여성 68.7%, 청년층 남성 65.3%, 중장년층 여성 64.3%, 노년층 여성 55.6%, 중장년층 남성 38.5%, 혼인상태별로는 기혼 65.6%, 비혼(미혼) 65.5%, 이혼 54.8%, 사별 50.0%로 나타났다.

| 구분    |         | 5점 평균     | 5점 척도     |            |             |              |               | 합계           |                |
|-------|---------|-----------|-----------|------------|-------------|--------------|---------------|--------------|----------------|
|       |         |           | 매우 불만족    | 다소 불만족     | 보통          | 다소 만족        | 매우 만족         |              |                |
| 전체    |         | (빈도)<br>% | 3.85      | (1)<br>0.3 | (19)<br>6.4 | (88)<br>29.5 | (107)<br>35.9 | (83)<br>27.9 | (298)<br>100.0 |
| 성별    | 남성      | (빈도)<br>% | 3.82      | -<br>-     | (8)<br>6.4  | (41)<br>32.8 | (41)<br>32.8  | (35)<br>28.0 | (125)<br>100.0 |
|       | 여성      | (빈도)<br>% | 3.86      | (1)<br>0.6 | (11)<br>6.4 | (47)<br>27.2 | (66)<br>38.2  | (48)<br>27.7 | (173)<br>100.0 |
| 연령대   | 청년층     | (빈도)<br>% | 3.90      | -<br>-     | (12)<br>6.9 | (45)<br>25.9 | (66)<br>37.9  | (51)<br>29.3 | (174)<br>100.0 |
|       | 중장년층    | (빈도)<br>% | 3.72      | (1)<br>1.2 | (5)<br>6.1  | (30)<br>36.6 | (26)<br>31.7  | (20)<br>24.4 | (82)<br>100.0  |
|       | 노년층     | (빈도)<br>% | 3.88      | -<br>-     | (2)<br>4.8  | (13)<br>31.0 | (15)<br>35.7  | (12)<br>28.6 | (42)<br>100.0  |
| 연령·성별 | 청년층 남성  | (빈도)<br>% | 3.92      | -<br>-     | (4)<br>5.3  | (22)<br>29.3 | (25)<br>33.3  | (24)<br>32.0 | (75)<br>100.0  |
|       | 청년층 여성  | (빈도)<br>% | 3.88      | -<br>-     | (8)<br>8.1  | (23)<br>23.2 | (41)<br>41.4  | (27)<br>27.3 | (99)<br>100.0  |
|       | 중장년층 남성 | (빈도)<br>% | 3.46      | -<br>-     | (2)<br>7.7  | (14)<br>53.8 | (6)<br>23.1   | (4)<br>15.4  | (26)<br>100.0  |
|       | 중장년층 여성 | (빈도)<br>% | 3.84      | (1)<br>1.8 | (3)<br>5.4  | (16)<br>28.6 | (20)<br>35.7  | (16)<br>28.6 | (56)<br>100.0  |
|       | 노년층 남성  | (빈도)<br>% | 3.92      | -<br>-     | (2)<br>8.3  | (5)<br>20.8  | (10)<br>41.7  | (7)<br>29.2  | (24)<br>100.0  |
|       | 노년층 여성  | (빈도)<br>% | 3.83      | -<br>-     | -<br>-      | (8)<br>44.4  | (5)<br>27.8   | (5)<br>27.8  | (18)<br>100.0  |
|       | 혼인 상태   | 기혼        | (빈도)<br>% | 3.94       | -<br>-      | (2)<br>6.3   | (9)<br>28.1   | (10)<br>31.3 | (11)<br>34.4   |
|       | 비혼(미혼)  | (빈도)<br>% | 3.85      | (1)<br>0.4 | (16)<br>7.2 | (60)<br>26.9 | (84)<br>37.7  | (62)<br>27.8 | (223)<br>100.0 |
|       | 이혼      | (빈도)<br>% | 3.77      | -<br>-     | (1)<br>3.2  | (13)<br>41.9 | (9)<br>29.0   | (8)<br>25.8  | (31)<br>100.0  |
|       | 사별      | (빈도)<br>% | 3.67      | -<br>-     | -<br>-      | (6)<br>50.0  | (4)<br>33.3   | (2)<br>16.7  | (12)<br>100.0  |

‘이웃’ 만족 비율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 29.4%, 남성 27.9%, 연령 대별로는 노년층 46.5%, 청년층 25.7%, 중장년층 24.7%, 연령·성별로는 노년층 남성 58.3%, 중장년층 여성 36.0%, 노년층 여성 31.6%, 청년층 남성 26.6%, 청년층 여성 25.0%, 중장년층 남성 0.0%, 혼인상태별로는 기혼 48.5%, 사별 33.3%, 이혼 31.0%, 비혼(미혼) 24.7%로 나타났다.

| 구분    |         | 5점 평균     | 5점 척도  |            |              |               |              | 합계          |                |
|-------|---------|-----------|--------|------------|--------------|---------------|--------------|-------------|----------------|
|       |         |           | 매우 불만족 | 다소 불만족     | 보통           | 다소 만족         | 매우 만족        |             |                |
| 전체    |         | (빈도)<br>% | 3.16   | (7)<br>2.7 | (38)<br>14.4 | (143)<br>54.2 | (57)<br>21.6 | (19)<br>7.2 | (264)<br>100.0 |
| 성별    | 남성      | (빈도)<br>% | 3.15   | (6)<br>5.4 | (13)<br>11.7 | (61)<br>55.0  | (20)<br>18.0 | (11)<br>9.9 | (111)<br>100.0 |
|       | 여성      | (빈도)<br>% | 3.17   | (1)<br>0.7 | (25)<br>16.3 | (82)<br>53.6  | (37)<br>24.2 | (8)<br>5.2  | (153)<br>100.0 |
| 연령대   | 청년층     | (빈도)<br>% | 3.09   | (6)<br>4.1 | (26)<br>17.6 | (78)<br>52.7  | (24)<br>16.2 | (14)<br>9.5 | (148)<br>100.0 |
|       | 중장년층    | (빈도)<br>% | 3.11   | (1)<br>1.4 | (10)<br>13.7 | (44)<br>60.3  | (16)<br>21.9 | (2)<br>2.7  | (73)<br>100.0  |
|       | 노년층     | (빈도)<br>% | 3.49   | -<br>-     | (2)<br>4.7   | (21)<br>48.8  | (17)<br>39.5 | (3)<br>7.0  | (43)<br>100.0  |
| 연령·성별 | 청년층 남성  | (빈도)<br>% | 3.09   | (5)<br>7.8 | (10)<br>15.6 | (32)<br>50.0  | (8)<br>12.5  | (9)<br>14.1 | (64)<br>100.0  |
|       | 청년층 여성  | (빈도)<br>% | 3.10   | (1)<br>1.2 | (16)<br>19.0 | (46)<br>54.8  | (16)<br>19.0 | (5)<br>6.0  | (84)<br>100.0  |
|       | 중장년층 남성 | (빈도)<br>% | 2.83   | (1)<br>4.3 | (2)<br>8.7   | (20)<br>87.0  | -<br>-       | -<br>-      | (23)<br>100.0  |
|       | 중장년층 여성 | (빈도)<br>% | 3.24   | -<br>-     | (8)<br>16.0  | (24)<br>48.0  | (16)<br>32.0 | (2)<br>4.0  | (50)<br>100.0  |
|       | 노년층 남성  | (빈도)<br>% | 3.63   | -<br>-     | (1)<br>4.2   | (9)<br>37.5   | (12)<br>50.0 | (2)<br>8.3  | (24)<br>100.0  |
|       | 노년층 여성  | (빈도)<br>% | 3.32   | -<br>-     | (1)<br>5.3   | (12)<br>63.2  | (5)<br>26.3  | (1)<br>5.3  | (19)<br>100.0  |
| 혼인 상태 | 기혼      | (빈도)<br>% | 3.42   | -<br>-     | (3)<br>9.1   | (14)<br>42.4  | (15)<br>45.5 | (1)<br>3.0  | (33)<br>100.0  |
|       | 비혼(미혼)  | (빈도)<br>% | 3.08   | (7)<br>3.7 | (31)<br>16.3 | (105)<br>55.3 | (34)<br>17.9 | (13)<br>6.8 | (190)<br>100.0 |
|       | 이혼      | (빈도)<br>% | 3.28   | -<br>-     | (4)<br>13.8  | (16)<br>55.2  | (6)<br>20.7  | (3)<br>10.3 | (29)<br>100.0  |
|       | 사별      | (빈도)<br>% | 3.50   | -<br>-     | -<br>-       | (8)<br>66.7   | (2)<br>16.7  | (2)<br>16.7 | (12)<br>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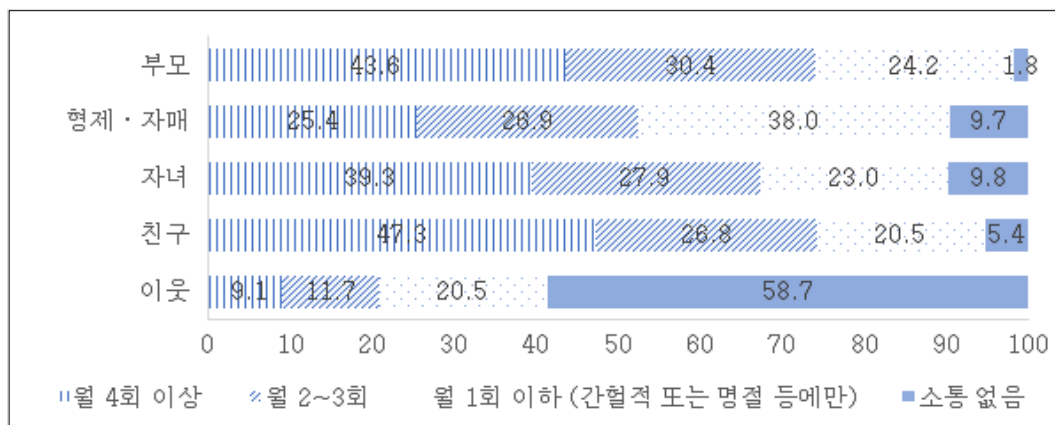


## 2) 소통 및 접촉 빈도

가족, 친구, 이웃과의 소통 및 접촉(만남, 전화) 빈도를 관계별로 살펴보면, 부모는 ‘월 4회 이상’ 43.6%, ‘월 2~3회’ 30.4%, 형제·자매는 ‘월 1회 이하(간헐적 또는 명절 등에만)’ 38.0%, ‘월 2~3회’ 26.9%, 자녀는 ‘월 4회 이상’ 39.3%, ‘월 2~3회’ 27.9%, 친구는 ‘월 4회 이상’ 47.3%, ‘월 2~3회’ 26.8%, 이웃은 ‘소통 없음’ 58.7%, ‘월 1회 이하(간헐적 또는 명절 등에만)’ 20.5% 순으로 나타났다.

| 구분    | 월 4회 이상 |      | 월 2~3회 |      | 월 1회 이하<br>(간헐적 또는 명절 등에만) |      | 소통 없음 |      | 합계  |       |
|-------|---------|------|--------|------|----------------------------|------|-------|------|-----|-------|
|       | 빈도      | %    | 빈도     | %    | 빈도                         | %    | 빈도    | %    | 빈도  | %     |
| 부모    | 119     | 43.6 | 83     | 30.4 | 66                         | 24.2 | 5     | 1.8  | 273 | 100.0 |
| 형제·자매 | 71      | 25.4 | 75     | 26.9 | 106                        | 38.0 | 27    | 9.7  | 279 | 100.0 |
| 자녀    | 24      | 39.3 | 17     | 27.9 | 14                         | 23.0 | 6     | 9.8  | 61  | 100.0 |
| 친구    | 141     | 47.3 | 80     | 26.8 | 61                         | 20.5 | 16    | 5.4  | 298 | 100.0 |
| 이웃    | 24      | 9.1  | 31     | 11.7 | 54                         | 20.5 | 155   | 58.7 | 264 | 100.0 |

그림 12 소통 및 접촉 빈도 단위: %



‘부모’ 소통 및 접촉 빈도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소통 빈도가 높고, 노년층, 특히 노년층 남성의 소통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월 4회 이상’이 가장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청년층, 중장년층은 ‘월 4회 이상’, 노년층은 ‘월 1회 이하(간헐적 또는 명절 등에만)’로 나타났다.

연령·성별로는 청년층 여성이 청년층 남성보다, 노년층 여성이 노년층 남성보다 소통빈도가 높은 반면, 중장년층은 성별에 따른 소통빈도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혼인상태별로는 기혼은 ‘월 2~3회’, ‘월 1회 이하(간헐적 또는 명절 등에만)’(각 35.7%), 비혼(미혼)은 ‘월 4회 이상(45.4%)’, 이혼은 ‘월 4회 이상(54.5%)’, 사별은 ‘월 2~3회(60.0%)’로 나타났다.

| 구분        |         | 월 4회 이상   | 월 2~3회        | 월 1회 이하<br>(간헐적 또는<br>명절 등에만) | 소통 없음        | 합계          |                |
|-----------|---------|-----------|---------------|-------------------------------|--------------|-------------|----------------|
| 전체        |         | (빈도)<br>% | (119)<br>43.6 | (83)<br>30.4                  | (66)<br>24.2 | (5)<br>1.8  | (273)<br>100.0 |
| 성별        | 남성      | (빈도)<br>% | (42)<br>35.6  | (37)<br>31.4                  | (37)<br>31.4 | (2)<br>1.7  | (118)<br>100.0 |
|           | 여성      | (빈도)<br>% | (77)<br>49.7  | (46)<br>29.7                  | (29)<br>18.7 | (3)<br>1.9  | (155)<br>100.0 |
| 연령대       | 청년층     | (빈도)<br>% | (77)<br>44.5  | (55)<br>31.8                  | (38)<br>22.0 | (3)<br>1.7  | (173)<br>100.0 |
|           | 중장년층    | (빈도)<br>% | (36)<br>50.7  | (20)<br>28.2                  | (14)<br>19.7 | (1)<br>1.4  | (71)<br>100.0  |
|           | 노년층     | (빈도)<br>% | (6)<br>20.7   | (8)<br>27.6                   | (14)<br>48.3 | (1)<br>3.4  | (29)<br>100.0  |
| 연령·<br>성별 | 청년층 남성  | (빈도)<br>% | (26)<br>35.1  | (27)<br>36.5                  | (20)<br>27.0 | (1)<br>1.4  | (74)<br>100.0  |
|           | 청년층 여성  | (빈도)<br>% | (51)<br>51.5  | (28)<br>28.3                  | (18)<br>18.2 | (2)<br>2.0  | (99)<br>100.0  |
|           | 중장년층 남성 | (빈도)<br>% | (12)<br>50.0  | (7)<br>29.2                   | (5)<br>20.8  | -           | (24)<br>100.0  |
|           | 중장년층 여성 | (빈도)<br>% | (24)<br>51.1  | (13)<br>27.7                  | (9)<br>19.1  | (1)<br>2.1  | (47)<br>100.0  |
|           | 노년층 남성  | (빈도)<br>% | (4)<br>20.0   | (3)<br>15.0                   | (12)<br>60.0 | (1)<br>5.0  | (20)<br>100.0  |
|           | 노년층 여성  | (빈도)<br>% | (2)<br>22.2   | (5)<br>55.6                   | (2)<br>22.2  | -           | (9)<br>100.0   |
| 혼인<br>상태  | 기혼      | (빈도)<br>% | (8)<br>28.6   | (10)<br>35.7                  | (10)<br>35.7 | -           | (28)<br>100.0  |
|           | 비혼(미혼)  | (빈도)<br>% | (99)<br>45.4  | (64)<br>29.4                  | (52)<br>23.9 | (3)<br>1.4  | (218)<br>100.0 |
|           | 이혼      | (빈도)<br>% | (12)<br>54.5  | (6)<br>27.3                   | (3)<br>13.6  | (1)<br>4.5  | (22)<br>100.0  |
|           | 사별      | (빈도)<br>% | -             | (3)<br>60.0                   | (1)<br>20.0  | (1)<br>20.0 | (5)<br>100.0   |

‘형제·자매’ 소통 및 접촉 빈도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소통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월 1회 이하(간헐적 또는 명절 등에만)’가 가장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 모두 ‘월 1회 이하(간헐적 또는 명절 등에만)’, ‘월 2~3회’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성별, 혼인상태에 따른 소통빈도에도 큰 차이는 없었다.

| 구분    |         | 빈도        | 월 4회 이상      | 월 2~3회       | 월 1회 이하<br>(간헐적 또는 명절 등에만) | 소통 없음        | 합계             |
|-------|---------|-----------|--------------|--------------|----------------------------|--------------|----------------|
| 전체    |         | (빈도)<br>% | (71)<br>25.4 | (75)<br>26.9 | (106)<br>38.0              | (27)<br>9.7  | (279)<br>100.0 |
| 성별    | 남성      | (빈도)<br>% | (24)<br>20.9 | (31)<br>27.0 | (47)<br>40.9               | (13)<br>11.3 | (115)<br>100.0 |
|       | 여성      | (빈도)<br>% | (47)<br>28.7 | (44)<br>26.8 | (59)<br>36.0               | (14)<br>8.5  | (164)<br>100.0 |
| 연령대   | 청년층     | (빈도)<br>% | (46)<br>28.9 | (46)<br>28.9 | (56)<br>35.2               | (11)<br>6.9  | (159)<br>100.0 |
|       | 중장년층    | (빈도)<br>% | (16)<br>20.8 | (18)<br>23.4 | (34)<br>44.2               | (9)<br>11.7  | (77)<br>100.0  |
|       | 노년층     | (빈도)<br>% | (9)<br>20.9  | (11)<br>25.6 | (16)<br>37.2               | (7)<br>16.3  | (43)<br>100.0  |
| 연령·성별 | 청년층 남성  | (빈도)<br>% | (15)<br>22.1 | (21)<br>30.9 | (26)<br>38.2               | (6)<br>8.8   | (68)<br>100.0  |
|       | 청년층 여성  | (빈도)<br>% | (31)<br>34.1 | (25)<br>27.5 | (30)<br>33.0               | (5)<br>5.5   | (91)<br>100.0  |
|       | 중장년층 남성 | (빈도)<br>% | (3)<br>13.0  | (6)<br>26.1  | (12)<br>52.2               | (2)<br>8.7   | (23)<br>100.0  |
|       | 중장년층 여성 | (빈도)<br>% | (13)<br>24.1 | (12)<br>22.2 | (22)<br>40.7               | (7)<br>13.0  | (54)<br>100.0  |
|       | 노년층 남성  | (빈도)<br>% | (6)<br>25.0  | (4)<br>16.7  | (9)<br>37.5                | (5)<br>20.8  | (24)<br>100.0  |
|       | 노년층 여성  | (빈도)<br>% | (3)<br>15.8  | (7)<br>36.8  | (7)<br>36.8                | (2)<br>10.5  | (19)<br>100.0  |
| 혼인 상태 | 기혼      | (빈도)<br>% | (8)<br>24.2  | (8)<br>24.2  | (10)<br>30.3               | (7)<br>21.2  | (33)<br>100.0  |
|       | 비혼(미혼)  | (빈도)<br>% | (58)<br>28.2 | (57)<br>27.7 | (79)<br>38.3               | (12)<br>5.8  | (206)<br>100.0 |
|       | 이혼      | (빈도)<br>% | (4)<br>14.3  | (6)<br>21.4  | (11)<br>39.3               | (7)<br>25.0  | (28)<br>100.0  |
|       | 사별      | (빈도)<br>% | (1)<br>8.3   | (4)<br>33.3  | (6)<br>50.0                | (1)<br>8.3   | (12)<br>100.0  |

‘자녀’ 소통 및 접촉 빈도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소통 빈도가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소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월 4회 이상’이 가장 높고, 연령대별로는 청년층은 ‘소통 없음(33.3%)’, ‘월 2~3회’, ‘월 1회 이하(간헐적 또는 명절 등에만)’, ‘월 4회 이상’(각 22.2%), 중장년층은 ‘월 4회 이상(41.7%)’, ‘월 1회 이하(간헐적 또는 명절 등에만)(37.5%)’, 노년층은 ‘월 4회 이상(42.9%)’, ‘월 2~3회(39.3%)’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성별로는 중장년층 남성은 소통빈도가 고르게 나타난 반면, 여성은 ‘월 4회 이상’에 다수 응답해 소통빈도가 남성에 비해 높고, 노년층은 성별에 차이없이 소통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로는 기혼은 ‘월 2~3회(45.5%)’, 비혼(미혼)은 ‘월 4회 이상(100.0%)’, 이혼은 ‘월 4회 이상(38.5%)’, 사별은 ‘월 4회 이상(50.0%)’으로 나타났다.

| 구분        |         | 월 4회 이상   | 월 2~3회       | 월 1회 이하<br>(간헐적 또는<br>명절 등에만) | 소통 없음        | 합계           |               |
|-----------|---------|-----------|--------------|-------------------------------|--------------|--------------|---------------|
| 전체        |         | (빈도)<br>% | (24)<br>39.3 | (17)<br>27.9                  | (14)<br>23.0 | (6)<br>9.8   | (61)<br>100.0 |
| 성별        | 남성      | (빈도)<br>% | (8)<br>33.3  | (6)<br>25.0                   | (5)<br>20.8  | (5)<br>20.8  | (24)<br>100.0 |
|           | 여성      | (빈도)<br>% | (16)<br>43.2 | (11)<br>29.7                  | (9)<br>24.3  | (1)<br>2.7   | (37)<br>100.0 |
| 연령대       | 청년층     | (빈도)<br>% | (2)<br>22.2  | (2)<br>22.2                   | (2)<br>22.2  | (3)<br>33.3  | (9)<br>100.0  |
|           | 중장년층    | (빈도)<br>% | (10)<br>41.7 | (4)<br>16.7                   | (9)<br>37.5  | (1)<br>4.2   | (24)<br>100.0 |
|           | 노년층     | (빈도)<br>% | (12)<br>42.9 | (11)<br>39.3                  | (3)<br>10.7  | (2)<br>7.1   | (28)<br>100.0 |
| 연령·<br>성별 | 청년층 남성  | (빈도)<br>% | (2)<br>25.0  | (2)<br>25.0                   | (2)<br>25.0  | (2)<br>25.0  | (8)<br>100.0  |
|           | 청년층 여성  | (빈도)<br>% | -            | -                             | -            | (1)<br>100.0 | (1)<br>100.0  |
|           | 중장년층 남성 | (빈도)<br>% | (1)<br>25.0  | (1)<br>25.0                   | (1)<br>25.0  | (1)<br>25.0  | (4)<br>100.0  |
|           | 중장년층 여성 | (빈도)<br>% | (9)<br>45.0  | (3)<br>15.0                   | (8)<br>40.0  | -            | (20)<br>100.0 |
|           | 노년층 남성  | (빈도)<br>% | (5)<br>41.7  | (3)<br>25.0                   | (2)<br>16.7  | (2)<br>16.7  | (12)<br>100.0 |
|           | 노년층 여성  | (빈도)<br>% | (7)<br>43.8  | (8)<br>50.0                   | (1)<br>6.3   | -            | (16)<br>100.0 |
| 혼인<br>상태  | 기혼      | (빈도)<br>% | (7)<br>31.8  | (10)<br>45.5                  | (3)<br>13.6  | (2)<br>9.1   | (22)<br>100.0 |
|           | 비혼(미혼)  | (빈도)<br>% | (1)<br>100.0 | -                             | -            | -            | (1)<br>100.0  |
|           | 이혼      | (빈도)<br>% | (10)<br>38.5 | (3)<br>11.5                   | (9)<br>34.6  | (4)<br>15.4  | (26)<br>100.0 |
|           | 사별      | (빈도)<br>% | (6)<br>50.0  | (4)<br>33.3                   | (2)<br>16.7  | -            | (12)<br>100.0 |

‘친구’ 소통 및 접촉 빈도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소통 빈도가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소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월 4회 이상’이 가장 높고, 연령대별로는 청년층과 중장년층은 성별에 차이없이 ‘월 4회 이상’ 응답이 많았다, 노년층은 ‘월 2~3회(31.0%)’, ‘월 4회 이상’, ‘월 1회 이하(간헐적 또는 명절 등에만)’(각 26.2%)로 나타났다.

연령·성별로는 청년층은 성별에 따른 소통빈도에 큰 차이가 없었던 반면, 중장년층 남성은 ‘월 1회 이하(간헐적 또는 명절 등에만)(38.5%)’, ‘월 4회 이상(34.6%)’, 중장년층 여성은 ‘월 4회 이상(39.3%)’, ‘월 2~3회(30.4%)’, 노년층 남성은 ‘월 4회 이상’, ‘소통 없음’(각 29.2%), 노년층 여성은 ‘월 2~3회(50.0%)’, ‘월 1회 이하(간헐적 또는 명절 등에만)(27.8%)’ 순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별로는 기혼은 ‘월 4회 이상’, ‘월 2~3회’(각 34.4%), 비혼(미혼), 이혼은 ‘월 4회 이상’에 다수 응답하였고, 사별은 ‘월 2~3회(50.0%)’로 나타났다.

표 43 응답자 특성별 - [소통 및 접촉 빈도] 친구

| 구분        |         | 월 4회 이상   | 월 2~3회        | 월 1회 이하<br>(간헐적 또는<br>명절 등에만) | 소통 없음        | 합계           |                |
|-----------|---------|-----------|---------------|-------------------------------|--------------|--------------|----------------|
| 전체        |         | (빈도)<br>% | (141)<br>47.3 | (80)<br>26.8                  | (61)<br>20.5 | (16)<br>5.4  | (298)<br>100.0 |
| 성별        | 남성      | (빈도)<br>% | (57)<br>45.6  | (28)<br>22.4                  | (26)<br>20.8 | (14)<br>11.2 | (125)<br>100.0 |
|           | 여성      | (빈도)<br>% | (84)<br>48.6  | (52)<br>30.1                  | (35)<br>20.2 | (2)<br>1.2   | (173)<br>100.0 |
| 연령대       | 청년층     | (빈도)<br>% | (99)<br>56.9  | (46)<br>26.4                  | (24)<br>13.8 | (5)<br>2.9   | (174)<br>100.0 |
|           | 중장년층    | (빈도)<br>% | (31)<br>37.8  | (21)<br>25.6                  | (26)<br>31.7 | (4)<br>4.9   | (82)<br>100.0  |
|           | 노년층     | (빈도)<br>% | (11)<br>26.2  | (13)<br>31.0                  | (11)<br>26.2 | (7)<br>16.7  | (42)<br>100.0  |
| 연령·<br>성별 | 청년층 남성  | (빈도)<br>% | (41)<br>54.7  | (20)<br>26.7                  | (10)<br>13.3 | (4)<br>5.3   | (75)<br>100.0  |
|           | 청년층 여성  | (빈도)<br>% | (58)<br>58.6  | (26)<br>26.3                  | (14)<br>14.1 | (1)<br>1.0   | (99)<br>100.0  |
|           | 중장년층 남성 | (빈도)<br>% | (9)<br>34.6   | (4)<br>15.4                   | (10)<br>38.5 | (3)<br>11.5  | (26)<br>100.0  |
|           | 중장년층 여성 | (빈도)<br>% | (22)<br>39.3  | (17)<br>30.4                  | (16)<br>28.6 | (1)<br>1.8   | (56)<br>100.0  |
|           | 노년층 남성  | (빈도)<br>% | (7)<br>29.2   | (4)<br>16.7                   | (6)<br>25.0  | (7)<br>29.2  | (24)<br>100.0  |
|           | 노년층 여성  | (빈도)<br>% | (4)<br>22.2   | (9)<br>50.0                   | (5)<br>27.8  | -            | (18)<br>100.0  |

| 구분       |        | 월 4회 이상                    | 월 2~3회       | 월 1회 이하<br>(간헐적 또는<br>명절 등에만) | 소통 없음       | 합계             |
|----------|--------|----------------------------|--------------|-------------------------------|-------------|----------------|
| 혼인<br>상태 | 기혼     | (빈도)<br>%<br>(11)<br>34.4  | (11)<br>34.4 | (4)<br>12.5                   | (6)<br>18.8 | (32)<br>100.0  |
|          | 비혼(미혼) | (빈도)<br>%<br>(113)<br>50.7 | (57)<br>25.6 | (45)<br>20.2                  | (8)<br>3.6  | (223)<br>100.0 |
|          | 이혼     | (빈도)<br>%<br>(15)<br>48.4  | (6)<br>19.4  | (8)<br>25.8                   | (2)<br>6.5  | (31)<br>100.0  |
|          | 사별     | (빈도)<br>%<br>(2)<br>16.7   | (6)<br>50.0  | (4)<br>33.3                   | -<br>-      | (12)<br>100.0  |

‘이웃’ 소통 및 접촉 빈도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소통 빈도가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소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소통 없음’이 가장 높고, 연령대별로는 청년층, 중장년층은 ‘소통 없음’, 노년층은 ‘월 1회 이하(간헐적 또는 명절 등에만)’ 응답이 많았다.

연령·성별로는 청년층과 중장년층은 성별에 따른 소통빈도에 큰 차이가 없었고, 노년층 남성은 ‘월 1회 이하(간헐적 또는 명절 등에만)(45.8%)’, ‘소통 없음(25.0%)’, 노년층 여성은 ‘소통 없음(31.6%)’, ‘월 1회 이하(간헐적 또는 명절 등에만)’, ‘월 2~3회’(각 26.3%) 순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별로는 기혼, 비혼(미혼), 이혼 모두 ‘소통 없음’에 다수 응답하였고, 사별은 ‘월 4회 이상’, ‘월 2~3회’, ‘월 1회 이하(간헐적 또는 명절 등에만)’, ‘소통 없음’(각 25.0%)으로 나타났다.

표 44 응답자 특성별 - [소통 및 접촉 빈도] 이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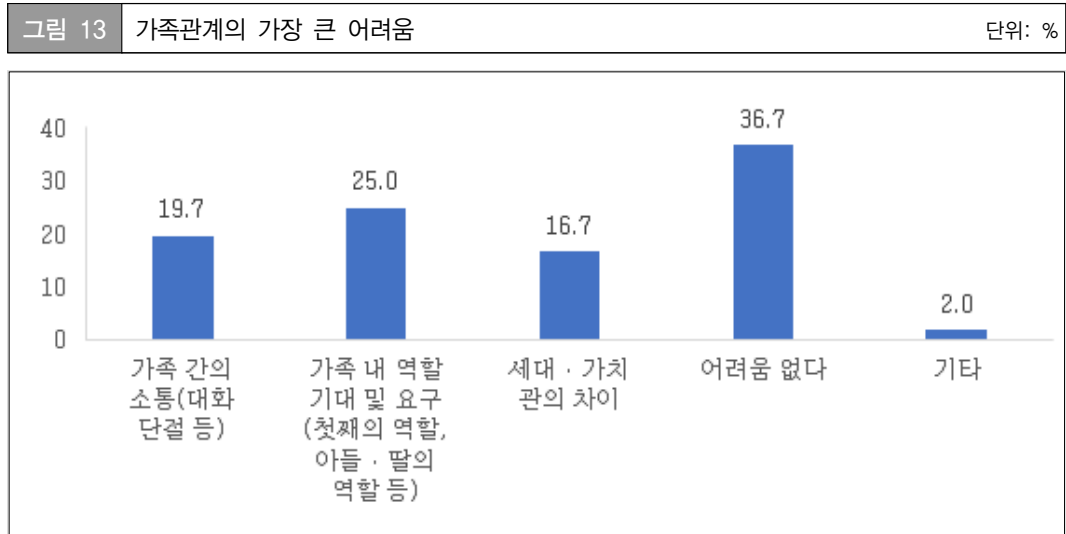
| 구분  |      | 월 4회 이상                   | 월 2~3회       | 월 1회 이하<br>(간헐적 또는<br>명절 등에만) | 소통 없음         | 합계             |
|-----|------|---------------------------|--------------|-------------------------------|---------------|----------------|
| 전체  |      | (빈도)<br>%<br>(24)<br>9.1  | (31)<br>11.7 | (54)<br>20.5                  | (155)<br>58.7 | (264)<br>100.0 |
| 성별  | 남성   | (빈도)<br>%<br>(8)<br>7.2   | (19)<br>17.1 | (29)<br>26.1                  | (55)<br>49.5  | (111)<br>100.0 |
|     | 여성   | (빈도)<br>%<br>(16)<br>10.5 | (12)<br>7.8  | (25)<br>16.3                  | (100)<br>65.4 | (153)<br>100.0 |
| 연령대 | 청년층  | (빈도)<br>%<br>(10)<br>6.8  | (12)<br>8.1  | (20)<br>13.5                  | (106)<br>71.6 | (148)<br>100.0 |
|     | 중장년층 | (빈도)<br>%<br>(8)<br>11.0  | (10)<br>13.7 | (18)<br>24.7                  | (37)<br>50.7  | (73)<br>100.0  |
|     | 노년층  | (빈도)<br>%<br>(6)<br>14.0  | (9)<br>20.9  | (16)<br>37.2                  | (12)<br>27.9  | (43)<br>100.0  |

| 구분            |         | 월 4회 이상   | 월 2~3회      | 월 1회 이하<br>(간헐적 또는<br>명절 등에만) | 소통 없음        | 합계            |                |
|---------------|---------|-----------|-------------|-------------------------------|--------------|---------------|----------------|
| 연령<br>·<br>성별 | 청년층 남성  | (빈도)<br>% | (5)<br>7.8  | (11)<br>17.2                  | (12)<br>18.8 | (36)<br>56.3  | (64)<br>100.0  |
|               | 청년층 여성  | (빈도)<br>% | (5)<br>6.0  | (1)<br>1.2                    | (8)<br>9.5   | (70)<br>83.3  | (84)<br>100.0  |
|               | 중장년층 남성 | (빈도)<br>% | -<br>-      | (4)<br>17.4                   | (6)<br>26.1  | (13)<br>56.5  | (23)<br>100.0  |
|               | 중장년층 여성 | (빈도)<br>% | (8)<br>16.0 | (6)<br>12.0                   | (12)<br>24.0 | (24)<br>48.0  | (50)<br>100.0  |
|               | 노년층 남성  | (빈도)<br>% | (3)<br>12.5 | (4)<br>16.7                   | (11)<br>45.8 | (6)<br>25.0   | (24)<br>100.0  |
|               | 노년층 여성  | (빈도)<br>% | (3)<br>15.8 | (5)<br>26.3                   | (5)<br>26.3  | (6)<br>31.6   | (19)<br>100.0  |
| 혼인<br>상태      | 기혼      | (빈도)<br>% | (4)<br>12.1 | (4)<br>12.1                   | (10)<br>30.3 | (15)<br>45.5  | (33)<br>100.0  |
|               | 비혼(미혼)  | (빈도)<br>% | (12)<br>6.3 | (17)<br>8.9                   | (34)<br>17.9 | (127)<br>66.8 | (190)<br>100.0 |
|               | 이혼      | (빈도)<br>% | (5)<br>17.2 | (7)<br>24.1                   | (7)<br>24.1  | (10)<br>34.5  | (29)<br>100.0  |
|               | 사별      | (빈도)<br>% | (3)<br>25.0 | (3)<br>25.0                   | (3)<br>25.0  | (3)<br>25.0   | (12)<br>100.0  |

### 3) 가족관계의 가장 큰 어려움

경험하고 있는 가족관계의 가장 큰 어려움은 ‘어려움 없다’가 36.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가족 내 역할기대 및 요구(첫째의 역할, 아들·딸의 역할 등)’ 25.0%, ‘가족 간의 소통(대화 단절 등)’ 19.7% 순으로 나타났다.

| 구분                                 | 빈도  | %     |
|------------------------------------|-----|-------|
| 가족 간의 소통(대화 단절 등)                  | 59  | 19.7  |
| 가족 내 역할기대 및 요구(첫째의 역할, 아들·딸의 역할 등) | 75  | 25.0  |
| 세대·가치관의 차이                         | 50  | 16.7  |
| 어려움 없다                             | 110 | 36.7  |
| 기타                                 | 6   | 2.0   |
| 합계                                 | 300 | 100.0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여성에 비해 ‘가족 간의 소통(대화 단절 등)’이 높고, 여성은 남성에 비해 ‘세대·가치관의 차이’가 높게 나타났다. ‘어려움 없다’는 청년층 남성과 노년층 여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어려움 없다’, ‘가족 내 역할기대 및 요구(첫째의 역할, 아들·딸의 역할 등)’ 순으로 높고, 연령대별로는 청년층과 중장년층은 ‘어려움 없다’, ‘가족 내 역할기대 및 요구(첫째의 역할, 아들·딸의 역할 등)’, 노년층은 ‘어려움 없다(41.9%)’, ‘세대·가치관의 차이(23.3%)’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성별로는 청년층 남성은 ‘어려움 없다(42.7%)’, ‘가족 간의 소통(대화 단절 등)(26.7%)’, 청년층 여성은 ‘어려움 없다(31.0%)’, ‘가족 내 역할기대 및 요구(첫째의 역할, 아들·딸의 역할 등)(30.0%)’ 순으로 높고, 중장년층 남성과 여성은 순위에 차이는 있었지만 가족 내 역할기대 및 요구(첫째의 역할, 아들·딸의 역할 등)에 대한 응답이 높았다. 노년층 남성은 ‘가족 내 역할기대 및 요구(첫째의 역할, 아들·딸의 역할 등)’, ‘세대·가치관의 차이’, ‘어려움 없다’(각 29.2%), 노년층 여성은 ‘어려움 없다(57.9%)’, ‘가족 간의 소통(대화 단절 등)(21.1%)’ 순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별로는 기혼은 ‘어려움 없다(33.3%)’, ‘세대·가치관의 차이(27.3%)’, 비혼(미혼)은 ‘어려움 없다(37.9%)’, ‘가족 내 역할기대 및 요구(첫째의 역할, 아들·딸의 역할 등)(27.7%)’, 이혼은 ‘가족 간의 소통(대화 단절 등)(38.7%)’, ‘어려움 없다(25.8%)’, 사별은 ‘어려움 없다(50.0%)’, ‘가족 간의 소통(대화 단절 등)(25.0%)’ 순으로 나타났다.



표 46 응답자 특성별 - 가족관계의 가장 큰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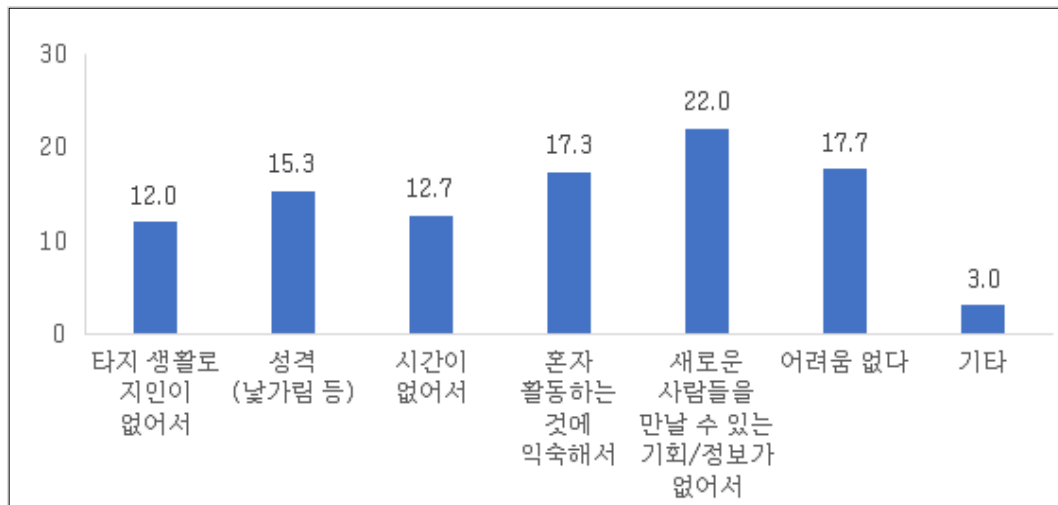
| 구분    |         | 가족 간의 소통(대화 단절 등) | 가족 내 역할기대 및 요구(첫째의 역할, 아들·딸의 역할 등) | 세대·가치관의 차이   | 어려움 없다       | 기타            | 합계         |                |
|-------|---------|-------------------|------------------------------------|--------------|--------------|---------------|------------|----------------|
| 전체    |         | (빈도)<br>%         | (59)<br>19.7                       | (75)<br>25.0 | (50)<br>16.7 | (110)<br>36.7 | (6)<br>2.0 | (300)<br>100.0 |
| 성별    | 남성      | (빈도)<br>%         | (29)<br>23.2                       | (31)<br>24.8 | (17)<br>13.6 | (47)<br>37.6  | (1)<br>0.8 | (125)<br>100.0 |
|       | 여성      | (빈도)<br>%         | (30)<br>17.1                       | (44)<br>25.1 | (33)<br>18.9 | (63)<br>36.0  | (5)<br>2.9 | (175)<br>100.0 |
| 연령대   | 청년층     | (빈도)<br>%         | (34)<br>19.4                       | (45)<br>25.7 | (30)<br>17.1 | (63)<br>36.0  | (3)<br>1.7 | (175)<br>100.0 |
|       | 중장년층    | (빈도)<br>%         | (18)<br>22.0                       | (23)<br>28.0 | (10)<br>12.2 | (29)<br>35.4  | (2)<br>2.4 | (82)<br>100.0  |
|       | 노년층     | (빈도)<br>%         | (7)<br>16.3                        | (7)<br>16.3  | (10)<br>23.3 | (18)<br>41.9  | (1)<br>2.3 | (43)<br>100.0  |
| 연령·성별 | 청년층 남성  | (빈도)<br>%         | (20)<br>26.7                       | (15)<br>20.0 | (8)<br>10.7  | (32)<br>42.7  | -          | (75)<br>100.0  |
|       | 청년층 여성  | (빈도)<br>%         | (14)<br>14.0                       | (30)<br>30.0 | (22)<br>22.0 | (31)<br>31.0  | (3)<br>3.0 | (100)<br>100.0 |
|       | 중장년층 남성 | (빈도)<br>%         | (6)<br>23.1                        | (9)<br>34.6  | (2)<br>7.7   | (8)<br>30.8   | (1)<br>3.8 | (26)<br>100.0  |
|       | 중장년층 여성 | (빈도)<br>%         | (12)<br>21.4                       | (14)<br>25.0 | (8)<br>14.3  | (21)<br>37.5  | (1)<br>1.8 | (56)<br>100.0  |
|       | 노년층 남성  | (빈도)<br>%         | (3)<br>12.5                        | (7)<br>29.2  | (7)<br>29.2  | (7)<br>29.2   | -          | (24)<br>100.0  |
|       | 노년층 여성  | (빈도)<br>%         | (4)<br>21.1                        | -            | (3)<br>15.8  | (11)<br>57.9  | (1)<br>5.3 | (19)<br>100.0  |
| 혼인 상태 | 기혼      | (빈도)<br>%         | (5)<br>15.2                        | (8)<br>24.2  | (9)<br>27.3  | (11)<br>33.3  | -          | (33)<br>100.0  |
|       | 비혼(미혼)  | (빈도)<br>%         | (39)<br>17.4                       | (62)<br>27.7 | (33)<br>14.7 | (85)<br>37.9  | (5)<br>2.2 | (224)<br>100.0 |
|       | 이혼      | (빈도)<br>%         | (12)<br>38.7                       | (5)<br>16.1  | (6)<br>19.4  | (8)<br>25.8   | -          | (31)<br>100.0  |
|       | 사별      | (빈도)<br>%         | (3)<br>25.0                        | -            | (2)<br>16.7  | (6)<br>50.0   | (1)<br>8.3 | (12)<br>100.0  |

#### 4) 사회적 관계 활동(모임 또는 단체 활동)의 가장 큰 어려운 점

사회적 관계 활동(모임 또는 단체 활동)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정보가 없어서’가 22.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어려움 없다’ 17.7%, ‘혼자 활동하는 것에 익숙해서’ 17.3%, ‘성격(낮가림 등)’ 15.3%, ‘시간이 없어서’ 12.7%, ‘타지 생활로 지인이 없어서’ 12.0%, ‘기타’ 3.0% 순으로 나타났다.

| 구분                          | 빈도  | %     |
|-----------------------------|-----|-------|
| 타지 생활로 지인이 없어서              | 36  | 12.0  |
| 성격(낮가림 등)                   | 46  | 15.3  |
| 시간이 없어서                     | 38  | 12.7  |
| 혼자 활동하는 것에 익숙해서             | 52  | 17.3  |
|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정보가 없어서 | 66  | 22.0  |
| 어려움 없다                      | 53  | 17.7  |
| 기타                          | 9   | 3.0   |
| 합계                          | 300 | 100.0 |

그림 14 사회적 관계 활동(모임 또는 단체 활동)의 가장 큰 어려운 점 단위: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중장년층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정보가 없어서’, 노년층은 ‘혼자 활동하는 것에 익숙해서’와 ‘성격(낮가림 등)’을 가장 높게 응답하

였으며, 청년층은 전반적으로 고른 응답을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정보가 없어서(20.0%)’, ‘혼자 활동하는 것에 익숙해서(18.4%)’, 여성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정보가 없어서(23.4%)’, ‘어려움 없다(20.0%)’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청년층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정보가 없어서(20.0%)’, ‘어려움 없다(18.9%)’, 중장년층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정보가 없어서(30.5%)’, ‘혼자 활동하는 것에 익숙해서’, ‘시간이 없어서’(각 15.9%), 노년층은 ‘혼자 활동하는 것에 익숙해서(25.6%)’, ‘어려움 없다(23.3%)’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성별로는 청년층, 중장년층은 성별에 차이없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정보가 없어서’에 대한 응답이 높은 반면, 노년층 남성은 ‘성격(낮가림 등)’, ‘혼자 활동하는 것에 익숙해서’(각 25.0%), ‘시간이 없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정보가 없어서’(각 16.7%), 노년층 여성은 ‘어려움 없다(42.1%)’, ‘혼자 활동하는 것에 익숙해서(26.3%)’ 순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별로는 기혼, 비혼(미혼), 이혼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정보가 없어서’가 응답이 높은 편이었고, 사별은 ‘어려움 없다(33.3%)’, ‘혼자 활동하는 것에 익숙해서’, ‘성격(낮가림 등)’(각 25.0%) 순으로 나타났다.

표 48 응답자 특성별 - 사회적 관계 활동(모임 또는 단체 활동)의 가장 큰 어려운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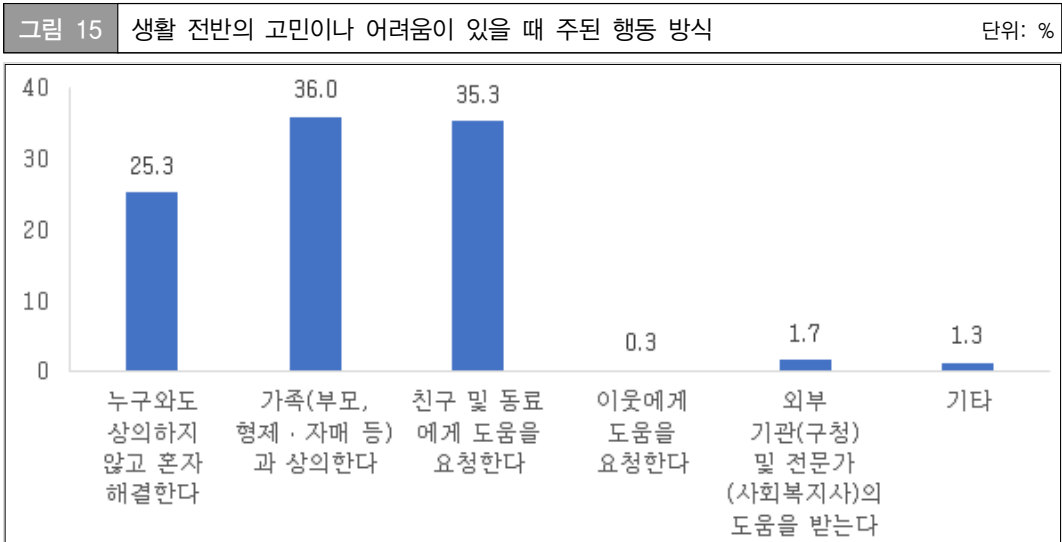
| 구분  |      | 타지 생활로 지인이 없어서 | 성격(낮가림 등)    | 시간이 없어서      | 혼자 활동하는 것에 익숙해서 |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정보가 없어서 | 어려움 없다       | 기타           | 합계         |                |
|-----|------|----------------|--------------|--------------|-----------------|-----------------------------|--------------|--------------|------------|----------------|
| 전체  |      | (빈도)<br>%      | (36)<br>12.0 | (46)<br>15.3 | (38)<br>12.7    | (52)<br>17.3                | (66)<br>22.0 | (53)<br>17.7 | (9)<br>3.0 | (300)<br>100.0 |
| 성별  | 남성   | (빈도)<br>%      | (18)<br>14.4 | (18)<br>14.4 | (18)<br>14.4    | (23)<br>18.4                | (25)<br>20.0 | (18)<br>14.4 | (5)<br>4.0 | (125)<br>100.0 |
|     | 여성   | (빈도)<br>%      | (18)<br>10.3 | (28)<br>16.0 | (20)<br>11.4    | (29)<br>16.6                | (41)<br>23.4 | (35)<br>20.0 | (4)<br>2.3 | (175)<br>100.0 |
| 연령대 | 청년층  | (빈도)<br>%      | (25)<br>14.3 | (27)<br>15.4 | (21)<br>12.0    | (28)<br>16.0                | (35)<br>20.0 | (33)<br>18.9 | (6)<br>3.4 | (175)<br>100.0 |
|     | 중장년층 | (빈도)<br>%      | (8)<br>9.8   | (10)<br>12.2 | (13)<br>15.9    | (13)<br>15.9                | (25)<br>30.5 | (10)<br>12.2 | (3)<br>3.7 | (82)<br>100.0  |
|     | 노년층  | (빈도)<br>%      | (3)<br>7.0   | (9)<br>20.9  | (4)<br>9.3      | (11)<br>25.6                | (6)<br>14.0  | (10)<br>23.3 | -<br>-     | (43)<br>100.0  |

| 구분            |          | 타지 생활로 지인이 없어서 | 성격 (낮가림 등)   | 시간이 없어서      | 혼자 활동하는 것에 익숙해서 |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정보가 없어서 | 어려움 없다       | 기타           | 합계          |                |
|---------------|----------|----------------|--------------|--------------|-----------------|-----------------------------|--------------|--------------|-------------|----------------|
| 연령<br>·<br>성별 | 청년층 남성   | (빈도)<br>%      | (12)<br>16.0 | (11)<br>14.7 | (10)<br>13.3    | (11)<br>14.7                | (13)<br>17.3 | (15)<br>20.0 | (3)<br>4.0  | (75)<br>100.0  |
|               | 청년층 여성   | (빈도)<br>%      | (13)<br>13.0 | (16)<br>16.0 | (11)<br>11.0    | (17)<br>17.0                | (22)<br>22.0 | (18)<br>18.0 | (3)<br>3.0  | (100)<br>100.0 |
|               | 중장년층 남성  | (빈도)<br>%      | (4)<br>15.4  | (1)<br>3.8   | (4)<br>15.4     | (6)<br>23.1                 | (8)<br>30.8  | (1)<br>3.8   | (2)<br>7.7  | (26)<br>100.0  |
|               | 중장년층 여성  | (빈도)<br>%      | (4)<br>7.1   | (9)<br>16.1  | (9)<br>16.1     | (7)<br>12.5                 | (17)<br>30.4 | (9)<br>16.1  | (1)<br>1.8  | (56)<br>100.0  |
|               | 노년층 남성   | (빈도)<br>%      | (2)<br>8.3   | (6)<br>25.0  | (4)<br>16.7     | (6)<br>25.0                 | (4)<br>16.7  | (2)<br>8.3   | -<br>-      | (24)<br>100.0  |
|               | 노년층 여성   | (빈도)<br>%      | (1)<br>5.3   | (3)<br>15.8  | -<br>-          | (5)<br>26.3                 | (2)<br>10.5  | (8)<br>42.1  | -<br>-      | (19)<br>100.0  |
|               | 혼인<br>상태 | 기혼             | (빈도)<br>%    | (5)<br>15.2  | (3)<br>9.1      | (6)<br>18.2                 | (7)<br>21.2  | (7)<br>21.2  | (5)<br>15.2 | -<br>-         |
|               | 비혼(미혼)   | (빈도)<br>%      | (27)<br>12.1 | (35)<br>15.6 | (28)<br>12.5    | (39)<br>17.4                | (47)<br>21.0 | (40)<br>17.9 | (8)<br>3.6  | (224)<br>100.0 |
|               | 이혼       | (빈도)<br>%      | (3)<br>9.7   | (5)<br>16.1  | (4)<br>12.9     | (3)<br>9.7                  | (11)<br>35.5 | (4)<br>12.9  | (1)<br>3.2  | (31)<br>100.0  |
|               | 사별       | (빈도)<br>%      | (1)<br>8.3   | (3)<br>25.0  | -<br>-          | (3)<br>25.0                 | (1)<br>8.3   | (4)<br>33.3  | -<br>-      | (12)<br>100.0  |

### 5) 생활 전반의 고민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주된 행동 방식

생활 전반의 고민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주된 행동 방식은 ‘가족(부모, 형제·자매 등)과 상의한다’가 36.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친구 및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35.3%,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혼자 해결한다’ 25.3%, ‘외부 기관(구청) 및 전문가(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는다’ 1.7%, ‘기타’ 1.3%,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0.3% 순으로 나타났다.

| 구분                              | 빈도  | %     |
|---------------------------------|-----|-------|
|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혼자 해결한다            | 76  | 25.3  |
| 가족(부모, 형제·자매 등)과 상의한다           | 108 | 36.0  |
| 친구 및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106 | 35.3  |
|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1   | 0.3   |
| 외부 기관(구청) 및 전문가(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는다 | 5   | 1.7   |
| 기타                              | 4   | 1.3   |
| 합계                              | 300 | 100.0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여성에 비해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혼자 해결한다’가 높게 나타났고, 연령이 낮을수록 ‘친구 및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에 높게 응답하였다. ‘가족(부모, 형제·자매 등)과 상의한다’는 노년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은 ‘친구 및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33.6%)’,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혼자 해결한다(32.8%)’, 여성은 ‘가족(부모, 형제·자매 등)과 상의한다(38.9%)’, ‘친구 및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36.6%)’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청년층은 ‘친구 및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42.3%)’, ‘가족(부모, 형제·자매 등)과 상의한다(32.0%)’, 중장년층은 ‘가족(부모, 형제·자매 등)과 상의한다(34.1%)’,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혼자 해결한다’, ‘친구 및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각 30.5%), 노년층은 ‘가족(부모, 형제·자매 등)과 상의한다(55.8%)’,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혼자 해결한다(23.3%)’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성별로는 청년층은 성별에 차이없이 ‘친구 및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에 응답이 높았고, 중장년층 남성은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혼자 해결한다(46.2%)’, ‘가족(부모, 형제·자매 등)과 상의한다(34.6%)’, 중장년층 여성은 ‘친구 및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35.7%)’, ‘가족(부모, 형제·자매 등)과 상의한다(33.9%)’, 노년층 남성은 ‘가족(부모, 형제·자매 등)과 상의한다(54.2%)’,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혼자 해결한다(25.0%)’, 노년층 여성은 ‘가족(부모, 형제·자매 등)과 상의한다(57.9%)’,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혼자 해결한다(21.1%)’ 순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별로는 기혼은 ‘가족(부모, 형제·자매 등)과 상의한다(42.4%)’, 비혼(미혼)은

‘친구 및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37.1%)’, 이혼은 ‘친구 및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41.9%)’, 사별은 ‘가족(부모, 형제·자매 등)과 상의한다(50.0%)’로 나타났다.

| 구분    |         |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혼자 해결한다 | 가족(부모, 형제·자매 등)과 상의한다 | 친구 및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외부 기관(구청) 및 전문가(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는다 | 기타         | 합계         |                |
|-------|---------|----------------------|-----------------------|--------------------|---------------|---------------------------------|------------|------------|----------------|
| 전체    |         | (빈도)<br>%            | (76)<br>25.3          | (108)<br>36.0      | (106)<br>35.3 | (1)<br>0.3                      | (5)<br>1.7 | (4)<br>1.3 | (300)<br>100.0 |
| 성별    | 남성      | (빈도)<br>%            | (41)<br>32.8          | (40)<br>32.0       | (42)<br>33.6  | -<br>-                          | (1)<br>0.8 | (1)<br>0.8 | (125)<br>100.0 |
|       | 여성      | (빈도)<br>%            | (35)<br>20.0          | (68)<br>38.9       | (64)<br>36.6  | (1)<br>0.6                      | (4)<br>2.3 | (3)<br>1.7 | (175)<br>100.0 |
| 연령대   | 청년층     | (빈도)<br>%            | (41)<br>23.4          | (56)<br>32.0       | (74)<br>42.3  | -<br>-                          | (2)<br>1.1 | (2)<br>1.1 | (175)<br>100.0 |
|       | 중장년층    | (빈도)<br>%            | (25)<br>30.5          | (28)<br>34.1       | (25)<br>30.5  | (1)<br>1.2                      | (1)<br>1.2 | (2)<br>2.4 | (82)<br>100.0  |
|       | 노년층     | (빈도)<br>%            | (10)<br>23.3          | (24)<br>55.8       | (7)<br>16.3   | -<br>-                          | (2)<br>4.7 | -<br>-     | (43)<br>100.0  |
| 연령·성별 | 청년층 남성  | (빈도)<br>%            | (23)<br>30.7          | (18)<br>24.0       | (33)<br>44.0  | -<br>-                          | -<br>-     | (1)<br>1.3 | (75)<br>100.0  |
|       | 청년층 여성  | (빈도)<br>%            | (18)<br>18.0          | (38)<br>38.0       | (41)<br>41.0  | -<br>-                          | (2)<br>2.0 | (1)<br>1.0 | (100)<br>100.0 |
|       | 중장년층 남성 | (빈도)<br>%            | (12)<br>46.2          | (9)<br>34.6        | (5)<br>19.2   | -<br>-                          | -<br>-     | -<br>-     | (26)<br>100.0  |
|       | 중장년층 여성 | (빈도)<br>%            | (13)<br>23.2          | (19)<br>33.9       | (20)<br>35.7  | (1)<br>1.8                      | (1)<br>1.8 | (2)<br>3.6 | (56)<br>100.0  |
|       | 노년층 남성  | (빈도)<br>%            | (6)<br>25.0           | (13)<br>54.2       | (4)<br>16.7   | -<br>-                          | (1)<br>4.2 | -<br>-     | (24)<br>100.0  |
|       | 노년층 여성  | (빈도)<br>%            | (4)<br>21.1           | (11)<br>57.9       | (3)<br>15.8   | -<br>-                          | (1)<br>5.3 | -<br>-     | (19)<br>100.0  |
| 혼인 상태 | 기혼      | (빈도)<br>%            | (10)<br>30.3          | (14)<br>42.4       | (8)<br>24.2   | -<br>-                          | (1)<br>3.0 | -<br>-     | (33)<br>100.0  |
|       | 비혼(미혼)  | (빈도)<br>%            | (54)<br>24.1          | (82)<br>36.6       | (83)<br>37.1  | -<br>-                          | (3)<br>1.3 | (2)<br>0.9 | (224)<br>100.0 |
|       | 이혼      | (빈도)<br>%            | (9)<br>29.0           | (6)<br>19.4        | (13)<br>41.9  | (1)<br>3.2                      | -<br>-     | (2)<br>6.5 | (31)<br>100.0  |
|       | 사별      | (빈도)<br>%            | (3)<br>25.0           | (6)<br>50.0        | (2)<br>16.7   | -<br>-                          | (1)<br>8.3 | -<br>-     | (12)<br>100.0  |

6) 연락 가능한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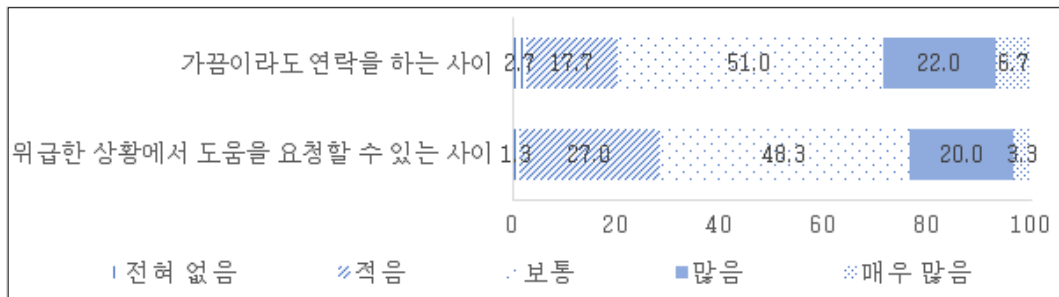
연락 가능한 대상 정도(많음+매우 많음)는 ‘가끔이라도 연락을 하는 사이’ 28.7%,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이’ 23.3%로 나타났다.

연락 가능한 대상 정도를 상황별로 살펴보면, ‘가끔이라도 연락을 하는 사이’는 5점 평균 3.12이며, 많음 28.7%, 보통 51.0%, 적음 20.3%,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이’는 5점 평균 2.97이며, 많음 23.3%, 보통 48.3%, 적음 28.3%로 나타났다.

표 51 연락 가능한 대상

| 구분                       | 5점 평균     | 5점 척도 |            |              |               |              | 합계          |                |
|--------------------------|-----------|-------|------------|--------------|---------------|--------------|-------------|----------------|
|                          |           | 전혀 없음 | 적음         | 보통           | 많음            | 매우 많음        |             |                |
| 가끔이라도 연락을 하는 사이          | (빈도)<br>% | 3.12  | (8)<br>2.7 | (53)<br>17.7 | (153)<br>51.0 | (66)<br>22.0 | (20)<br>6.7 | (300)<br>100.0 |
|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이 | (빈도)<br>% | 2.97  | (4)<br>1.3 | (81)<br>27.0 | (145)<br>48.3 | (60)<br>20.0 | (10)<br>3.3 | (300)<br>100.0 |

그림 16 연락 가능한 대상 단위: %



가끔이라도 연락을 하는 사이 ‘많음’ 비율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 30.9%, 남성 25.6%, 연령대별로는 노년층 32.6%, 청년층 32.0%, 중장년층 19.5%, 연령·성별로는 노년층 남성 45.8%, 청년층 여성 38.0%, 청년층 남성 24.0%, 중장년층 여성 23.2%, 노년층 여성 15.8%, 중장년층 남성 11.5%, 혼인상태별로는 기혼 36.4%, 비혼(미혼) 29.9%, 사별 25.0%, 이혼 12.9%로 나타났다.

표 52 응답자 특성별 - [연락 가능한 대상] 가끔이라도 연락을 하는 사이

| 구분        |          | 5점<br>평균  | 5점 척도     |             |              |               |              | 합계           |                |
|-----------|----------|-----------|-----------|-------------|--------------|---------------|--------------|--------------|----------------|
|           |          |           | 전혀<br>없음  | 적음          | 보통           | 많음            | 매우<br>많음     |              |                |
| 전체        |          | (빈도)<br>% | 3.12      | (8)<br>2.7  | (53)<br>17.7 | (153)<br>51.0 | (66)<br>22.0 | (20)<br>6.7  | (300)<br>100.0 |
| 성별        | 남성       | (빈도)<br>% | 3.06      | (5)<br>4.0  | (21)<br>16.8 | (67)<br>53.6  | (25)<br>20.0 | (7)<br>5.6   | (125)<br>100.0 |
|           | 여성       | (빈도)<br>% | 3.17      | (3)<br>1.7  | (32)<br>18.3 | (86)<br>49.1  | (41)<br>23.4 | (13)<br>7.4  | (175)<br>100.0 |
| 연령대       | 청년층      | (빈도)<br>% | 3.22      | (4)<br>2.3  | (25)<br>14.3 | (90)<br>51.4  | (40)<br>22.9 | (16)<br>9.1  | (175)<br>100.0 |
|           | 중장년층     | (빈도)<br>% | 2.91      | (4)<br>4.9  | (19)<br>23.2 | (43)<br>52.4  | (12)<br>14.6 | (4)<br>4.9   | (82)<br>100.0  |
|           | 노년층      | (빈도)<br>% | 3.12      | -<br>-      | (9)<br>20.9  | (20)<br>46.5  | (14)<br>32.6 | -<br>-       | (43)<br>100.0  |
| 연령·<br>성별 | 청년층 남성   | (빈도)<br>% | 3.16      | (2)<br>2.7  | (8)<br>10.7  | (47)<br>62.7  | (12)<br>16.0 | (6)<br>8.0   | (75)<br>100.0  |
|           | 청년층 여성   | (빈도)<br>% | 3.27      | (2)<br>2.0  | (17)<br>17.0 | (43)<br>43.0  | (28)<br>28.0 | (10)<br>10.0 | (100)<br>100.0 |
|           | 중장년층 남성  | (빈도)<br>% | 2.62      | (3)<br>11.5 | (8)<br>30.8  | (12)<br>46.2  | (2)<br>7.7   | (1)<br>3.8   | (26)<br>100.0  |
|           | 중장년층 여성  | (빈도)<br>% | 3.05      | (1)<br>1.8  | (11)<br>19.6 | (31)<br>55.4  | (10)<br>17.9 | (3)<br>5.4   | (56)<br>100.0  |
|           | 노년층 남성   | (빈도)<br>% | 3.25      | -<br>-      | (5)<br>20.8  | (8)<br>33.3   | (11)<br>45.8 | -<br>-       | (24)<br>100.0  |
|           | 노년층 여성   | (빈도)<br>% | 2.95      | -<br>-      | (4)<br>21.1  | (12)<br>63.2  | (3)<br>15.8  | -<br>-       | (19)<br>100.0  |
|           | 혼인<br>상태 | 기혼        | (빈도)<br>% | 3.15        | (2)<br>6.1   | (4)<br>12.1   | (15)<br>45.5 | (11)<br>33.3 | (1)<br>3.0     |
|           | 비혼(미혼)   | (빈도)<br>% | 3.17      | (4)<br>1.8  | (39)<br>17.4 | (114)<br>50.9 | (49)<br>21.9 | (18)<br>8.0  | (224)<br>100.0 |
|           | 이혼       | (빈도)<br>% | 2.74      | (2)<br>6.5  | (8)<br>25.8  | (17)<br>54.8  | (4)<br>12.9  | -<br>-       | (31)<br>100.0  |
|           | 사별       | (빈도)<br>% | 3.17      | -<br>-      | (2)<br>16.7  | (7)<br>58.3   | (2)<br>16.7  | (1)<br>8.3   | (12)<br>100.0  |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이 ‘많음’ 비율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 25.6%, 여성 21.7%, 연령대별로는 노년층 44.2%, 청년층 22.9%, 중장년층 13.4%, 연령·성별로는 노년층 남성 62.5%, 청년층 여성 26.0%, 노년층 여성 21.1%, 청년층



남성 18.7%, 중장년층 여성 14.3%, 중장년층 남성 11.5%, 혼인상태별로는 기혼 30.3%, 사별 25.0%, 비혼(미혼) 22.8%, 이혼 19.4%로 나타났다.

**표 53** 응답자 특성별 - [연락 가능한 대상]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이

| 구분    |         | 5점 평균     | 5점 척도 |            |              |               |              | 합계          |                |
|-------|---------|-----------|-------|------------|--------------|---------------|--------------|-------------|----------------|
|       |         |           | 전혀 없음 | 적음         | 보통           | 많음            | 매우 많음        |             |                |
| 전체    |         | (빈도)<br>% | 2.97  | (4)<br>1.3 | (81)<br>27.0 | (145)<br>48.3 | (60)<br>20.0 | (10)<br>3.3 | (300)<br>100.0 |
| 성별    | 남성      | (빈도)<br>% | 3.01  | (1)<br>0.8 | (33)<br>26.4 | (59)<br>47.2  | (28)<br>22.4 | (4)<br>3.2  | (125)<br>100.0 |
|       | 여성      | (빈도)<br>% | 2.94  | (3)<br>1.7 | (48)<br>27.4 | (86)<br>49.1  | (32)<br>18.3 | (6)<br>3.4  | (175)<br>100.0 |
| 연령대   | 청년층     | (빈도)<br>% | 3.00  | (1)<br>0.6 | (47)<br>26.9 | (87)<br>49.7  | (31)<br>17.7 | (9)<br>5.1  | (175)<br>100.0 |
|       | 중장년층    | (빈도)<br>% | 2.72  | (3)<br>3.7 | (29)<br>35.4 | (39)<br>47.6  | (10)<br>12.2 | (1)<br>1.2  | (82)<br>100.0  |
|       | 노년층     | (빈도)<br>% | 3.33  | -<br>-     | (5)<br>11.6  | (19)<br>44.2  | (19)<br>44.2 | -<br>-      | (43)<br>100.0  |
| 연령·성별 | 청년층 남성  | (빈도)<br>% | 2.99  | -<br>-     | (19)<br>25.3 | (42)<br>56.0  | (10)<br>13.3 | (4)<br>5.3  | (75)<br>100.0  |
|       | 청년층 여성  | (빈도)<br>% | 3.01  | (1)<br>1.0 | (28)<br>28.0 | (45)<br>45.0  | (21)<br>21.0 | (5)<br>5.0  | (100)<br>100.0 |
|       | 중장년층 남성 | (빈도)<br>% | 2.58  | (1)<br>3.8 | (12)<br>46.2 | (10)<br>38.5  | (3)<br>11.5  | -<br>-      | (26)<br>100.0  |
|       | 중장년층 여성 | (빈도)<br>% | 2.79  | (2)<br>3.6 | (17)<br>30.4 | (29)<br>51.8  | (7)<br>12.5  | (1)<br>1.8  | (56)<br>100.0  |
|       | 노년층 남성  | (빈도)<br>% | 3.54  | -<br>-     | (2)<br>8.3   | (7)<br>29.2   | (15)<br>62.5 | -<br>-      | (24)<br>100.0  |
|       | 노년층 여성  | (빈도)<br>% | 3.05  | -<br>-     | (3)<br>15.8  | (12)<br>63.2  | (4)<br>21.1  | -<br>-      | (19)<br>100.0  |
| 혼인 상태 | 기혼      | (빈도)<br>% | 3.00  | (1)<br>3.0 | (8)<br>24.2  | (14)<br>42.4  | (10)<br>30.3 | -<br>-      | (33)<br>100.0  |
|       | 비혼(미혼)  | (빈도)<br>% | 2.99  | (2)<br>0.9 | (60)<br>26.8 | (111)<br>49.6 | (41)<br>18.3 | (10)<br>4.5 | (224)<br>100.0 |
|       | 이혼      | (빈도)<br>% | 2.77  | (1)<br>3.2 | (11)<br>35.5 | (13)<br>41.9  | (6)<br>19.4  | -<br>-      | (31)<br>100.0  |
|       | 사별      | (빈도)<br>% | 3.08  | -<br>-     | (2)<br>16.7  | (7)<br>58.3   | (3)<br>25.0  | -<br>-      | (12)<br>100.0  |

### 7) 지난 1년 동안 참여 경험이 있는 온·오프라인 사회적 관계 활동 여부

지난 1년 동안 참여 경험이 있는 온·오프라인 사회적 관계 활동 여부는 ‘있음’ 46.0%, ‘없음’ 54.0%로 나타났다.

| 구분 | 빈도  | %     |
|----|-----|-------|
| 있음 | 138 | 46.0  |
| 없음 | 162 | 54.0  |
| 합계 | 300 | 100.0 |

지난 1년 동안 참여 경험이 있는 온·오프라인 사회적 관계 활동 ‘있음’ 응답비율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 55.4%, 남성 32.8%, 연령대별로는 중장년층 53.7%, 청년층 46.9%, 노년층 27.9%, 연령·성별로는 중장년층 여성 60.7%, 청년층 여성 53.0%, 노년층 여성 52.6%, 청년층 남성 38.7%, 중장년층 남성 38.5%, 노년층 남성 8.3%, 혼인상태별로는 사별 58.3%, 비혼(미혼) 47.8%, 이혼 45.2%, 기혼 30.3%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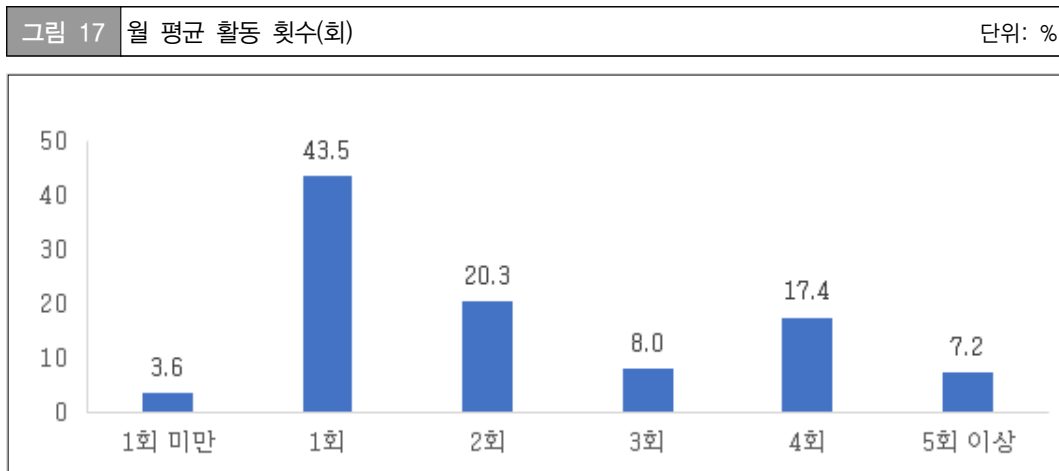
| 구분    |         | 있음                 | 없음           | 합계             |
|-------|---------|--------------------|--------------|----------------|
| 전체    |         | (빈도)<br>(138)<br>% | (162)<br>%   | (300)<br>%     |
| 성별    | 남성      | (41)<br>32.8       | (84)<br>67.2 | (125)<br>100.0 |
|       | 여성      | (97)<br>55.4       | (78)<br>44.6 | (175)<br>100.0 |
| 연령대   | 청년층     | (82)<br>46.9       | (93)<br>53.1 | (175)<br>100.0 |
|       | 중장년층    | (44)<br>53.7       | (38)<br>46.3 | (82)<br>100.0  |
|       | 노년층     | (12)<br>27.9       | (31)<br>72.1 | (43)<br>100.0  |
| 연령·성별 | 청년층 남성  | (29)<br>38.7       | (46)<br>61.3 | (75)<br>100.0  |
|       | 청년층 여성  | (53)<br>53.0       | (47)<br>47.0 | (100)<br>100.0 |
|       | 중장년층 남성 | (10)<br>38.5       | (16)<br>61.5 | (26)<br>100.0  |
|       | 중장년층 여성 | (34)<br>60.7       | (22)<br>39.3 | (56)<br>100.0  |
|       | 노년층 남성  | (2)<br>8.3         | (22)<br>91.7 | (24)<br>100.0  |
|       | 노년층 여성  | (10)<br>52.6       | (9)<br>47.4  | (19)<br>100.0  |

| 구분       |        | 있음        | 없음            | 합계            |                |
|----------|--------|-----------|---------------|---------------|----------------|
| 혼인<br>상태 | 기혼     | (빈도)<br>% | (10)<br>30.3  | (23)<br>69.7  | (33)<br>100.0  |
|          | 비혼(미혼) | (빈도)<br>% | (107)<br>47.8 | (117)<br>52.2 | (224)<br>100.0 |
|          | 이혼     | (빈도)<br>% | (14)<br>45.2  | (17)<br>54.8  | (31)<br>100.0  |
|          | 사별     | (빈도)<br>% | (7)<br>58.3   | (5)<br>41.7   | (12)<br>100.0  |

(1) 월 평균 활동 횟수(회)

참여 경험이 있는 응답자 138명의 월 평균 활동 횟수는 평균 2.64회이며, '1회 미만' 3.6%, '1회' 43.5%, '2회' 20.3%, '3회' 8.0%, '4회' 17.4%, '5회 이상' 7.2%로 나타났다.

| 표 56 (참여 경험자만) 월 평균 활동 횟수(회) |       |       |
|------------------------------|-------|-------|
| 구분                           | 빈도    | %     |
| 평균(회)                        | 2.64회 |       |
| 1회 미만                        | 5     | 3.6   |
| 1회                           | 60    | 43.5  |
| 2회                           | 28    | 20.3  |
| 3회                           | 11    | 8.0   |
| 4회                           | 24    | 17.4  |
| 5회 이상                        | 10    | 7.2   |
| 합계                           | 138   | 100.0 |



참여 경험이 있는 응답자 138명의 월 평균 활동 횟수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 2.82회, 남성 2.22회, 연령대별로는 노년층 3.00회, 청년층 2.70회, 중장년층 2.43회, 연령·성별로는 노년층 여성 3.20회, 청년층 여성 2.93회, 중장년층 여성 2.52회, 청년층 남성 2.28회, 중장년층 남성 2.10회, 노년층 남성 2.00회, 혼인상태별로는 사별 3.29회, 비혼(미혼) 2.79회, 기혼 1.85회, 이혼 1.74회로 나타났다.

| 구분    |         | 평균(회)     | 1회 미만     | 1회         | 2회           | 3회           | 4회          | 5회 이상        | 합계          |                |
|-------|---------|-----------|-----------|------------|--------------|--------------|-------------|--------------|-------------|----------------|
| 전체    |         | (빈도)<br>% | 2.64      | (5)<br>3.6 | (60)<br>43.5 | (28)<br>20.3 | (11)<br>8.0 | (24)<br>17.4 | (10)<br>7.2 | (138)<br>100.0 |
| 성별    | 남성      | (빈도)<br>% | 2.22      | (1)<br>2.4 | (19)<br>46.3 | (8)<br>19.5  | (3)<br>7.3  | (8)<br>19.5  | (2)<br>4.9  | (41)<br>100.0  |
|       | 여성      | (빈도)<br>% | 2.82      | (4)<br>4.1 | (41)<br>42.3 | (20)<br>20.6 | (8)<br>8.2  | (16)<br>16.5 | (8)<br>8.2  | (97)<br>100.0  |
| 연령대   | 청년층     | (빈도)<br>% | 2.70      | (2)<br>2.4 | (36)<br>43.9 | (18)<br>22.0 | (7)<br>8.5  | (13)<br>15.9 | (6)<br>7.3  | (82)<br>100.0  |
|       | 중장년층    | (빈도)<br>% | 2.43      | (3)<br>6.8 | (21)<br>47.7 | (6)<br>13.6  | (2)<br>4.5  | (10)<br>22.7 | (2)<br>4.5  | (44)<br>100.0  |
|       | 노년층     | (빈도)<br>% | 3.00      | -<br>-     | (3)<br>25.0  | (4)<br>33.3  | (2)<br>16.7 | (1)<br>8.3   | (2)<br>16.7 | (12)<br>100.0  |
| 연령·성별 | 청년층 남성  | (빈도)<br>% | 2.28      | (1)<br>3.4 | (12)<br>41.4 | (7)<br>24.1  | (2)<br>6.9  | (6)<br>20.7  | (1)<br>3.4  | (29)<br>100.0  |
|       | 청년층 여성  | (빈도)<br>% | 2.93      | (1)<br>1.9 | (24)<br>45.3 | (11)<br>20.8 | (5)<br>9.4  | (7)<br>13.2  | (5)<br>9.4  | (53)<br>100.0  |
|       | 중장년층 남성 | (빈도)<br>% | 2.10      | -<br>-     | (6)<br>60.0  | (1)<br>10.0  | -<br>-      | (2)<br>20.0  | (1)<br>10.0 | (10)<br>100.0  |
|       | 중장년층 여성 | (빈도)<br>% | 2.52      | (3)<br>8.8 | (15)<br>44.1 | (5)<br>14.7  | (2)<br>5.9  | (8)<br>23.5  | (1)<br>2.9  | (34)<br>100.0  |
|       | 노년층 남성  | (빈도)<br>% | 2.00      | -<br>-     | (1)<br>50.0  | -<br>-       | (1)<br>50.0 | -<br>-       | -<br>-      | (2)<br>100.0   |
|       | 노년층 여성  | (빈도)<br>% | 3.20      | -<br>-     | (2)<br>20.0  | (4)<br>40.0  | (1)<br>10.0 | (1)<br>10.0  | (2)<br>20.0 | (10)<br>100.0  |
|       | 혼인상태    | 기혼        | (빈도)<br>% | 1.85       | (1)<br>10.0  | (5)<br>50.0  | (2)<br>20.0 | -<br>-       | (1)<br>10.0 | (1)<br>10.0    |
|       | 비혼(미혼)  | (빈도)<br>% | 2.79      | (3)<br>2.8 | (46)<br>43.0 | (22)<br>20.6 | (7)<br>6.5  | (21)<br>19.6 | (8)<br>7.5  | (107)<br>100.0 |
|       | 이혼      | (빈도)<br>% | 1.74      | (1)<br>7.1 | (7)<br>50.0  | (2)<br>14.3  | (3)<br>21.4 | (1)<br>7.1   | -<br>-      | (14)<br>100.0  |
|       | 사별      | (빈도)<br>% | 3.29      | -<br>-     | (2)<br>28.6  | (2)<br>28.6  | (1)<br>14.3 | (1)<br>14.3  | (1)<br>14.3 | (7)<br>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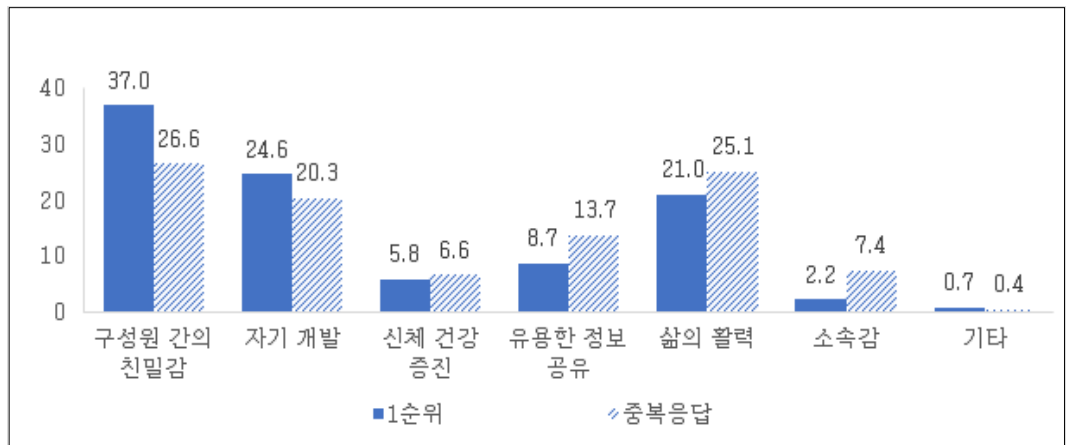
(2) 사회적 관계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참여 경험이 있는 응답자 138명의 사회적 관계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이유 1순위 응답은 ‘구성원 간의 친밀감’이 37.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자기 개발’ 24.6%, ‘삶의 활력’ 21.0%, ‘유용한 정보 공유’ 8.7%, ‘신체 건강 증진’ 5.8%, ‘소속감’ 2.2%, ‘기타’ 0.7% 순으로 나타났다.

표 58 사회적 관계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 구분         | 1순위 |       | 2순위 |       | 중복응답 합계 |       |
|------------|-----|-------|-----|-------|---------|-------|
|            | 빈도  | %     | 빈도  | %     | 빈도      | %     |
| 구성원 간의 친밀감 | 51  | 37.0  | 21  | 15.8  | 72      | 26.6  |
| 자기 개발      | 34  | 24.6  | 21  | 15.8  | 55      | 20.3  |
| 신체 건강 증진   | 8   | 5.8   | 10  | 7.5   | 18      | 6.6   |
| 유용한 정보 공유  | 12  | 8.7   | 25  | 18.8  | 37      | 13.7  |
| 삶의 활력      | 29  | 21.0  | 39  | 29.3  | 68      | 25.1  |
| 소속감        | 3   | 2.2   | 17  | 12.8  | 20      | 7.4   |
| 기타         | 1   | 0.7   | -   | -     | 1       | 0.4   |
| 합계         | 138 | 100.0 | 133 | 100.0 | 271     | 100.0 |

그림 18 사회적 관계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단위: %



1순위 응답 결과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구성원 간의 친밀감’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고, ‘자기 개발’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연령이 낮을수록 ‘구성원 간의 친밀감’이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삶의 활력’과 ‘신체 건강 증진’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은 ‘구성원 간의 친밀감(46.3%)’, ‘삶의 활력(22.0%)’, 여성은 ‘구성원 간

의 친밀감(33.0%)’, ‘자기 개발(27.8%)’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청년층은 ‘구성원 간의 친밀감(46.3%)’, ‘자기 개발(26.8%)’, ‘삶의 활력(13.4%)’, 중장년층은 ‘삶의 활력(29.5%)’, ‘구성원 간의 친밀감(27.3%)’, ‘자기 개발(20.5%)’, 노년층은 ‘삶의 활력(41.7%)’, ‘자기 개발(25.0%)’, ‘신체 건강 증진(16.7%)’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성별로는 청년층은 성별에 차이 없이 ‘구성원 간의 친밀감’, ‘자기 개발’, 중장년층 남성은 ‘삶의 활력(50.0%)’, ‘구성원 간의 친밀감(30.0%)’, 중장년층 여성은 ‘구성원 간의 친밀감(26.5%)’, ‘자기 개발’, ‘삶의 활력’(각 23.5%), 노년층 남성은 ‘삶의 활력’, ‘기타’(각 50.0%), 노년층 여성은 ‘삶의 활력(40.0%)’, ‘자기 개발(30.0%)’ 순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별로는 기혼은 ‘구성원 간의 친밀감(40.0%)’, ‘자기 개발’, ‘신체 건강 증진’(각 20.0%), 비혼(미혼)은 ‘구성원 간의 친밀감(41.1%)’, ‘자기 개발(27.1%)’, 이혼은 ‘삶의 활력(42.9%)’, ‘구성원 간의 친밀감(21.4%)’, 사별은 ‘삶의 활력(57.1%)’, ‘신체 건강 증진(28.6%)’ 순으로 나타났다.

| 구분    |         | 구성원 간의 친밀감 | 자기 개발        | 신체 건강 증진     | 유용한 정보 공유   | 삶의 활력       | 소속감          | 기타         | 합계          |                |
|-------|---------|------------|--------------|--------------|-------------|-------------|--------------|------------|-------------|----------------|
| 전체    |         | (빈도)<br>%  | (51)<br>37.0 | (34)<br>24.6 | (8)<br>5.8  | (12)<br>8.7 | (29)<br>21.0 | (3)<br>2.2 | (1)<br>0.7  | (138)<br>100.0 |
| 성별    | 남성      | (빈도)<br>%  | (19)<br>46.3 | (7)<br>17.1  | (1)<br>2.4  | (4)<br>9.8  | (9)<br>22.0  | -<br>-     | (1)<br>2.4  | (41)<br>100.0  |
|       | 여성      | (빈도)<br>%  | (32)<br>33.0 | (27)<br>27.8 | (7)<br>7.2  | (8)<br>8.2  | (20)<br>20.6 | (3)<br>3.1 | -<br>-      | (97)<br>100.0  |
| 연령대   | 청년층     | (빈도)<br>%  | (38)<br>46.3 | (22)<br>26.8 | (2)<br>2.4  | (8)<br>9.8  | (11)<br>13.4 | (1)<br>1.2 | -<br>-      | (82)<br>100.0  |
|       | 중장년층    | (빈도)<br>%  | (12)<br>27.3 | (9)<br>20.5  | (4)<br>9.1  | (4)<br>9.1  | (13)<br>29.5 | (2)<br>4.5 | -<br>-      | (44)<br>100.0  |
|       | 노년층     | (빈도)<br>%  | (1)<br>8.3   | (3)<br>25.0  | (2)<br>16.7 | -<br>-      | (5)<br>41.7  | -<br>-     | (1)<br>8.3  | (12)<br>100.0  |
| 연령·성별 | 청년층 남성  | (빈도)<br>%  | (16)<br>55.2 | (6)<br>20.7  | (1)<br>3.4  | (3)<br>10.3 | (3)<br>10.3  | -<br>-     | -<br>-      | (29)<br>100.0  |
|       | 청년층 여성  | (빈도)<br>%  | (22)<br>41.5 | (16)<br>30.2 | (1)<br>1.9  | (5)<br>9.4  | (8)<br>15.1  | (1)<br>1.9 | -<br>-      | (53)<br>100.0  |
|       | 중장년층 남성 | (빈도)<br>%  | (3)<br>30.0  | (1)<br>10.0  | -<br>-      | (1)<br>10.0 | (5)<br>50.0  | -<br>-     | -<br>-      | (10)<br>100.0  |
|       | 중장년층 여성 | (빈도)<br>%  | (9)<br>26.5  | (8)<br>23.5  | (4)<br>11.8 | (3)<br>8.8  | (8)<br>23.5  | (2)<br>5.9 | -<br>-      | (34)<br>100.0  |
|       | 노년층 남성  | (빈도)<br>%  | -<br>-       | -<br>-       | -<br>-      | -<br>-      | (1)<br>50.0  | -<br>-     | (1)<br>50.0 | (2)<br>100.0   |
|       | 노년층 여성  | (빈도)<br>%  | (1)<br>10.0  | (3)<br>30.0  | (2)<br>20.0 | -<br>-      | (4)<br>40.0  | -<br>-     | -<br>-      | (10)<br>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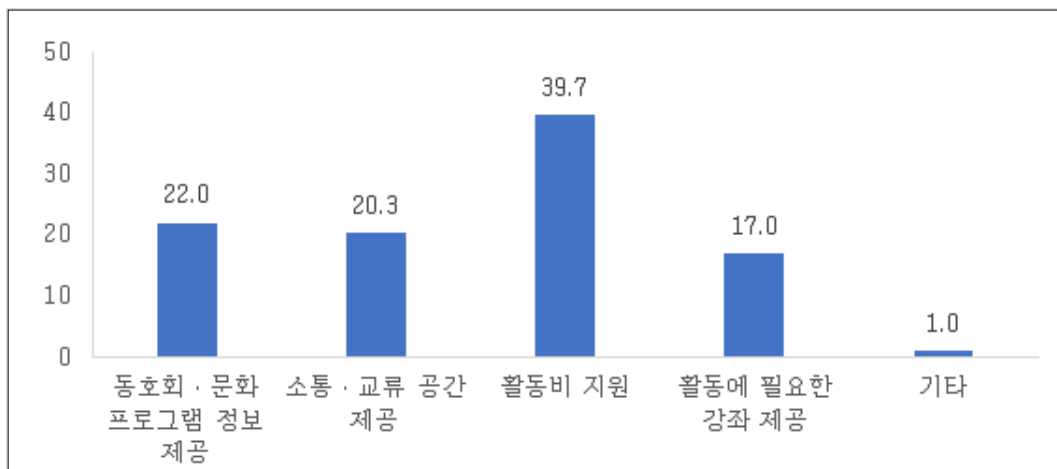
| 구분       |        | 구성원<br>간의<br>친밀감          | 자기<br>개발     | 신체<br>건강<br>증진 | 유용한<br>정보<br>공유 | 삶의<br>활력     | 소속감        | 기타         | 합계             |
|----------|--------|---------------------------|--------------|----------------|-----------------|--------------|------------|------------|----------------|
| 혼인<br>상태 | 기혼     | (빈도)<br>%<br>(4)<br>40.0  | (2)<br>20.0  | (2)<br>20.0    | (1)<br>10.0     | (1)<br>10.0  | -<br>-     | -<br>-     | (10)<br>100.0  |
|          | 비혼(미혼) | (빈도)<br>%<br>(44)<br>41.1 | (29)<br>27.1 | (2)<br>1.9     | (11)<br>10.3    | (18)<br>16.8 | (3)<br>2.8 | -<br>-     | (107)<br>100.0 |
|          | 이혼     | (빈도)<br>%<br>(3)<br>21.4  | (2)<br>14.3  | (2)<br>14.3    | -<br>-          | (6)<br>42.9  | -<br>-     | (1)<br>7.1 | (14)<br>100.0  |
|          | 사별     | (빈도)<br>%<br>-<br>-       | (1)<br>14.3  | (2)<br>28.6    | -<br>-          | (4)<br>57.1  | -<br>-     | -<br>-     | (7)<br>100.0   |

8) 사회적 관계 활동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사회적 관계 활동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활동비 지원’이 39.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동호회·문화프로그램 정보 제공’ 22.0%, ‘소통·교류 공간 제공’ 20.3%, ‘활동에 필요한 강좌 제공’ 17.0%, ‘기타’ 1.0% 순으로 나타났다.

| 구분               | 빈도  | %     |
|------------------|-----|-------|
| 동호회·문화프로그램 정보 제공 | 66  | 22.0  |
| 소통·교류 공간 제공      | 61  | 20.3  |
| 활동비 지원           | 119 | 39.7  |
| 활동에 필요한 강좌 제공    | 51  | 17.0  |
| 기타               | 3   | 1.0   |
| 합계               | 300 | 100.0 |

그림 19 사회적 관계 활동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단위: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활동비 지원’과 ‘소통·교류 공간 제공’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고, ‘활동에 필요한 강좌 제공’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연령이 낮을수록 ‘동호회·문화프로그램 정보 제공’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활동비 지원(44.8%)’, ‘소통·교류 공간 제공(24.0%)’, 여성은 ‘활동비 지원(36.0%)’, ‘활동에 필요한 강좌 제공(22.9%)’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청년층은 ‘활동비 지원(41.7%)’, ‘동호회·문화프로그램 정보 제공(26.3%)’, 중장년층은 ‘활동비 지원(37.8%)’, ‘활동에 필요한 강좌 제공(25.6%)’, 노년층은 ‘활동비 지원(34.9%)’, ‘소통·교류 공간 제공(30.2%)’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성별로는 청년층과 중장년층은 성별에 차이없이 활동비 지원’에 응답이 높았던 반면, 노년층 남성은 ‘활동비 지원(50.0%)’, ‘소통·교류 공간 제공(25.0%)’, 노년층 여성은 ‘소통·교류 공간 제공(36.8%)’, ‘활동에 필요한 강좌 제공(26.3%)’ 순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별로는 기혼은 ‘활동비 지원(42.4%)’, ‘소통·교류 공간 제공(21.2%)’, 비혼(미혼)은 ‘활동비 지원(42.0%)’, ‘동호회·문화프로그램 정보 제공(22.8%)’, 이혼은 ‘활동비 지원(32.3%)’, ‘소통·교류 공간 제공(29.0%)’, 사별은 ‘소통·교류 공간 제공(41.7%)’, ‘활동에 필요한 강좌 제공(33.3%)’ 순으로 나타났다.

**표 61** 응답자 특성별 - 사회적 관계 활동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 구분    |         | 동호회·문화프로그램 정보 제공 | 소통·교류 공간 제공  | 활동비 지원       | 활동에 필요한 강좌 제공 | 기타           | 합계         |                |
|-------|---------|------------------|--------------|--------------|---------------|--------------|------------|----------------|
| 전체    |         | (빈도)<br>%        | (66)<br>22.0 | (61)<br>20.3 | (119)<br>39.7 | (51)<br>17.0 | (3)<br>1.0 | (300)<br>100.0 |
| 성별    | 남성      | (빈도)<br>%        | (27)<br>21.6 | (30)<br>24.0 | (56)<br>44.8  | (11)<br>8.8  | (1)<br>0.8 | (125)<br>100.0 |
|       | 여성      | (빈도)<br>%        | (39)<br>22.3 | (31)<br>17.7 | (63)<br>36.0  | (40)<br>22.9 | (2)<br>1.1 | (175)<br>100.0 |
| 연령대   | 청년층     | (빈도)<br>%        | (46)<br>26.3 | (33)<br>18.9 | (73)<br>41.7  | (21)<br>12.0 | (2)<br>1.1 | (175)<br>100.0 |
|       | 중장년층    | (빈도)<br>%        | (14)<br>17.1 | (15)<br>18.3 | (31)<br>37.8  | (21)<br>25.6 | (1)<br>1.2 | (82)<br>100.0  |
|       | 노년층     | (빈도)<br>%        | (6)<br>14.0  | (13)<br>30.2 | (15)<br>34.9  | (9)<br>20.9  | -<br>-     | (43)<br>100.0  |
| 연령·성별 | 청년층 남성  | (빈도)<br>%        | (21)<br>28.0 | (19)<br>25.3 | (31)<br>41.3  | (4)<br>5.3   | -<br>-     | (75)<br>100.0  |
|       | 청년층 여성  | (빈도)<br>%        | (25)<br>25.0 | (14)<br>14.0 | (42)<br>42.0  | (17)<br>17.0 | (2)<br>2.0 | (100)<br>100.0 |
|       | 중장년층 남성 | (빈도)<br>%        | (4)<br>15.4  | (5)<br>19.2  | (13)<br>50.0  | (3)<br>11.5  | (1)<br>3.8 | (26)<br>100.0  |



| 구분       |         | 동호회·<br>문화프로그램<br>정보 제공 | 소통·교류<br>공간 제공 | 활동비<br>지원    | 활동에<br>필요한<br>강좌 제공 | 기타           | 합계         |                |
|----------|---------|-------------------------|----------------|--------------|---------------------|--------------|------------|----------------|
|          | 중장년층 여성 | (빈도)<br>%               | (10)<br>17.9   | (10)<br>17.9 | (18)<br>32.1        | (18)<br>32.1 | -<br>-     | (56)<br>100.0  |
|          | 노년층 남성  | (빈도)<br>%               | (2)<br>8.3     | (6)<br>25.0  | (12)<br>50.0        | (4)<br>16.7  | -<br>-     | (24)<br>100.0  |
|          | 노년층 여성  | (빈도)<br>%               | (4)<br>21.1    | (7)<br>36.8  | (3)<br>15.8         | (5)<br>26.3  | -<br>-     | (19)<br>100.0  |
|          | 기혼      | (빈도)<br>%               | (6)<br>18.2    | (7)<br>21.2  | (14)<br>42.4        | (6)<br>18.2  | -<br>-     | (33)<br>100.0  |
| 혼인<br>상태 | 비혼(미혼)  | (빈도)<br>%               | (51)<br>22.8   | (40)<br>17.9 | (94)<br>42.0        | (36)<br>16.1 | (3)<br>1.3 | (224)<br>100.0 |
|          | 이혼      | (빈도)<br>%               | (7)<br>22.6    | (9)<br>29.0  | (10)<br>32.3        | (5)<br>16.1  | -<br>-     | (31)<br>100.0  |
|          | 사별      | (빈도)<br>%               | (2)<br>16.7    | (5)<br>41.7  | (1)<br>8.3          | (4)<br>33.3  | -<br>-     | (12)<br>100.0  |

## 5. 프로그램 요구도

### 1) 프로그램 필요성

프로그램의 필요함 정도(필요함+매우 필요함)를 건강, 주거, 여가, 경제,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망으로 각 영역에 따라 살펴보면, 건강 영역의 세부 프로그램의 필요도는 ‘신체운동 프로그램’ 72.0%, ‘요리 프로그램(반찬 만들기 등)’ 64.0%, ‘스트레스 완화 등 정신건강 회복 프로그램’ 60.0%, ‘건강관리 교육(영양교육 등)’ 54.4%로 나타났다.

주거 영역의 세부 프로그램의 필요도는 ‘부동산 및 재무 교육(부동산계약, 전입신고, 대출업무 등)’ 64.4%, 주거공간 개선(간단한 수리, 정리수납 등) 60.3%, ‘주거안전 지원(범죄예방·자기방어교육 등)’ 59.3%, ‘주거공동체 지원(지역 공터 텃밭 가꾸기, 우편물 및 택배 보관 등)’ 48.0%로 나타났다.

여가 영역의 세부 프로그램의 필요도는 ‘관람·감상활동(영화, 공연, 스포츠, 전시 등)’ 65.7%, 취미·자기개발 활동(그림, 악기, 교양강좌 등) 62.7%, ‘관광활동(여행, 나들이 등)’ 61.7%, ‘봉사활동’ 45.0%로 나타났다.

경제 영역의 세부 프로그램의 필요도는 ‘재테크 및 예금·적금 운용’ 63.3%, 노후(자금)설계 교육 61.4%, ‘금융정보 관련 교육(대출 및 부채관리, 신용등급관리, 주거대출 은행사용법 등)’ 59.7%, ‘소비·지출 관리 교육’ 58.3%로 나타났다.

가족관계 영역의 세부 프로그램의 필요도는 ‘가족문화프로그램(가족과 함께하는 여가)’ 41.0%, ‘의사소통교육’ 39.4%, ‘가족상담’ 39.0%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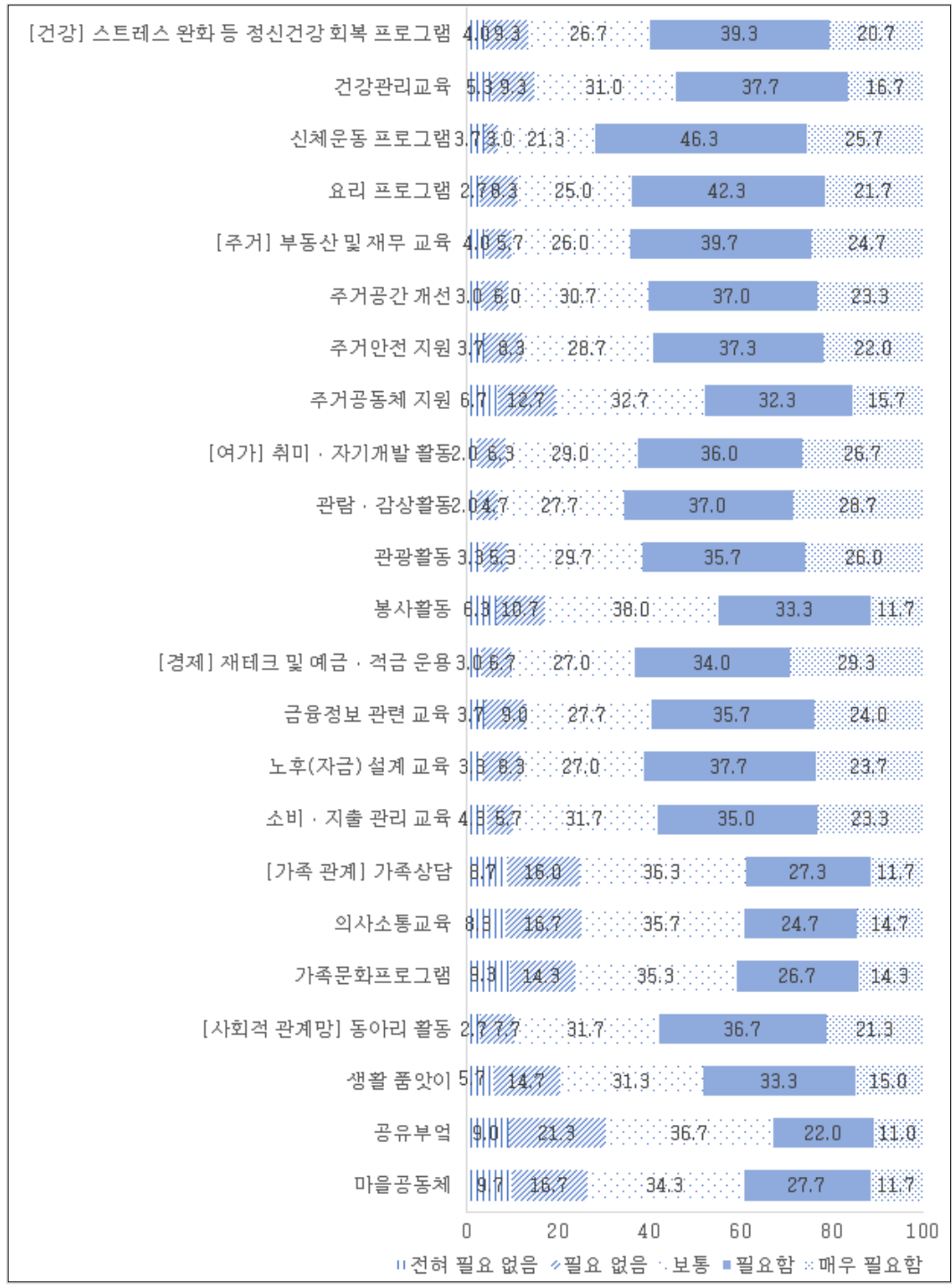
사회적 관계망 영역의 세부 프로그램의 필요도는 ‘동아리 활동(취미·여가, 자기개발, 봉사 등)’ 58.0%, ‘생활 품앗이(병원동행, 식재료 공동 구입 등)’ 48.3%, ‘마을공동체(나눔 텃밭 조성, 치안활동 등)’ 39.4%, ‘공유부엌(공동 부엌공간을 활용한 함께 요리)’ 33.0%로 나타났다.

표 62 프로그램 필요성

| 구분 | 5점 평균                         | 5점 척도    |             |             |              |               | 합계           |                |
|----|-------------------------------|----------|-------------|-------------|--------------|---------------|--------------|----------------|
|    |                               | 전혀 필요 없음 | 필요 없음       | 보통          | 필요 함         | 매우 필요 함       |              |                |
| 건강 | 스트레스 완화 등 정신건강 회복 프로그램 (빈도 %) | 3.63     | (12)<br>4.0 | (28)<br>9.3 | (80)<br>26.7 | (118)<br>39.3 | (62)<br>20.7 | (300)<br>100.0 |
|    | 건강관리교육(영양교육 등) (빈도 %)         | 3.51     | (16)<br>5.3 | (28)<br>9.3 | (93)<br>31.0 | (113)<br>37.7 | (50)<br>16.7 | (300)<br>100.0 |
|    | 신체운동 프로그램(요가, 등산 등) (빈도 %)    | 3.87     | (11)<br>3.7 | (9)<br>3.0  | (64)<br>21.3 | (139)<br>46.3 | (77)<br>25.7 | (300)<br>100.0 |
|    | 요리 프로그램(반찬 만들기 등) (빈도 %)      | 3.72     | (8)<br>2.7  | (25)<br>8.3 | (75)<br>25.0 | (127)<br>42.3 | (65)<br>21.7 | (300)<br>100.0 |

| 구분         |  | 5점<br>평균  | 5점 척도          |             |              |               |               | 합계           |                |
|------------|--|-----------|----------------|-------------|--------------|---------------|---------------|--------------|----------------|
|            |  |           | 전혀<br>필요<br>없음 | 필요<br>없음    | 보통           | 필요<br>함       | 매우<br>필요<br>함 |              |                |
| 주거         | 부동산 및 재무 교육(부동산계약, 전입신고, 대출업무 등)             | (빈도)<br>% | 3.75           | (12)<br>4.0 | (17)<br>5.7  | (78)<br>26.0  | (119)<br>39.7 | (74)<br>24.7 | (300)<br>100.0 |
|            | 주거공간 개선(간단한 수리, 정리수납 등)                      | (빈도)<br>% | 3.72           | (9)<br>3.0  | (18)<br>6.0  | (92)<br>30.7  | (111)<br>37.0 | (70)<br>23.3 | (300)<br>100.0 |
|            | 주거안전 지원(범죄예방·자기방어교육 등)                       | (빈도)<br>% | 3.66           | (11)<br>3.7 | (25)<br>8.3  | (86)<br>28.7  | (112)<br>37.3 | (66)<br>22.0 | (300)<br>100.0 |
|            | 주거공동체 지원(지역 공터 텃밭 가꾸기, 우편물 및 택배 보관 등)        | (빈도)<br>% | 3.38           | (20)<br>6.7 | (38)<br>12.7 | (98)<br>32.7  | (97)<br>32.3  | (47)<br>15.7 | (300)<br>100.0 |
| 여가         | 취미·자기개발 활동(그림, 악기, 교양강좌 등)                   | (빈도)<br>% | 3.79           | (6)<br>2.0  | (19)<br>6.3  | (87)<br>29.0  | (108)<br>36.0 | (80)<br>26.7 | (300)<br>100.0 |
|            | 관람·감상활동(영화, 공연, 스포츠, 전시 등)                   | (빈도)<br>% | 3.86           | (6)<br>2.0  | (14)<br>4.7  | (83)<br>27.7  | (111)<br>37.0 | (86)<br>28.7 | (300)<br>100.0 |
|            | 관광활동(여행, 나들이 등)                              | (빈도)<br>% | 3.76           | (10)<br>3.3 | (16)<br>5.3  | (89)<br>29.7  | (107)<br>35.7 | (78)<br>26.0 | (300)<br>100.0 |
|            | 봉사활동   | (빈도)<br>% | 3.33           | (19)<br>6.3 | (32)<br>10.7 | (114)<br>38.0 | (100)<br>33.3 | (35)<br>11.7 | (300)<br>100.0 |
| 경제         | 재테크 및 예금·적금 운용                               | (빈도)<br>% | 3.80           | (9)<br>3.0  | (20)<br>6.7  | (81)<br>27.0  | (102)<br>34.0 | (88)<br>29.3 | (300)<br>100.0 |
|            | 금융정보 관련 교육(대출 및 부채관리, 신용등급관리, 주거대출 은행 사용법 등) | (빈도)<br>% | 3.67           | (11)<br>3.7 | (27)<br>9.0  | (83)<br>27.7  | (107)<br>35.7 | (72)<br>24.0 | (300)<br>100.0 |
|            | 노후(자금) 설계 교육                                 | (빈도)<br>% | 3.70           | (10)<br>3.3 | (25)<br>8.3  | (81)<br>27.0  | (113)<br>37.7 | (71)<br>23.7 | (300)<br>100.0 |
|            | 소비·지출 관리 교육                                  | (빈도)<br>% | 3.67           | (13)<br>4.3 | (17)<br>5.7  | (95)<br>31.7  | (105)<br>35.0 | (70)<br>23.3 | (300)<br>100.0 |
| 가족<br>관계   | 가족상담   | (빈도)<br>% | 3.17           | (26)<br>8.7 | (48)<br>16.0 | (109)<br>36.3 | (82)<br>27.3  | (35)<br>11.7 | (300)<br>100.0 |
|            | 의사소통교육                                       | (빈도)<br>% | 3.21           | (25)<br>8.3 | (50)<br>16.7 | (107)<br>35.7 | (74)<br>24.7  | (44)<br>14.7 | (300)<br>100.0 |
|            | 가족문화프로그램(가족과 함께하는 여가)                        | (빈도)<br>% | 3.22           | (28)<br>9.3 | (43)<br>14.3 | (106)<br>35.3 | (80)<br>26.7  | (43)<br>14.3 | (300)<br>100.0 |
| 사회적<br>관계망 | 동아리 활동(취미·여가, 자기개발, 봉사 등)                    | (빈도)<br>% | 3.66           | (8)<br>2.7  | (23)<br>7.7  | (95)<br>31.7  | (110)<br>36.7 | (64)<br>21.3 | (300)<br>100.0 |
|            | 생활 품앗이(병원동행, 식재료 공동 구입 등)                    | (빈도)<br>% | 3.37           | (17)<br>5.7 | (44)<br>14.7 | (94)<br>31.3  | (100)<br>33.3 | (45)<br>15.0 | (300)<br>100.0 |
|            | 공유부역(공동 부역공간을 활용한 함께 요리)                     | (빈도)<br>% | 3.05           | (27)<br>9.0 | (64)<br>21.3 | (110)<br>36.7 | (66)<br>22.0  | (33)<br>11.0 | (300)<br>100.0 |
|            | 마을공동체(나눔 텃밭 조성, 치안활동 등)                      | (빈도)<br>% | 3.15           | (29)<br>9.7 | (50)<br>16.7 | (103)<br>34.3 | (83)<br>27.7  | (35)<br>11.7 | (300)<br>100.0 |

그림 20 프로그램 필요성 단위: %



(1) 건강

스트레스 완화 등 정신건강 회복 프로그램 ‘필요함’ 비율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 71.4%, 연령대별로는 중장년층이 67.1%, 연령·성별로는 중장년층 여성 75.0%, 혼인상태별로는 비혼(미혼) 62.1%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 구분    |         | 5점 평균     | 5점 척도    |             |              |              |               | 합계           |                |
|-------|---------|-----------|----------|-------------|--------------|--------------|---------------|--------------|----------------|
|       |         |           | 전혀 필요 없음 | 필요 없음       | 보통           | 필요함          | 매우 필요함        |              |                |
| 전체    |         | (빈도)<br>% | 3.63     | (12)<br>4.0 | (28)<br>9.3  | (80)<br>26.7 | (118)<br>39.3 | (62)<br>20.7 | (300)<br>100.0 |
| 성별    | 남성      | (빈도)<br>% | 3.31     | (7)<br>5.6  | (14)<br>11.2 | (49)<br>39.2 | (43)<br>34.4  | (12)<br>9.6  | (125)<br>100.0 |
|       | 여성      | (빈도)<br>% | 3.86     | (5)<br>2.9  | (14)<br>8.0  | (31)<br>17.7 | (75)<br>42.9  | (50)<br>28.6 | (175)<br>100.0 |
| 연령대   | 청년층     | (빈도)<br>% | 3.63     | (10)<br>5.7 | (17)<br>9.7  | (40)<br>22.9 | (69)<br>39.4  | (39)<br>22.3 | (175)<br>100.0 |
|       | 중장년층    | (빈도)<br>% | 3.82     | (1)<br>1.2  | (5)<br>6.1   | (21)<br>25.6 | (36)<br>43.9  | (19)<br>23.2 | (82)<br>100.0  |
|       | 노년층     | (빈도)<br>% | 3.30     | (1)<br>2.3  | (6)<br>14.0  | (19)<br>44.2 | (13)<br>30.2  | (4)<br>9.3   | (43)<br>100.0  |
| 연령·성별 | 청년층 남성  | (빈도)<br>% | 3.32     | (6)<br>8.0  | (8)<br>10.7  | (25)<br>33.3 | (28)<br>37.3  | (8)<br>10.7  | (75)<br>100.0  |
|       | 청년층 여성  | (빈도)<br>% | 3.86     | (4)<br>4.0  | (9)<br>9.0   | (15)<br>15.0 | (41)<br>41.0  | (31)<br>31.0 | (100)<br>100.0 |
|       | 중장년층 남성 | (빈도)<br>% | 3.54     | -<br>-      | (2)<br>7.7   | (11)<br>42.3 | (10)<br>38.5  | (3)<br>11.5  | (26)<br>100.0  |
|       | 중장년층 여성 | (빈도)<br>% | 3.95     | (1)<br>1.8  | (3)<br>5.4   | (10)<br>17.9 | (26)<br>46.4  | (16)<br>28.6 | (56)<br>100.0  |
|       | 노년층 남성  | (빈도)<br>% | 3.04     | (1)<br>4.2  | (4)<br>16.7  | (13)<br>54.2 | (5)<br>20.8   | (1)<br>4.2   | (24)<br>100.0  |
|       | 노년층 여성  | (빈도)<br>% | 3.63     | -<br>-      | (2)<br>10.5  | (6)<br>31.6  | (8)<br>42.1   | (3)<br>15.8  | (19)<br>100.0  |
| 혼인 상태 | 기혼      | (빈도)<br>% | 3.33     | (2)<br>6.1  | (4)<br>12.1  | (11)<br>33.3 | (13)<br>39.4  | (3)<br>9.1   | (33)<br>100.0  |
|       | 비혼(미혼)  | (빈도)<br>% | 3.67     | (9)<br>4.0  | (19)<br>8.5  | (57)<br>25.4 | (91)<br>40.6  | (48)<br>21.4 | (224)<br>100.0 |
|       | 이혼      | (빈도)<br>% | 3.65     | (1)<br>3.2  | (4)<br>12.9  | (7)<br>22.6  | (12)<br>38.7  | (7)<br>22.6  | (31)<br>100.0  |
|       | 사별      | (빈도)<br>% | 3.75     | -<br>-      | (1)<br>8.3   | (5)<br>41.7  | (2)<br>16.7   | (4)<br>33.3  | (12)<br>100.0  |

건강관리교육(영양교육 등) ‘필요함’ 비율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 60.0%, 연령대별로는 노년층 65.1%, 연령·성별로는 노년층 남성 70.8%, 혼인상태별로는 이혼 61.3%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 구분    |         | 5점 평균     | 5점 척도    |             |              |              |               | 합계           |                |
|-------|---------|-----------|----------|-------------|--------------|--------------|---------------|--------------|----------------|
|       |         |           | 전혀 필요 없음 | 필요 없음       | 보통           | 필요함          | 매우 필요함        |              |                |
| 전체    |         | (빈도)<br>% | 3.51     | (16)<br>5.3 | (28)<br>9.3  | (93)<br>31.0 | (113)<br>37.7 | (50)<br>16.7 | (300)<br>100.0 |
| 성별    | 남성      | (빈도)<br>% | 3.35     | (7)<br>5.6  | (14)<br>11.2 | (46)<br>36.8 | (44)<br>35.2  | (14)<br>11.2 | (125)<br>100.0 |
|       | 여성      | (빈도)<br>% | 3.62     | (9)<br>5.1  | (14)<br>8.0  | (47)<br>26.9 | (69)<br>39.4  | (36)<br>20.6 | (175)<br>100.0 |
| 연령대   | 청년층     | (빈도)<br>% | 3.42     | (13)<br>7.4 | (17)<br>9.7  | (56)<br>32.0 | (61)<br>34.9  | (28)<br>16.0 | (175)<br>100.0 |
|       | 중장년층    | (빈도)<br>% | 3.61     | (1)<br>1.2  | (9)<br>11.0  | (26)<br>31.7 | (31)<br>37.8  | (15)<br>18.3 | (82)<br>100.0  |
|       | 노년층     | (빈도)<br>% | 3.67     | (2)<br>4.7  | (2)<br>4.7   | (11)<br>25.6 | (21)<br>48.8  | (7)<br>16.3  | (43)<br>100.0  |
| 연령·성별 | 청년층 남성  | (빈도)<br>% | 3.28     | (6)<br>8.0  | (8)<br>10.7  | (29)<br>38.7 | (23)<br>30.7  | (9)<br>12.0  | (75)<br>100.0  |
|       | 청년층 여성  | (빈도)<br>% | 3.53     | (7)<br>7.0  | (9)<br>9.0   | (27)<br>27.0 | (38)<br>38.0  | (19)<br>19.0 | (100)<br>100.0 |
|       | 중장년층 남성 | (빈도)<br>% | 3.27     | -<br>-      | (4)<br>15.4  | (13)<br>50.0 | (7)<br>26.9   | (2)<br>7.7   | (26)<br>100.0  |
|       | 중장년층 여성 | (빈도)<br>% | 3.77     | (1)<br>1.8  | (5)<br>8.9   | (13)<br>23.2 | (24)<br>42.9  | (13)<br>23.2 | (56)<br>100.0  |
|       | 노년층 남성  | (빈도)<br>% | 3.67     | (1)<br>4.2  | (2)<br>8.3   | (4)<br>16.7  | (14)<br>58.3  | (3)<br>12.5  | (24)<br>100.0  |
|       | 노년층 여성  | (빈도)<br>% | 3.68     | (1)<br>5.3  | -<br>-       | (7)<br>36.8  | (7)<br>36.8   | (4)<br>21.1  | (19)<br>100.0  |
| 혼인 상태 | 기혼      | (빈도)<br>% | 3.52     | (3)<br>9.1  | (2)<br>6.1   | (8)<br>24.2  | (15)<br>45.5  | (5)<br>15.2  | (33)<br>100.0  |
|       | 비혼(미혼)  | (빈도)<br>% | 3.47     | (12)<br>5.4 | (23)<br>10.3 | (72)<br>32.1 | (82)<br>36.6  | (35)<br>15.6 | (224)<br>100.0 |
|       | 이혼      | (빈도)<br>% | 3.65     | (1)<br>3.2  | (3)<br>9.7   | (8)<br>25.8  | (13)<br>41.9  | (6)<br>19.4  | (31)<br>100.0  |
|       | 사별      | (빈도)<br>% | 3.92     | -<br>-      | -<br>-       | (5)<br>41.7  | (3)<br>25.0   | (4)<br>33.3  | (12)<br>100.0  |

신체운동 프로그램(요가, 등산 등) ‘필요함’ 비율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 82.3%, 연령대별로는 중장년층 76.8%, 연령·성별로는 중장년층 여성 85.7%, 혼인상태별로는 이혼 77.4%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 구분    |         | 5점 평균     | 5점 척도    |             |             |              |               | 합계           |                |
|-------|---------|-----------|----------|-------------|-------------|--------------|---------------|--------------|----------------|
|       |         |           | 전혀 필요 없음 | 필요 없음       | 보통          | 필요함          | 매우 필요함        |              |                |
| 전체    |         | (빈도)<br>% | 3.87     | (11)<br>3.7 | (9)<br>3.0  | (64)<br>21.3 | (139)<br>46.3 | (77)<br>25.7 | (300)<br>100.0 |
| 성별    | 남성      | (빈도)<br>% | 3.54     | (5)<br>4.0  | (8)<br>6.4  | (40)<br>32.0 | (59)<br>47.2  | (13)<br>10.4 | (125)<br>100.0 |
|       | 여성      | (빈도)<br>% | 4.11     | (6)<br>3.4  | (1)<br>0.6  | (24)<br>13.7 | (80)<br>45.7  | (64)<br>36.6 | (175)<br>100.0 |
| 연령대   | 청년층     | (빈도)<br>% | 3.89     | (9)<br>5.1  | (4)<br>2.3  | (32)<br>18.3 | (82)<br>46.9  | (48)<br>27.4 | (175)<br>100.0 |
|       | 중장년층    | (빈도)<br>% | 4.00     | (1)<br>1.2  | (2)<br>2.4  | (16)<br>19.5 | (40)<br>48.8  | (23)<br>28.0 | (82)<br>100.0  |
|       | 노년층     | (빈도)<br>% | 3.56     | (1)<br>2.3  | (3)<br>7.0  | (16)<br>37.2 | (17)<br>39.5  | (6)<br>14.0  | (43)<br>100.0  |
| 연령·성별 | 청년층 남성  | (빈도)<br>% | 3.61     | (4)<br>5.3  | (3)<br>4.0  | (22)<br>29.3 | (35)<br>46.7  | (11)<br>14.7 | (75)<br>100.0  |
|       | 청년층 여성  | (빈도)<br>% | 4.10     | (5)<br>5.0  | (1)<br>1.0  | (10)<br>10.0 | (47)<br>47.0  | (37)<br>37.0 | (100)<br>100.0 |
|       | 중장년층 남성 | (빈도)<br>% | 3.50     | (1)<br>3.8  | (2)<br>7.7  | (8)<br>30.8  | (13)<br>50.0  | (2)<br>7.7   | (26)<br>100.0  |
|       | 중장년층 여성 | (빈도)<br>% | 4.23     | -<br>-      | -<br>-      | (8)<br>14.3  | (27)<br>48.2  | (21)<br>37.5 | (56)<br>100.0  |
|       | 노년층 남성  | (빈도)<br>% | 3.33     | -<br>-      | (3)<br>12.5 | (10)<br>41.7 | (11)<br>45.8  | -<br>-       | (24)<br>100.0  |
|       | 노년층 여성  | (빈도)<br>% | 3.84     | (1)<br>5.3  | -<br>-      | (6)<br>31.6  | (6)<br>31.6   | (6)<br>31.6  | (19)<br>100.0  |
| 혼인상태  | 기혼      | (빈도)<br>% | 3.30     | (4)<br>12.1 | (2)<br>6.1  | (10)<br>30.3 | (14)<br>42.4  | (3)<br>9.1   | (33)<br>100.0  |
|       | 비혼(미혼)  | (빈도)<br>% | 3.93     | (7)<br>3.1  | (5)<br>2.2  | (45)<br>20.1 | (106)<br>47.3 | (61)<br>27.2 | (224)<br>100.0 |
|       | 이혼      | (빈도)<br>% | 3.97     | -<br>-      | (2)<br>6.5  | (5)<br>16.1  | (16)<br>51.6  | (8)<br>25.8  | (31)<br>100.0  |
|       | 사별      | (빈도)<br>% | 4.08     | -<br>-      | -<br>-      | (4)<br>33.3  | (3)<br>25.0   | (5)<br>41.7  | (12)<br>100.0  |

요리 프로그램(반찬 만들기 등) ‘필요함’ 비율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 69.7%, 연령대별로는 청년층 66.3%, 연령·성별로는 청년층 여성 77.0%, 혼인상태별로는 비혼(미혼) 66.5%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 구분        |         | 5점 평균     | 5점 척도          |            |              |              |               | 합계           |                |
|-----------|---------|-----------|----------------|------------|--------------|--------------|---------------|--------------|----------------|
|           |         |           | 전혀<br>필요<br>없음 | 필요<br>없음   | 보통           | 필요함          | 매우<br>필요함     |              |                |
| 전체        |         | (빈도)<br>% | 3.72           | (8)<br>2.7 | (25)<br>8.3  | (75)<br>25.0 | (127)<br>42.3 | (65)<br>21.7 | (300)<br>100.0 |
| 성별        | 남성      | (빈도)<br>% | 3.53           | (5)<br>4.0 | (13)<br>10.4 | (37)<br>29.6 | (51)<br>40.8  | (19)<br>15.2 | (125)<br>100.0 |
|           | 여성      | (빈도)<br>% | 3.86           | (3)<br>1.7 | (12)<br>6.9  | (38)<br>21.7 | (76)<br>43.4  | (46)<br>26.3 | (175)<br>100.0 |
| 연령대       | 청년층     | (빈도)<br>% | 3.74           | (6)<br>3.4 | (18)<br>10.3 | (35)<br>20.0 | (72)<br>41.1  | (44)<br>25.1 | (175)<br>100.0 |
|           | 중장년층    | (빈도)<br>% | 3.71           | -<br>-     | (6)<br>7.3   | (26)<br>31.7 | (36)<br>43.9  | (14)<br>17.1 | (82)<br>100.0  |
|           | 노년층     | (빈도)<br>% | 3.65           | (2)<br>4.7 | (1)<br>2.3   | (14)<br>32.6 | (19)<br>44.2  | (7)<br>16.3  | (43)<br>100.0  |
| 연령·<br>성별 | 청년층 남성  | (빈도)<br>% | 3.45           | (4)<br>5.3 | (10)<br>13.3 | (22)<br>29.3 | (26)<br>34.7  | (13)<br>17.3 | (75)<br>100.0  |
|           | 청년층 여성  | (빈도)<br>% | 3.96           | (2)<br>2.0 | (8)<br>8.0   | (13)<br>13.0 | (46)<br>46.0  | (31)<br>31.0 | (100)<br>100.0 |
|           | 중장년층 남성 | (빈도)<br>% | 3.54           | -<br>-     | (2)<br>7.7   | (10)<br>38.5 | (12)<br>46.2  | (2)<br>7.7   | (26)<br>100.0  |
|           | 중장년층 여성 | (빈도)<br>% | 3.79           | -<br>-     | (4)<br>7.1   | (16)<br>28.6 | (24)<br>42.9  | (12)<br>21.4 | (56)<br>100.0  |
|           | 노년층 남성  | (빈도)<br>% | 3.75           | (1)<br>4.2 | (1)<br>4.2   | (5)<br>20.8  | (13)<br>54.2  | (4)<br>16.7  | (24)<br>100.0  |
|           | 노년층 여성  | (빈도)<br>% | 3.53           | (1)<br>5.3 | -<br>-       | (9)<br>47.4  | (6)<br>31.6   | (3)<br>15.8  | (19)<br>100.0  |
| 혼인<br>상태  | 기혼      | (빈도)<br>% | 3.52           | (3)<br>9.1 | (2)<br>6.1   | (9)<br>27.3  | (13)<br>39.4  | (6)<br>18.2  | (33)<br>100.0  |
|           | 비혼(미혼)  | (빈도)<br>% | 3.75           | (4)<br>1.8 | (21)<br>9.4  | (50)<br>22.3 | (101)<br>45.1 | (48)<br>21.4 | (224)<br>100.0 |
|           | 이혼      | (빈도)<br>% | 3.65           | (1)<br>3.2 | (2)<br>6.5   | (11)<br>35.5 | (10)<br>32.3  | (7)<br>22.6  | (31)<br>100.0  |
|           | 사별      | (빈도)<br>% | 3.92           | -<br>-     | -<br>-       | (5)<br>41.7  | (3)<br>25.0   | (4)<br>33.3  | (12)<br>100.0  |



(2) 주거

부동산 및 재무 교육(부동산계약, 전입신고, 대출업무 등) ‘필요함’ 비율을 응답자 특성 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 73.1%, 연령대별로는 청년층 68.6%, 연령·성별로는 청년층 여성 76.0%, 혼인상태별로는 비혼(미혼) 68.8%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표 67 응답자 특성별 - [주거] 부동산 및 재무 교육(부동산계약, 전입신고, 대출업무 등)

| 구분    |         | 5점 평균     | 5점 척도     |             |             |              |               | 합계           |                |
|-------|---------|-----------|-----------|-------------|-------------|--------------|---------------|--------------|----------------|
|       |         |           | 전혀 필요 없음  | 필요 없음       | 보통          | 필요함          | 매우 필요함        |              |                |
| 전체    |         | (빈도)<br>% | 3.75      | (12)<br>4.0 | (17)<br>5.7 | (78)<br>26.0 | (119)<br>39.7 | (74)<br>24.7 | (300)<br>100.0 |
| 성별    | 남성      | (빈도)<br>% | 3.51      | (6)<br>4.8  | (10)<br>8.0 | (44)<br>35.2 | (44)<br>35.2  | (21)<br>16.8 | (125)<br>100.0 |
|       | 여성      | (빈도)<br>% | 3.93      | (6)<br>3.4  | (7)<br>4.0  | (34)<br>19.4 | (75)<br>42.9  | (53)<br>30.3 | (175)<br>100.0 |
| 연령대   | 청년층     | (빈도)<br>% | 3.85      | (9)<br>5.1  | (9)<br>5.1  | (37)<br>21.1 | (65)<br>37.1  | (55)<br>31.4 | (175)<br>100.0 |
|       | 중장년층    | (빈도)<br>% | 3.74      | (2)<br>2.4  | (5)<br>6.1  | (23)<br>28.0 | (34)<br>41.5  | (18)<br>22.0 | (82)<br>100.0  |
|       | 노년층     | (빈도)<br>% | 3.40      | (1)<br>2.3  | (3)<br>7.0  | (18)<br>41.9 | (20)<br>46.5  | (1)<br>2.3   | (43)<br>100.0  |
| 연령·성별 | 청년층 남성  | (빈도)<br>% | 3.68      | (4)<br>5.3  | (4)<br>5.3  | (23)<br>30.7 | (25)<br>33.3  | (19)<br>25.3 | (75)<br>100.0  |
|       | 청년층 여성  | (빈도)<br>% | 3.97      | (5)<br>5.0  | (5)<br>5.0  | (14)<br>14.0 | (40)<br>40.0  | (36)<br>36.0 | (100)<br>100.0 |
|       | 중장년층 남성 | (빈도)<br>% | 3.15      | (2)<br>7.7  | (4)<br>15.4 | (10)<br>38.5 | (8)<br>30.8   | (2)<br>7.7   | (26)<br>100.0  |
|       | 중장년층 여성 | (빈도)<br>% | 4.02      | -<br>-      | (1)<br>1.8  | (13)<br>23.2 | (26)<br>46.4  | (16)<br>28.6 | (56)<br>100.0  |
|       | 노년층 남성  | (빈도)<br>% | 3.38      | -<br>-      | (2)<br>8.3  | (11)<br>45.8 | (11)<br>45.8  | -<br>-       | (24)<br>100.0  |
|       | 노년층 여성  | (빈도)<br>% | 3.42      | (1)<br>5.3  | (1)<br>5.3  | (7)<br>36.8  | (9)<br>47.4   | (1)<br>5.3   | (19)<br>100.0  |
|       | 혼인 상태   | 기혼        | (빈도)<br>% | 3.24        | (3)<br>9.1  | (2)<br>6.1   | (14)<br>42.4  | (12)<br>36.4 | (2)<br>6.1     |
|       | 비혼(미혼)  | (빈도)<br>% | 3.84      | (9)<br>4.0  | (13)<br>5.8 | (48)<br>21.4 | (89)<br>39.7  | (65)<br>29.0 | (224)<br>100.0 |
|       | 이혼      | (빈도)<br>% | 3.65      | -<br>-      | (2)<br>6.5  | (12)<br>38.7 | (12)<br>38.7  | (5)<br>16.1  | (31)<br>100.0  |
|       | 사별      | (빈도)<br>% | 3.83      | -<br>-      | -<br>-      | (4)<br>33.3  | (6)<br>50.0   | (2)<br>16.7  | (12)<br>100.0  |

주거공간 개선(간단한 수리, 정리수납 등) ‘필요함’ 비율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 70.3%, 연령대별로는 중장년층 70.7%, 연령·성별로는 중장년층 여성 78.6%, 혼인상태별로는 이혼 67.7%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 구분    |         | 5점 평균     | 5점 척도    |            |             |              |               | 합계           |                |
|-------|---------|-----------|----------|------------|-------------|--------------|---------------|--------------|----------------|
|       |         |           | 전혀 필요 없음 | 필요 없음      | 보통          | 필요함          | 매우 필요함        |              |                |
| 전체    |         | (빈도)<br>% | 3.72     | (9)<br>3.0 | (18)<br>6.0 | (92)<br>30.7 | (111)<br>37.0 | (70)<br>23.3 | (300)<br>100.0 |
| 성별    | 남성      | (빈도)<br>% | 3.47     | (5)<br>4.0 | (10)<br>8.0 | (52)<br>41.6 | (37)<br>29.6  | (21)<br>16.8 | (125)<br>100.0 |
|       | 여성      | (빈도)<br>% | 3.89     | (4)<br>2.3 | (8)<br>4.6  | (40)<br>22.9 | (74)<br>42.3  | (49)<br>28.0 | (175)<br>100.0 |
| 연령대   | 청년층     | (빈도)<br>% | 3.66     | (8)<br>4.6 | (11)<br>6.3 | (55)<br>31.4 | (59)<br>33.7  | (42)<br>24.0 | (175)<br>100.0 |
|       | 중장년층    | (빈도)<br>% | 3.94     | (1)<br>1.2 | (3)<br>3.7  | (20)<br>24.4 | (34)<br>41.5  | (24)<br>29.3 | (82)<br>100.0  |
|       | 노년층     | (빈도)<br>% | 3.51     | -<br>-     | (4)<br>9.3  | (17)<br>39.5 | (18)<br>41.9  | (4)<br>9.3   | (43)<br>100.0  |
| 연령·성별 | 청년층 남성  | (빈도)<br>% | 3.47     | (5)<br>6.7 | (5)<br>6.7  | (31)<br>41.3 | (18)<br>24.0  | (16)<br>21.3 | (75)<br>100.0  |
|       | 청년층 여성  | (빈도)<br>% | 3.81     | (3)<br>3.0 | (6)<br>6.0  | (24)<br>24.0 | (41)<br>41.0  | (26)<br>26.0 | (100)<br>100.0 |
|       | 중장년층 남성 | (빈도)<br>% | 3.62     | -<br>-     | (1)<br>3.8  | (11)<br>42.3 | (11)<br>42.3  | (3)<br>11.5  | (26)<br>100.0  |
|       | 중장년층 여성 | (빈도)<br>% | 4.09     | (1)<br>1.8 | (2)<br>3.6  | (9)<br>16.1  | (23)<br>41.1  | (21)<br>37.5 | (56)<br>100.0  |
|       | 노년층 남성  | (빈도)<br>% | 3.33     | -<br>-     | (4)<br>16.7 | (10)<br>41.7 | (8)<br>33.3   | (2)<br>8.3   | (24)<br>100.0  |
|       | 노년층 여성  | (빈도)<br>% | 3.74     | -<br>-     | -<br>-      | (7)<br>36.8  | (10)<br>52.6  | (2)<br>10.5  | (19)<br>100.0  |
| 혼인 상태 | 기혼      | (빈도)<br>% | 3.58     | (2)<br>6.1 | (1)<br>3.0  | (11)<br>33.3 | (14)<br>42.4  | (5)<br>15.2  | (33)<br>100.0  |
|       | 비혼(미혼)  | (빈도)<br>% | 3.72     | (6)<br>2.7 | (16)<br>7.1 | (68)<br>30.4 | (79)<br>35.3  | (55)<br>24.6 | (224)<br>100.0 |
|       | 이혼      | (빈도)<br>% | 3.84     | (1)<br>3.2 | (1)<br>3.2  | (8)<br>25.8  | (13)<br>41.9  | (8)<br>25.8  | (31)<br>100.0  |
|       | 사별      | (빈도)<br>% | 3.75     | -<br>-     | -<br>-      | (5)<br>41.7  | (5)<br>41.7   | (2)<br>16.7  | (12)<br>100.0  |

주거안전 지원(범죄예방·자기방어교육 등) ‘필요함’ 비율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 73.1%, 연령대별로는 중장년층 63.4%, 연령·성별로는 노년층 여성 78.9%, 혼인상태별로는 사별 83.3%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 구분    |         | 5점 평균     | 5점 척도    |             |              |              |               | 합계           |                |
|-------|---------|-----------|----------|-------------|--------------|--------------|---------------|--------------|----------------|
|       |         |           | 전혀 필요 없음 | 필요 없음       | 보통           | 필요함          | 매우 필요함        |              |                |
| 전체    |         | (빈도)<br>% | 3.66     | (11)<br>3.7 | (25)<br>8.3  | (86)<br>28.7 | (112)<br>37.3 | (66)<br>22.0 | (300)<br>100.0 |
| 성별    | 남성      | (빈도)<br>% | 3.25     | (7)<br>5.6  | (16)<br>12.8 | (52)<br>41.6 | (39)<br>31.2  | (11)<br>8.8  | (125)<br>100.0 |
|       | 여성      | (빈도)<br>% | 3.95     | (4)<br>2.3  | (9)<br>5.1   | (34)<br>19.4 | (73)<br>41.7  | (55)<br>31.4 | (175)<br>100.0 |
| 연령대   | 청년층     | (빈도)<br>% | 3.63     | (7)<br>4.0  | (12)<br>6.9  | (54)<br>30.9 | (67)<br>38.3  | (35)<br>20.0 | (175)<br>100.0 |
|       | 중장년층    | (빈도)<br>% | 3.79     | (3)<br>3.7  | (8)<br>9.8   | (19)<br>23.2 | (25)<br>30.5  | (27)<br>32.9 | (82)<br>100.0  |
|       | 노년층     | (빈도)<br>% | 3.49     | (1)<br>2.3  | (5)<br>11.6  | (13)<br>30.2 | (20)<br>46.5  | (4)<br>9.3   | (43)<br>100.0  |
| 연령·성별 | 청년층 남성  | (빈도)<br>% | 3.35     | (4)<br>5.3  | (7)<br>9.3   | (31)<br>41.3 | (25)<br>33.3  | (8)<br>10.7  | (75)<br>100.0  |
|       | 청년층 여성  | (빈도)<br>% | 3.85     | (3)<br>3.0  | (5)<br>5.0   | (23)<br>23.0 | (42)<br>42.0  | (27)<br>27.0 | (100)<br>100.0 |
|       | 중장년층 남성 | (빈도)<br>% | 3.08     | (2)<br>7.7  | (5)<br>19.2  | (11)<br>42.3 | (5)<br>19.2   | (3)<br>11.5  | (26)<br>100.0  |
|       | 중장년층 여성 | (빈도)<br>% | 4.13     | (1)<br>1.8  | (3)<br>5.4   | (8)<br>14.3  | (20)<br>35.7  | (24)<br>42.9 | (56)<br>100.0  |
|       | 노년층 남성  | (빈도)<br>% | 3.13     | (1)<br>4.2  | (4)<br>16.7  | (10)<br>41.7 | (9)<br>37.5   | -            | (24)<br>100.0  |
|       | 노년층 여성  | (빈도)<br>% | 3.95     | -           | (1)<br>5.3   | (3)<br>15.8  | (11)<br>57.9  | (4)<br>21.1  | (19)<br>100.0  |
| 혼인상태  | 기혼      | (빈도)<br>% | 3.39     | (2)<br>6.1  | (5)<br>15.2  | (9)<br>27.3  | (12)<br>36.4  | (5)<br>15.2  | (33)<br>100.0  |
|       | 비혼(미혼)  | (빈도)<br>% | 3.68     | (8)<br>3.6  | (18)<br>8.0  | (65)<br>29.0 | (80)<br>35.7  | (53)<br>23.7 | (224)<br>100.0 |
|       | 이혼      | (빈도)<br>% | 3.61     | (1)<br>3.2  | (2)<br>6.5   | (10)<br>32.3 | (13)<br>41.9  | (5)<br>16.1  | (31)<br>100.0  |
|       | 사별      | (빈도)<br>% | 4.08     | -           | -            | (2)<br>16.7  | (7)<br>58.3   | (3)<br>25.0  | (12)<br>100.0  |

주거공동체 지원(지역 공터 텃밭 가꾸기, 우편물 및 택배 보관 등) ‘필요함’ 비율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 56.0%, 연령대별로는 노년층 55.8%, 연령·성별로는 노년층 여성 68.4%, 혼인상태별로는 사별 66.7%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표 70** 응답자 특성별 - [주거] 주거공동체 지원(지역 공터 텃밭 가꾸기, 우편물 및 택배 보관 등)

| 구분    |         | 5점 평균     | 5점 척도    |              |              |              |              | 합계           |                |
|-------|---------|-----------|----------|--------------|--------------|--------------|--------------|--------------|----------------|
|       |         |           | 전혀 필요 없음 | 필요 없음        | 보통           | 필요함          | 매우 필요함       |              |                |
| 전체    |         | (빈도)<br>% | 3.38     | (20)<br>6.7  | (38)<br>12.7 | (98)<br>32.7 | (97)<br>32.3 | (47)<br>15.7 | (300)<br>100.0 |
| 성별    | 남성      | (빈도)<br>% | 3.18     | (7)<br>5.6   | (21)<br>16.8 | (51)<br>40.8 | (34)<br>27.2 | (12)<br>9.6  | (125)<br>100.0 |
|       | 여성      | (빈도)<br>% | 3.51     | (13)<br>7.4  | (17)<br>9.7  | (47)<br>26.9 | (63)<br>36.0 | (35)<br>20.0 | (175)<br>100.0 |
| 연령대   | 청년층     | (빈도)<br>% | 3.27     | (16)<br>9.1  | (23)<br>13.1 | (58)<br>33.1 | (54)<br>30.9 | (24)<br>13.7 | (175)<br>100.0 |
|       | 중장년층    | (빈도)<br>% | 3.54     | (3)<br>3.7   | (9)<br>11.0  | (28)<br>34.1 | (25)<br>30.5 | (17)<br>20.7 | (82)<br>100.0  |
|       | 노년층     | (빈도)<br>% | 3.51     | (1)<br>2.3   | (6)<br>14.0  | (12)<br>27.9 | (18)<br>41.9 | (6)<br>14.0  | (43)<br>100.0  |
| 연령·성별 | 청년층 남성  | (빈도)<br>% | 3.15     | (4)<br>5.3   | (12)<br>16.0 | (33)<br>44.0 | (21)<br>28.0 | (5)<br>6.7   | (75)<br>100.0  |
|       | 청년층 여성  | (빈도)<br>% | 3.36     | (12)<br>12.0 | (11)<br>11.0 | (25)<br>25.0 | (33)<br>33.0 | (19)<br>19.0 | (100)<br>100.0 |
|       | 중장년층 남성 | (빈도)<br>% | 3.15     | (2)<br>7.7   | (5)<br>19.2  | (10)<br>38.5 | (5)<br>19.2  | (4)<br>15.4  | (26)<br>100.0  |
|       | 중장년층 여성 | (빈도)<br>% | 3.71     | (1)<br>1.8   | (4)<br>7.1   | (18)<br>32.1 | (20)<br>35.7 | (13)<br>23.2 | (56)<br>100.0  |
|       | 노년층 남성  | (빈도)<br>% | 3.33     | (1)<br>4.2   | (4)<br>16.7  | (8)<br>33.3  | (8)<br>33.3  | (3)<br>12.5  | (24)<br>100.0  |
|       | 노년층 여성  | (빈도)<br>% | 3.74     | -<br>-       | (2)<br>10.5  | (4)<br>21.1  | (10)<br>52.6 | (3)<br>15.8  | (19)<br>100.0  |
| 혼인 상태 | 기혼      | (빈도)<br>% | 3.33     | (3)<br>9.1   | (3)<br>9.1   | (10)<br>30.3 | (14)<br>42.4 | (3)<br>9.1   | (33)<br>100.0  |
|       | 비혼(미혼)  | (빈도)<br>% | 3.33     | (16)<br>7.1  | (32)<br>14.3 | (74)<br>33.0 | (66)<br>29.5 | (36)<br>16.1 | (224)<br>100.0 |
|       | 이혼      | (빈도)<br>% | 3.55     | (1)<br>3.2   | (2)<br>6.5   | (11)<br>35.5 | (13)<br>41.9 | (4)<br>12.9  | (31)<br>100.0  |
|       | 사별      | (빈도)<br>% | 3.92     | -<br>-       | (1)<br>8.3   | (3)<br>25.0  | (4)<br>33.3  | (4)<br>33.3  | (12)<br>100.0  |

(3) 여가

취미·자기개발 활동(그림, 악기, 교양강좌 등) ‘필요함’ 비율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 76.0%, 연령대별로는 청년층 67.4%, 연령·성별로는 청년층 여성 82.0%, 혼인상태별로는 이혼 64.5%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 구분    |         | 5점 평균     | 5점 척도    |            |              |              |               | 합계           |                |
|-------|---------|-----------|----------|------------|--------------|--------------|---------------|--------------|----------------|
|       |         |           | 전혀 필요 없음 | 필요 없음      | 보통           | 필요함          | 매우 필요함        |              |                |
| 전체    |         | (빈도)<br>% | 3.79     | (6)<br>2.0 | (19)<br>6.3  | (87)<br>29.0 | (108)<br>36.0 | (80)<br>26.7 | (300)<br>100.0 |
| 성별    | 남성      | (빈도)<br>% | 3.40     | (4)<br>3.2 | (13)<br>10.4 | (53)<br>42.4 | (39)<br>31.2  | (16)<br>12.8 | (125)<br>100.0 |
|       | 여성      | (빈도)<br>% | 4.07     | (2)<br>1.1 | (6)<br>3.4   | (34)<br>19.4 | (69)<br>39.4  | (64)<br>36.6 | (175)<br>100.0 |
| 연령대   | 청년층     | (빈도)<br>% | 3.85     | (6)<br>3.4 | (8)<br>4.6   | (43)<br>24.6 | (68)<br>38.9  | (50)<br>28.6 | (175)<br>100.0 |
|       | 중장년층    | (빈도)<br>% | 3.82     | -          | (7)<br>8.5   | (26)<br>31.7 | (24)<br>29.3  | (25)<br>30.5 | (82)<br>100.0  |
|       | 노년층     | (빈도)<br>% | 3.51     | -          | (4)<br>9.3   | (18)<br>41.9 | (16)<br>37.2  | (5)<br>11.6  | (43)<br>100.0  |
| 연령·성별 | 청년층 남성  | (빈도)<br>% | 3.48     | (4)<br>5.3 | (5)<br>6.7   | (30)<br>40.0 | (23)<br>30.7  | (13)<br>17.3 | (75)<br>100.0  |
|       | 청년층 여성  | (빈도)<br>% | 4.12     | (2)<br>2.0 | (3)<br>3.0   | (13)<br>13.0 | (45)<br>45.0  | (37)<br>37.0 | (100)<br>100.0 |
|       | 중장년층 남성 | (빈도)<br>% | 3.27     | -          | (5)<br>19.2  | (11)<br>42.3 | (8)<br>30.8   | (2)<br>7.7   | (26)<br>100.0  |
|       | 중장년층 여성 | (빈도)<br>% | 4.07     | -          | (2)<br>3.6   | (15)<br>26.8 | (16)<br>28.6  | (23)<br>41.1 | (56)<br>100.0  |
|       | 노년층 남성  | (빈도)<br>% | 3.29     | -          | (3)<br>12.5  | (12)<br>50.0 | (8)<br>33.3   | (1)<br>4.2   | (24)<br>100.0  |
|       | 노년층 여성  | (빈도)<br>% | 3.79     | -          | (1)<br>5.3   | (6)<br>31.6  | (8)<br>42.1   | (4)<br>21.1  | (19)<br>100.0  |
| 혼인상태  | 기혼      | (빈도)<br>% | 3.48     | (1)<br>3.0 | (3)<br>9.1   | (11)<br>33.3 | (15)<br>45.5  | (3)<br>9.1   | (33)<br>100.0  |
|       | 비혼(미혼)  | (빈도)<br>% | 3.82     | (5)<br>2.2 | (11)<br>4.9  | (65)<br>29.0 | (81)<br>36.2  | (62)<br>27.7 | (224)<br>100.0 |
|       | 이혼      | (빈도)<br>% | 3.81     | -          | (5)<br>16.1  | (6)<br>19.4  | (10)<br>32.3  | (10)<br>32.3 | (31)<br>100.0  |
|       | 사별      | (빈도)<br>% | 4.00     | -          | -            | (5)<br>41.7  | (2)<br>16.7   | (5)<br>41.7  | (12)<br>100.0  |

관람·감상활동(영화, 공연, 스포츠, 전시 등) ‘필요함’ 비율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 74.9%, 연령대별로는 청년층 69.1%, 연령·성별로는 청년층 여성 77.0%, 혼인상태별로는 사별 75.0%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 구분    |         | 5점 평균     | 5점 척도    |            |             |              |               | 합계           |                |
|-------|---------|-----------|----------|------------|-------------|--------------|---------------|--------------|----------------|
|       |         |           | 전혀 필요 없음 | 필요 없음      | 보통          | 필요함          | 매우 필요함        |              |                |
| 전체    |         | (빈도)<br>% | 3.86     | (6)<br>2.0 | (14)<br>4.7 | (83)<br>27.7 | (111)<br>37.0 | (86)<br>28.7 | (300)<br>100.0 |
| 성별    | 남성      | (빈도)<br>% | 3.61     | (2)<br>1.6 | (9)<br>7.2  | (48)<br>38.4 | (43)<br>34.4  | (23)<br>18.4 | (125)<br>100.0 |
|       | 여성      | (빈도)<br>% | 4.03     | (4)<br>2.3 | (5)<br>2.9  | (35)<br>20.0 | (68)<br>38.9  | (63)<br>36.0 | (175)<br>100.0 |
| 연령대   | 청년층     | (빈도)<br>% | 3.93     | (5)<br>2.9 | (4)<br>2.3  | (45)<br>25.7 | (65)<br>37.1  | (56)<br>32.0 | (175)<br>100.0 |
|       | 중장년층    | (빈도)<br>% | 3.90     | -<br>-     | (5)<br>6.1  | (22)<br>26.8 | (31)<br>37.8  | (24)<br>29.3 | (82)<br>100.0  |
|       | 노년층     | (빈도)<br>% | 3.47     | (1)<br>2.3 | (5)<br>11.6 | (16)<br>37.2 | (15)<br>34.9  | (6)<br>14.0  | (43)<br>100.0  |
| 연령·성별 | 청년층 남성  | (빈도)<br>% | 3.77     | (1)<br>1.3 | (2)<br>2.7  | (28)<br>37.3 | (26)<br>34.7  | (18)<br>24.0 | (75)<br>100.0  |
|       | 청년층 여성  | (빈도)<br>% | 4.05     | (4)<br>4.0 | (2)<br>2.0  | (17)<br>17.0 | (39)<br>39.0  | (38)<br>38.0 | (100)<br>100.0 |
|       | 중장년층 남성 | (빈도)<br>% | 3.54     | -<br>-     | (3)<br>11.5 | (9)<br>34.6  | (11)<br>42.3  | (3)<br>11.5  | (26)<br>100.0  |
|       | 중장년층 여성 | (빈도)<br>% | 4.07     | -<br>-     | (2)<br>3.6  | (13)<br>23.2 | (20)<br>35.7  | (21)<br>37.5 | (56)<br>100.0  |
|       | 노년층 남성  | (빈도)<br>% | 3.17     | (1)<br>4.2 | (4)<br>16.7 | (11)<br>45.8 | (6)<br>25.0   | (2)<br>8.3   | (24)<br>100.0  |
|       | 노년층 여성  | (빈도)<br>% | 3.84     | -<br>-     | (1)<br>5.3  | (5)<br>26.3  | (9)<br>47.4   | (4)<br>21.1  | (19)<br>100.0  |
| 혼인상태  | 기혼      | (빈도)<br>% | 3.24     | (3)<br>9.1 | (3)<br>9.1  | (13)<br>39.4 | (11)<br>33.3  | (3)<br>9.1   | (33)<br>100.0  |
|       | 비혼(미혼)  | (빈도)<br>% | 3.92     | (3)<br>1.3 | (8)<br>3.6  | (61)<br>27.2 | (84)<br>37.5  | (68)<br>30.4 | (224)<br>100.0 |
|       | 이혼      | (빈도)<br>% | 3.97     | -<br>-     | (3)<br>9.7  | (6)<br>19.4  | (11)<br>35.5  | (11)<br>35.5 | (31)<br>100.0  |
|       | 사별      | (빈도)<br>% | 4.08     | -<br>-     | -<br>-      | (3)<br>25.0  | (5)<br>41.7   | (4)<br>33.3  | (12)<br>100.0  |

관광활동(여행, 나들이 등) ‘필요함’ 비율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 69.1%, 연령대별로는 청년층 65.7%, 연령·성별로는 청년층 여성 73.0%, 혼인상태별로는 이혼 71.0%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 구분    |         | 5점 평균     | 5점 척도    |             |             |              |               | 합계           |                |
|-------|---------|-----------|----------|-------------|-------------|--------------|---------------|--------------|----------------|
|       |         |           | 전혀 필요 없음 | 필요 없음       | 보통          | 필요함          | 매우 필요함        |              |                |
| 전체    |         | (빈도)<br>% | 3.76     | (10)<br>3.3 | (16)<br>5.3 | (89)<br>29.7 | (107)<br>35.7 | (78)<br>26.0 | (300)<br>100.0 |
| 성별    | 남성      | (빈도)<br>% | 3.56     | (3)<br>2.4  | (12)<br>9.6 | (46)<br>36.8 | (40)<br>32.0  | (24)<br>19.2 | (125)<br>100.0 |
|       | 여성      | (빈도)<br>% | 3.90     | (7)<br>4.0  | (4)<br>2.3  | (43)<br>24.6 | (67)<br>38.3  | (54)<br>30.9 | (175)<br>100.0 |
| 연령대   | 청년층     | (빈도)<br>% | 3.79     | (8)<br>4.6  | (11)<br>6.3 | (41)<br>23.4 | (65)<br>37.1  | (50)<br>28.6 | (175)<br>100.0 |
|       | 중장년층    | (빈도)<br>% | 3.79     | (1)<br>1.2  | (3)<br>3.7  | (30)<br>36.6 | (26)<br>31.7  | (22)<br>26.8 | (82)<br>100.0  |
|       | 노년층     | (빈도)<br>% | 3.56     | (1)<br>2.3  | (2)<br>4.7  | (18)<br>41.9 | (16)<br>37.2  | (6)<br>14.0  | (43)<br>100.0  |
| 연령·성별 | 청년층 남성  | (빈도)<br>% | 3.60     | (3)<br>4.0  | (8)<br>10.7 | (22)<br>29.3 | (25)<br>33.3  | (17)<br>22.7 | (75)<br>100.0  |
|       | 청년층 여성  | (빈도)<br>% | 3.93     | (5)<br>5.0  | (3)<br>3.0  | (19)<br>19.0 | (40)<br>40.0  | (33)<br>33.0 | (100)<br>100.0 |
|       | 중장년층 남성 | (빈도)<br>% | 3.54     | -<br>-      | (2)<br>7.7  | (12)<br>46.2 | (8)<br>30.8   | (4)<br>15.4  | (26)<br>100.0  |
|       | 중장년층 여성 | (빈도)<br>% | 3.91     | (1)<br>1.8  | (1)<br>1.8  | (18)<br>32.1 | (18)<br>32.1  | (18)<br>32.1 | (56)<br>100.0  |
|       | 노년층 남성  | (빈도)<br>% | 3.46     | -<br>-      | (2)<br>8.3  | (12)<br>50.0 | (7)<br>29.2   | (3)<br>12.5  | (24)<br>100.0  |
|       | 노년층 여성  | (빈도)<br>% | 3.68     | (1)<br>5.3  | -<br>-      | (6)<br>31.6  | (9)<br>47.4   | (3)<br>15.8  | (19)<br>100.0  |
| 혼인 상태 | 기혼      | (빈도)<br>% | 3.42     | (2)<br>6.1  | (2)<br>6.1  | (13)<br>39.4 | (12)<br>36.4  | (4)<br>12.1  | (33)<br>100.0  |
|       | 비혼(미혼)  | (빈도)<br>% | 3.78     | (7)<br>3.1  | (11)<br>4.9 | (67)<br>29.9 | (79)<br>35.3  | (60)<br>26.8 | (224)<br>100.0 |
|       | 이혼      | (빈도)<br>% | 3.94     | -<br>-      | (3)<br>9.7  | (6)<br>19.4  | (12)<br>38.7  | (10)<br>32.3 | (31)<br>100.0  |
|       | 사별      | (빈도)<br>% | 3.83     | (1)<br>8.3  | -<br>-      | (3)<br>25.0  | (4)<br>33.3   | (4)<br>33.3  | (12)<br>100.0  |

봉사활동 ‘필요함’ 비율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 47.4%, 연령대별로는 노년층 53.5%, 연령·성별로는 노년층 남성 58.3%, 혼인상태별로는 사별 50.0%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 구분    |         | 5점 평균     | 5점 척도    |              |              |               |               | 합계           |                |
|-------|---------|-----------|----------|--------------|--------------|---------------|---------------|--------------|----------------|
|       |         |           | 전혀 필요 없음 | 필요 없음        | 보통           | 필요함           | 매우 필요함        |              |                |
| 전체    |         | (빈도)<br>% | 3.33     | (19)<br>6.3  | (32)<br>10.7 | (114)<br>38.0 | (100)<br>33.3 | (35)<br>11.7 | (300)<br>100.0 |
| 성별    | 남성      | (빈도)<br>% | 3.29     | (4)<br>3.2   | (21)<br>16.8 | (48)<br>38.4  | (39)<br>31.2  | (13)<br>10.4 | (125)<br>100.0 |
|       | 여성      | (빈도)<br>% | 3.37     | (15)<br>8.6  | (11)<br>6.3  | (66)<br>37.7  | (61)<br>34.9  | (22)<br>12.6 | (175)<br>100.0 |
| 연령대   | 청년층     | (빈도)<br>% | 3.21     | (17)<br>9.7  | (20)<br>11.4 | (65)<br>37.1  | (56)<br>32.0  | (17)<br>9.7  | (175)<br>100.0 |
|       | 중장년층    | (빈도)<br>% | 3.50     | (1)<br>1.2   | (9)<br>11.0  | (33)<br>40.2  | (26)<br>31.7  | (13)<br>15.9 | (82)<br>100.0  |
|       | 노년층     | (빈도)<br>% | 3.53     | (1)<br>2.3   | (3)<br>7.0   | (16)<br>37.2  | (18)<br>41.9  | (5)<br>11.6  | (43)<br>100.0  |
| 연령·성별 | 청년층 남성  | (빈도)<br>% | 3.25     | (4)<br>5.3   | (12)<br>16.0 | (28)<br>37.3  | (23)<br>30.7  | (8)<br>10.7  | (75)<br>100.0  |
|       | 청년층 여성  | (빈도)<br>% | 3.17     | (13)<br>13.0 | (8)<br>8.0   | (37)<br>37.0  | (33)<br>33.0  | (9)<br>9.0   | (100)<br>100.0 |
|       | 중장년층 남성 | (빈도)<br>% | 3.12     | -<br>-       | (7)<br>26.9  | (12)<br>46.2  | (4)<br>15.4   | (3)<br>11.5  | (26)<br>100.0  |
|       | 중장년층 여성 | (빈도)<br>% | 3.68     | (1)<br>1.8   | (2)<br>3.6   | (21)<br>37.5  | (22)<br>39.3  | (10)<br>17.9 | (56)<br>100.0  |
|       | 노년층 남성  | (빈도)<br>% | 3.58     | -<br>-       | (2)<br>8.3   | (8)<br>33.3   | (12)<br>50.0  | (2)<br>8.3   | (24)<br>100.0  |
|       | 노년층 여성  | (빈도)<br>% | 3.47     | (1)<br>5.3   | (1)<br>5.3   | (8)<br>42.1   | (6)<br>31.6   | (3)<br>15.8  | (19)<br>100.0  |
| 혼인 상태 | 기혼      | (빈도)<br>% | 3.33     | (2)<br>6.1   | (4)<br>12.1  | (11)<br>33.3  | (13)<br>39.4  | (3)<br>9.1   | (33)<br>100.0  |
|       | 비혼(미혼)  | (빈도)<br>% | 3.29     | (16)<br>7.1  | (26)<br>11.6 | (84)<br>37.5  | (73)<br>32.6  | (25)<br>11.2 | (224)<br>100.0 |
|       | 이혼      | (빈도)<br>% | 3.55     | -<br>-       | (2)<br>6.5   | (14)<br>45.2  | (11)<br>35.5  | (4)<br>12.9  | (31)<br>100.0  |
|       | 사별      | (빈도)<br>% | 3.58     | (1)<br>8.3   | -<br>-       | (5)<br>41.7   | (3)<br>25.0   | (3)<br>25.0  | (12)<br>100.0  |



(4) 경제

재테크 및 예금·적금 운용 ‘필요함’ 비율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 69.7%, 연령대별로는 청년층 66.9%, 연령·성별로는 청년층 여성 73.0%, 혼인상태별로는 비혼(미혼) 66.1%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 구분    |         | 5점 평균     | 5점 척도    |            |             |              |               | 합계           |                |
|-------|---------|-----------|----------|------------|-------------|--------------|---------------|--------------|----------------|
|       |         |           | 전혀 필요 없음 | 필요 없음      | 보통          | 필요함          | 매우 필요함        |              |                |
| 전체    |         | (빈도)<br>% | 3.80     | (9)<br>3.0 | (20)<br>6.7 | (81)<br>27.0 | (102)<br>34.0 | (88)<br>29.3 | (300)<br>100.0 |
| 성별    | 남성      | (빈도)<br>% | 3.61     | (4)<br>3.2 | (11)<br>8.8 | (42)<br>33.6 | (41)<br>32.8  | (27)<br>21.6 | (125)<br>100.0 |
|       | 여성      | (빈도)<br>% | 3.94     | (5)<br>2.9 | (9)<br>5.1  | (39)<br>22.3 | (61)<br>34.9  | (61)<br>34.9 | (175)<br>100.0 |
| 연령대   | 청년층     | (빈도)<br>% | 3.89     | (6)<br>3.4 | (12)<br>6.9 | (40)<br>22.9 | (55)<br>31.4  | (62)<br>35.4 | (175)<br>100.0 |
|       | 중장년층    | (빈도)<br>% | 3.76     | (3)<br>3.7 | (4)<br>4.9  | (25)<br>30.5 | (28)<br>34.1  | (22)<br>26.8 | (82)<br>100.0  |
|       | 노년층     | (빈도)<br>% | 3.53     | -<br>-     | (4)<br>9.3  | (16)<br>37.2 | (19)<br>44.2  | (4)<br>9.3   | (43)<br>100.0  |
| 연령·성별 | 청년층 남성  | (빈도)<br>% | 3.76     | (2)<br>2.7 | (6)<br>8.0  | (23)<br>30.7 | (21)<br>28.0  | (23)<br>30.7 | (75)<br>100.0  |
|       | 청년층 여성  | (빈도)<br>% | 3.98     | (4)<br>4.0 | (6)<br>6.0  | (17)<br>17.0 | (34)<br>34.0  | (39)<br>39.0 | (100)<br>100.0 |
|       | 중장년층 남성 | (빈도)<br>% | 3.27     | (2)<br>7.7 | (2)<br>7.7  | (11)<br>42.3 | (9)<br>34.6   | (2)<br>7.7   | (26)<br>100.0  |
|       | 중장년층 여성 | (빈도)<br>% | 3.98     | (1)<br>1.8 | (2)<br>3.6  | (14)<br>25.0 | (19)<br>33.9  | (20)<br>35.7 | (56)<br>100.0  |
|       | 노년층 남성  | (빈도)<br>% | 3.50     | -<br>-     | (3)<br>12.5 | (8)<br>33.3  | (11)<br>45.8  | (2)<br>8.3   | (24)<br>100.0  |
|       | 노년층 여성  | (빈도)<br>% | 3.58     | -<br>-     | (1)<br>5.3  | (8)<br>42.1  | (8)<br>42.1   | (2)<br>10.5  | (19)<br>100.0  |
| 혼인 상태 | 기혼      | (빈도)<br>% | 3.48     | (1)<br>3.0 | (2)<br>6.1  | (14)<br>42.4 | (12)<br>36.4  | (4)<br>12.1  | (33)<br>100.0  |
|       | 비혼(미혼)  | (빈도)<br>% | 3.85     | (8)<br>3.6 | (13)<br>5.8 | (55)<br>24.6 | (77)<br>34.4  | (71)<br>31.7 | (224)<br>100.0 |
|       | 이혼      | (빈도)<br>% | 3.84     | -<br>-     | (3)<br>9.7  | (9)<br>29.0  | (9)<br>29.0   | (10)<br>32.3 | (31)<br>100.0  |
|       | 사별      | (빈도)<br>% | 3.67     | -<br>-     | (2)<br>16.7 | (3)<br>25.0  | (4)<br>33.3   | (3)<br>25.0  | (12)<br>100.0  |

금융정보 관련 교육(대출 및 부채관리, 신용등급관리, 주거래 은행 사용법 등) ‘필요함’ 비율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 69.7%, 연령대별로는 청년층 64.6%, 연령·성별로는 청년층 여성 72.0%, 혼인상태별로는 사별 66.7%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 구분    |         | 5점 평균     | 5점 척도    |             |              |              |               | 합계           |                |
|-------|---------|-----------|----------|-------------|--------------|--------------|---------------|--------------|----------------|
|       |         |           | 전혀 필요 없음 | 필요 없음       | 보통           | 필요함          | 매우 필요함        |              |                |
| 전체    |         | (빈도)<br>% | 3.67     | (11)<br>3.7 | (27)<br>9.0  | (83)<br>27.7 | (107)<br>35.7 | (72)<br>24.0 | (300)<br>100.0 |
| 성별    | 남성      | (빈도)<br>% | 3.38     | (6)<br>4.8  | (18)<br>14.4 | (44)<br>35.2 | (37)<br>29.6  | (20)<br>16.0 | (125)<br>100.0 |
|       | 여성      | (빈도)<br>% | 3.89     | (5)<br>2.9  | (9)<br>5.1   | (39)<br>22.3 | (70)<br>40.0  | (52)<br>29.7 | (175)<br>100.0 |
| 연령대   | 청년층     | (빈도)<br>% | 3.78     | (7)<br>4.0  | (12)<br>6.9  | (43)<br>24.6 | (63)<br>36.0  | (50)<br>28.6 | (175)<br>100.0 |
|       | 중장년층    | (빈도)<br>% | 3.70     | (3)<br>3.7  | (5)<br>6.1   | (25)<br>30.5 | (30)<br>36.6  | (19)<br>23.2 | (82)<br>100.0  |
|       | 노년층     | (빈도)<br>% | 3.19     | (1)<br>2.3  | (10)<br>23.3 | (15)<br>34.9 | (14)<br>32.6  | (3)<br>7.0   | (43)<br>100.0  |
| 연령·성별 | 청년층 남성  | (빈도)<br>% | 3.60     | (3)<br>4.0  | (7)<br>9.3   | (24)<br>32.0 | (24)<br>32.0  | (17)<br>22.7 | (75)<br>100.0  |
|       | 청년층 여성  | (빈도)<br>% | 3.92     | (4)<br>4.0  | (5)<br>5.0   | (19)<br>19.0 | (39)<br>39.0  | (33)<br>33.0 | (100)<br>100.0 |
|       | 중장년층 남성 | (빈도)<br>% | 3.19     | (2)<br>7.7  | (3)<br>11.5  | (11)<br>42.3 | (8)<br>30.8   | (2)<br>7.7   | (26)<br>100.0  |
|       | 중장년층 여성 | (빈도)<br>% | 3.93     | (1)<br>1.8  | (2)<br>3.6   | (14)<br>25.0 | (22)<br>39.3  | (17)<br>30.4 | (56)<br>100.0  |
|       | 노년층 남성  | (빈도)<br>% | 2.88     | (1)<br>4.2  | (8)<br>33.3  | (9)<br>37.5  | (5)<br>20.8   | (1)<br>4.2   | (24)<br>100.0  |
|       | 노년층 여성  | (빈도)<br>% | 3.58     | -<br>-      | (2)<br>10.5  | (6)<br>31.6  | (9)<br>47.4   | (2)<br>10.5  | (19)<br>100.0  |
| 혼인 상태 | 기혼      | (빈도)<br>% | 3.21     | (1)<br>3.0  | (7)<br>21.2  | (13)<br>39.4 | (8)<br>24.2   | (4)<br>12.1  | (33)<br>100.0  |
|       | 비혼(미혼)  | (빈도)<br>% | 3.75     | (9)<br>4.0  | (15)<br>6.7  | (57)<br>25.4 | (84)<br>37.5  | (59)<br>26.3 | (224)<br>100.0 |
|       | 이혼      | (빈도)<br>% | 3.58     | (1)<br>3.2  | (3)<br>9.7   | (11)<br>35.5 | (9)<br>29.0   | (7)<br>22.6  | (31)<br>100.0  |
|       | 사별      | (빈도)<br>% | 3.67     | -<br>-      | (2)<br>16.7  | (2)<br>16.7  | (6)<br>50.0   | (2)<br>16.7  | (12)<br>100.0  |

노후(자금) 설계 교육 ‘필요함’ 비율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 70.3%, 연령대별로는 중장년층 67.1%, 연령·성별로는 중장년층 여성 76.8%, 혼인상태별로는 사별 75.0%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 구분    |         | 5점 평균     | 5점 척도    |             |              |              |               | 합계           |                |
|-------|---------|-----------|----------|-------------|--------------|--------------|---------------|--------------|----------------|
|       |         |           | 전혀 필요 없음 | 필요 없음       | 보통           | 필요함          | 매우 필요함        |              |                |
| 전체    |         | (빈도)<br>% | 3.70     | (10)<br>3.3 | (25)<br>8.3  | (81)<br>27.0 | (113)<br>37.7 | (71)<br>23.7 | (300)<br>100.0 |
| 성별    | 남성      | (빈도)<br>% | 3.51     | (3)<br>2.4  | (11)<br>8.8  | (50)<br>40.0 | (41)<br>32.8  | (20)<br>16.0 | (125)<br>100.0 |
|       | 여성      | (빈도)<br>% | 3.83     | (7)<br>4.0  | (14)<br>8.0  | (31)<br>17.7 | (72)<br>41.1  | (51)<br>29.1 | (175)<br>100.0 |
| 연령대   | 청년층     | (빈도)<br>% | 3.70     | (8)<br>4.6  | (16)<br>9.1  | (42)<br>24.0 | (64)<br>36.6  | (45)<br>25.7 | (175)<br>100.0 |
|       | 중장년층    | (빈도)<br>% | 3.83     | (2)<br>2.4  | (5)<br>6.1   | (20)<br>24.4 | (33)<br>40.2  | (22)<br>26.8 | (82)<br>100.0  |
|       | 노년층     | (빈도)<br>% | 3.47     | -<br>-      | (4)<br>9.3   | (19)<br>44.2 | (16)<br>37.2  | (4)<br>9.3   | (43)<br>100.0  |
| 연령·성별 | 청년층 남성  | (빈도)<br>% | 3.63     | (2)<br>2.7  | (5)<br>6.7   | (28)<br>37.3 | (24)<br>32.0  | (16)<br>21.3 | (75)<br>100.0  |
|       | 청년층 여성  | (빈도)<br>% | 3.75     | (6)<br>6.0  | (11)<br>11.0 | (14)<br>14.0 | (40)<br>40.0  | (29)<br>29.0 | (100)<br>100.0 |
|       | 중장년층 남성 | (빈도)<br>% | 3.38     | (1)<br>3.8  | (2)<br>7.7   | (11)<br>42.3 | (10)<br>38.5  | (2)<br>7.7   | (26)<br>100.0  |
|       | 중장년층 여성 | (빈도)<br>% | 4.04     | (1)<br>1.8  | (3)<br>5.4   | (9)<br>16.1  | (23)<br>41.1  | (20)<br>35.7 | (56)<br>100.0  |
|       | 노년층 남성  | (빈도)<br>% | 3.29     | -<br>-      | (4)<br>16.7  | (11)<br>45.8 | (7)<br>29.2   | (2)<br>8.3   | (24)<br>100.0  |
|       | 노년층 여성  | (빈도)<br>% | 3.68     | -<br>-      | -<br>-       | (8)<br>42.1  | (9)<br>47.4   | (2)<br>10.5  | (19)<br>100.0  |
| 혼인상태  | 기혼      | (빈도)<br>% | 3.39     | (1)<br>3.0  | (2)<br>6.1   | (17)<br>51.5 | (9)<br>27.3   | (4)<br>12.1  | (33)<br>100.0  |
|       | 비혼(미혼)  | (빈도)<br>% | 3.72     | (9)<br>4.0  | (19)<br>8.5  | (55)<br>24.6 | (84)<br>37.5  | (57)<br>25.4 | (224)<br>100.0 |
|       | 이혼      | (빈도)<br>% | 3.77     | -<br>-      | (4)<br>12.9  | (6)<br>19.4  | (14)<br>45.2  | (7)<br>22.6  | (31)<br>100.0  |
|       | 사별      | (빈도)<br>% | 4.00     | -<br>-      | -<br>-       | (3)<br>25.0  | (6)<br>50.0   | (3)<br>25.0  | (12)<br>100.0  |

소비·지출 관리 교육 ‘필요함’ 비율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 65.7%, 연령대별로는 청년층 64.6%, 연령·성별로는 청년층 여성 71.0%, 혼인상태별로는 이혼 61.3%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 구분    |         | 5점 평균     | 5점 척도    |             |             |              |               | 합계           |                |
|-------|---------|-----------|----------|-------------|-------------|--------------|---------------|--------------|----------------|
|       |         |           | 전혀 필요 없음 | 필요 없음       | 보통          | 필요함          | 매우 필요함        |              |                |
| 전체    |         | (빈도)<br>% | 3.67     | (13)<br>4.3 | (17)<br>5.7 | (95)<br>31.7 | (105)<br>35.0 | (70)<br>23.3 | (300)<br>100.0 |
| 성별    | 남성      | (빈도)<br>% | 3.55     | (5)<br>4.0  | (6)<br>4.8  | (54)<br>43.2 | (35)<br>28.0  | (25)<br>20.0 | (125)<br>100.0 |
|       | 여성      | (빈도)<br>% | 3.76     | (8)<br>4.6  | (11)<br>6.3 | (41)<br>23.4 | (70)<br>40.0  | (45)<br>25.7 | (175)<br>100.0 |
| 연령대   | 청년층     | (빈도)<br>% | 3.77     | (9)<br>5.1  | (9)<br>5.1  | (44)<br>25.1 | (64)<br>36.6  | (49)<br>28.0 | (175)<br>100.0 |
|       | 중장년층    | (빈도)<br>% | 3.57     | (4)<br>4.9  | (6)<br>7.3  | (28)<br>34.1 | (27)<br>32.9  | (17)<br>20.7 | (82)<br>100.0  |
|       | 노년층     | (빈도)<br>% | 3.47     | -<br>-      | (2)<br>4.7  | (23)<br>53.5 | (14)<br>32.6  | (4)<br>9.3   | (43)<br>100.0  |
| 연령·성별 | 청년층 남성  | (빈도)<br>% | 3.72     | (3)<br>4.0  | (2)<br>2.7  | (28)<br>37.3 | (22)<br>29.3  | (20)<br>26.7 | (75)<br>100.0  |
|       | 청년층 여성  | (빈도)<br>% | 3.81     | (6)<br>6.0  | (7)<br>7.0  | (16)<br>16.0 | (42)<br>42.0  | (29)<br>29.0 | (100)<br>100.0 |
|       | 중장년층 남성 | (빈도)<br>% | 3.27     | (2)<br>7.7  | (2)<br>7.7  | (12)<br>46.2 | (7)<br>26.9   | (3)<br>11.5  | (26)<br>100.0  |
|       | 중장년층 여성 | (빈도)<br>% | 3.71     | (2)<br>3.6  | (4)<br>7.1  | (16)<br>28.6 | (20)<br>35.7  | (14)<br>25.0 | (56)<br>100.0  |
|       | 노년층 남성  | (빈도)<br>% | 3.33     | -<br>-      | (2)<br>8.3  | (14)<br>58.3 | (6)<br>25.0   | (2)<br>8.3   | (24)<br>100.0  |
|       | 노년층 여성  | (빈도)<br>% | 3.63     | -<br>-      | -<br>-      | (9)<br>47.4  | (8)<br>42.1   | (2)<br>10.5  | (19)<br>100.0  |
| 혼인상태  | 기혼      | (빈도)<br>% | 3.45     | (1)<br>3.0  | (1)<br>3.0  | (17)<br>51.5 | (10)<br>30.3  | (4)<br>12.1  | (33)<br>100.0  |
|       | 비혼(미혼)  | (빈도)<br>% | 3.70     | (12)<br>5.4 | (12)<br>5.4 | (64)<br>28.6 | (80)<br>35.7  | (56)<br>25.0 | (224)<br>100.0 |
|       | 이혼      | (빈도)<br>% | 3.71     | -<br>-      | (4)<br>12.9 | (8)<br>25.8  | (12)<br>38.7  | (7)<br>22.6  | (31)<br>100.0  |
|       | 사별      | (빈도)<br>% | 3.75     | -<br>-      | -<br>-      | (6)<br>50.0  | (3)<br>25.0   | (3)<br>25.0  | (12)<br>100.0  |

(5) 가족관계

가족상담 ‘필요함’ 비율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 42.3%, 연령대별로는 노년층 51.2%, 연령·성별로는 노년층 여성 52.6%, 혼인상태별로는 사별 58.3%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 구분    |         | 5점 평균     | 5점 척도    |              |              |               |              | 합계           |                |
|-------|---------|-----------|----------|--------------|--------------|---------------|--------------|--------------|----------------|
|       |         |           | 전혀 필요 없음 | 필요 없음        | 보통           | 필요함           | 매우 필요함       |              |                |
| 전체    |         | (빈도)<br>% | 3.17     | (26)<br>8.7  | (48)<br>16.0 | (109)<br>36.3 | (82)<br>27.3 | (35)<br>11.7 | (300)<br>100.0 |
| 성별    | 남성      | (빈도)<br>% | 3.16     | (9)<br>7.2   | (19)<br>15.2 | (54)<br>43.2  | (29)<br>23.2 | (14)<br>11.2 | (125)<br>100.0 |
|       | 여성      | (빈도)<br>% | 3.18     | (17)<br>9.7  | (29)<br>16.6 | (55)<br>31.4  | (53)<br>30.3 | (21)<br>12.0 | (175)<br>100.0 |
| 연령대   | 청년층     | (빈도)<br>% | 3.14     | (20)<br>11.4 | (26)<br>14.9 | (61)<br>34.9  | (45)<br>25.7 | (23)<br>13.1 | (175)<br>100.0 |
|       | 중장년층    | (빈도)<br>% | 3.11     | (5)<br>6.1   | (16)<br>19.5 | (34)<br>41.5  | (19)<br>23.2 | (8)<br>9.8   | (82)<br>100.0  |
|       | 노년층     | (빈도)<br>% | 3.42     | (1)<br>2.3   | (6)<br>14.0  | (14)<br>32.6  | (18)<br>41.9 | (4)<br>9.3   | (43)<br>100.0  |
| 연령·성별 | 청년층 남성  | (빈도)<br>% | 3.23     | (6)<br>8.0   | (8)<br>10.7  | (33)<br>44.0  | (19)<br>25.3 | (9)<br>12.0  | (75)<br>100.0  |
|       | 청년층 여성  | (빈도)<br>% | 3.08     | (14)<br>14.0 | (18)<br>18.0 | (28)<br>28.0  | (26)<br>26.0 | (14)<br>14.0 | (100)<br>100.0 |
|       | 중장년층 남성 | (빈도)<br>% | 2.69     | (3)<br>11.5  | (7)<br>26.9  | (13)<br>50.0  | (1)<br>3.8   | (2)<br>7.7   | (26)<br>100.0  |
|       | 중장년층 여성 | (빈도)<br>% | 3.30     | (2)<br>3.6   | (9)<br>16.1  | (21)<br>37.5  | (18)<br>32.1 | (6)<br>10.7  | (56)<br>100.0  |
|       | 노년층 남성  | (빈도)<br>% | 3.46     | -<br>-       | (4)<br>16.7  | (8)<br>33.3   | (9)<br>37.5  | (3)<br>12.5  | (24)<br>100.0  |
|       | 노년층 여성  | (빈도)<br>% | 3.37     | (1)<br>5.3   | (2)<br>10.5  | (6)<br>31.6   | (9)<br>47.4  | (1)<br>5.3   | (19)<br>100.0  |
| 혼인 상태 | 기혼      | (빈도)<br>% | 3.42     | (2)<br>6.1   | (4)<br>12.1  | (10)<br>30.3  | (12)<br>36.4 | (5)<br>15.2  | (33)<br>100.0  |
|       | 비혼(미혼)  | (빈도)<br>% | 3.08     | (24)<br>10.7 | (35)<br>15.6 | (87)<br>38.8  | (55)<br>24.6 | (23)<br>10.3 | (224)<br>100.0 |
|       | 이혼      | (빈도)<br>% | 3.39     | -<br>-       | (8)<br>25.8  | (8)<br>25.8   | (10)<br>32.3 | (5)<br>16.1  | (31)<br>100.0  |
|       | 사별      | (빈도)<br>% | 3.67     | -<br>-       | (1)<br>8.3   | (4)<br>33.3   | (5)<br>41.7  | (2)<br>16.7  | (12)<br>100.0  |

의사소통교육 ‘필요함’ 비율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 44.0%, 연령대별로는 노년층 46.5%, 연령·성별로는 중장년층 여성 50.0%, 혼인상태별로는 이혼 54.8%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 구분    |         | 5점 평균     | 5점 척도    |              |              |               |              | 합계           |                |
|-------|---------|-----------|----------|--------------|--------------|---------------|--------------|--------------|----------------|
|       |         |           | 전혀 필요 없음 | 필요 없음        | 보통           | 필요함           | 매우 필요함       |              |                |
| 전체    |         | (빈도)<br>% | 3.21     | (25)<br>8.3  | (50)<br>16.7 | (107)<br>35.7 | (74)<br>24.7 | (44)<br>14.7 | (300)<br>100.0 |
| 성별    | 남성      | (빈도)<br>% | 3.18     | (7)<br>5.6   | (23)<br>18.4 | (54)<br>43.2  | (23)<br>18.4 | (18)<br>14.4 | (125)<br>100.0 |
|       | 여성      | (빈도)<br>% | 3.23     | (18)<br>10.3 | (27)<br>15.4 | (53)<br>30.3  | (51)<br>29.1 | (26)<br>14.9 | (175)<br>100.0 |
| 연령대   | 청년층     | (빈도)<br>% | 3.16     | (19)<br>10.9 | (29)<br>16.6 | (60)<br>34.3  | (39)<br>22.3 | (28)<br>16.0 | (175)<br>100.0 |
|       | 중장년층    | (빈도)<br>% | 3.17     | (5)<br>6.1   | (17)<br>20.7 | (29)<br>35.4  | (21)<br>25.6 | (10)<br>12.2 | (82)<br>100.0  |
|       | 노년층     | (빈도)<br>% | 3.47     | (1)<br>2.3   | (4)<br>9.3   | (18)<br>41.9  | (14)<br>32.6 | (6)<br>14.0  | (43)<br>100.0  |
| 연령·성별 | 청년층 남성  | (빈도)<br>% | 3.29     | (4)<br>5.3   | (10)<br>13.3 | (34)<br>45.3  | (14)<br>18.7 | (13)<br>17.3 | (75)<br>100.0  |
|       | 청년층 여성  | (빈도)<br>% | 3.06     | (15)<br>15.0 | (19)<br>19.0 | (26)<br>26.0  | (25)<br>25.0 | (15)<br>15.0 | (100)<br>100.0 |
|       | 중장년층 남성 | (빈도)<br>% | 2.58     | (3)<br>11.5  | (10)<br>38.5 | (10)<br>38.5  | (1)<br>3.8   | (2)<br>7.7   | (26)<br>100.0  |
|       | 중장년층 여성 | (빈도)<br>% | 3.45     | (2)<br>3.6   | (7)<br>12.5  | (19)<br>33.9  | (20)<br>35.7 | (8)<br>14.3  | (56)<br>100.0  |
|       | 노년층 남성  | (빈도)<br>% | 3.46     | -<br>-       | (3)<br>12.5  | (10)<br>41.7  | (8)<br>33.3  | (3)<br>12.5  | (24)<br>100.0  |
|       | 노년층 여성  | (빈도)<br>% | 3.47     | (1)<br>5.3   | (1)<br>5.3   | (8)<br>42.1   | (6)<br>31.6  | (3)<br>15.8  | (19)<br>100.0  |
| 혼인상태  | 기혼      | (빈도)<br>% | 3.48     | (2)<br>6.1   | (3)<br>9.1   | (11)<br>33.3  | (11)<br>33.3 | (6)<br>18.2  | (33)<br>100.0  |
|       | 비혼(미혼)  | (빈도)<br>% | 3.10     | (23)<br>10.3 | (40)<br>17.9 | (82)<br>36.6  | (49)<br>21.9 | (30)<br>13.4 | (224)<br>100.0 |
|       | 이혼      | (빈도)<br>% | 3.52     | -<br>-       | (6)<br>19.4  | (8)<br>25.8   | (12)<br>38.7 | (5)<br>16.1  | (31)<br>100.0  |
|       | 사별      | (빈도)<br>% | 3.58     | -<br>-       | (1)<br>8.3   | (6)<br>50.0   | (2)<br>16.7  | (3)<br>25.0  | (12)<br>100.0  |

가족문화프로그램(가족과 함께하는 여가) ‘필요함’ 비율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 48.0%, 연령대별로는 노년층 41.9%, 연령·성별로는 중장년층 여성 53.6%, 혼인상태별로는 이혼 54.8%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표 81 응답자 특성별 - [가족 관계] 가족문화프로그램(가족과 함께하는 여가)

| 구분    |         | 5점 평균     | 5점 척도    |              |              |               |              | 합계           |                |
|-------|---------|-----------|----------|--------------|--------------|---------------|--------------|--------------|----------------|
|       |         |           | 전혀 필요 없음 | 필요 없음        | 보통           | 필요함           | 매우 필요함       |              |                |
| 전체    |         | (빈도)<br>% | 3.22     | (28)<br>9.3  | (43)<br>14.3 | (106)<br>35.3 | (80)<br>26.7 | (43)<br>14.3 | (300)<br>100.0 |
| 성별    | 남성      | (빈도)<br>% | 3.10     | (10)<br>8.0  | (21)<br>16.8 | (55)<br>44.0  | (25)<br>20.0 | (14)<br>11.2 | (125)<br>100.0 |
|       | 여성      | (빈도)<br>% | 3.31     | (18)<br>10.3 | (22)<br>12.6 | (51)<br>29.1  | (55)<br>31.4 | (29)<br>16.6 | (175)<br>100.0 |
| 연령대   | 청년층     | (빈도)<br>% | 3.20     | (20)<br>11.4 | (23)<br>13.1 | (60)<br>34.3  | (46)<br>26.3 | (26)<br>14.9 | (175)<br>100.0 |
|       | 중장년층    | (빈도)<br>% | 3.22     | (7)<br>8.5   | (13)<br>15.9 | (29)<br>35.4  | (21)<br>25.6 | (12)<br>14.6 | (82)<br>100.0  |
|       | 노년층     | (빈도)<br>% | 3.33     | (1)<br>2.3   | (7)<br>16.3  | (17)<br>39.5  | (13)<br>30.2 | (5)<br>11.6  | (43)<br>100.0  |
| 연령·성별 | 청년층 남성  | (빈도)<br>% | 3.20     | (6)<br>8.0   | (9)<br>12.0  | (34)<br>45.3  | (16)<br>21.3 | (10)<br>13.3 | (75)<br>100.0  |
|       | 청년층 여성  | (빈도)<br>% | 3.20     | (14)<br>14.0 | (14)<br>14.0 | (26)<br>26.0  | (30)<br>30.0 | (16)<br>16.0 | (100)<br>100.0 |
|       | 중장년층 남성 | (빈도)<br>% | 2.62     | (4)<br>15.4  | (7)<br>26.9  | (12)<br>46.2  | (1)<br>3.8   | (2)<br>7.7   | (26)<br>100.0  |
|       | 중장년층 여성 | (빈도)<br>% | 3.50     | (3)<br>5.4   | (6)<br>10.7  | (17)<br>30.4  | (20)<br>35.7 | (10)<br>17.9 | (56)<br>100.0  |
|       | 노년층 남성  | (빈도)<br>% | 3.29     | -<br>-       | (5)<br>20.8  | (9)<br>37.5   | (8)<br>33.3  | (2)<br>8.3   | (24)<br>100.0  |
|       | 노년층 여성  | (빈도)<br>% | 3.37     | (1)<br>5.3   | (2)<br>10.5  | (8)<br>42.1   | (5)<br>26.3  | (3)<br>15.8  | (19)<br>100.0  |
| 혼인 상태 | 기혼      | (빈도)<br>% | 3.45     | (2)<br>6.1   | (3)<br>9.1   | (11)<br>33.3  | (12)<br>36.4 | (5)<br>15.2  | (33)<br>100.0  |
|       | 비혼(미혼)  | (빈도)<br>% | 3.13     | (26)<br>11.6 | (32)<br>14.3 | (83)<br>37.1  | (53)<br>23.7 | (30)<br>13.4 | (224)<br>100.0 |
|       | 이혼      | (빈도)<br>% | 3.52     | -<br>-       | (6)<br>19.4  | (8)<br>25.8   | (12)<br>38.7 | (5)<br>16.1  | (31)<br>100.0  |
|       | 사별      | (빈도)<br>% | 3.58     | -<br>-       | (2)<br>16.7  | (4)<br>33.3   | (3)<br>25.0  | (3)<br>25.0  | (12)<br>100.0  |

(6) 사회적 관계망

동아리 활동(취미·여가, 자기개발, 봉사 등) ‘필요함’ 비율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 68.0%, 연령대별로는 청년층 64.6%, 연령·성별로는 청년층 여성 72.0%, 혼인상태별로는 이혼 71.0%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 구분    |         | 5점 평균     | 5점 척도    |            |              |              |               | 합계           |                |
|-------|---------|-----------|----------|------------|--------------|--------------|---------------|--------------|----------------|
|       |         |           | 전혀 필요 없음 | 필요 없음      | 보통           | 필요함          | 매우 필요함        |              |                |
| 전체    |         | (빈도)<br>% | 3.66     | (8)<br>2.7 | (23)<br>7.7  | (95)<br>31.7 | (110)<br>36.7 | (64)<br>21.3 | (300)<br>100.0 |
| 성별    | 남성      | (빈도)<br>% | 3.38     | (6)<br>4.8 | (15)<br>12.0 | (49)<br>39.2 | (35)<br>28.0  | (20)<br>16.0 | (125)<br>100.0 |
|       | 여성      | (빈도)<br>% | 3.86     | (2)<br>1.1 | (8)<br>4.6   | (46)<br>26.3 | (75)<br>42.9  | (44)<br>25.1 | (175)<br>100.0 |
| 연령대   | 청년층     | (빈도)<br>% | 3.75     | (5)<br>2.9 | (10)<br>5.7  | (47)<br>26.9 | (75)<br>42.9  | (38)<br>21.7 | (175)<br>100.0 |
|       | 중장년층    | (빈도)<br>% | 3.67     | (1)<br>1.2 | (8)<br>9.8   | (29)<br>35.4 | (23)<br>28.0  | (21)<br>25.6 | (82)<br>100.0  |
|       | 노년층     | (빈도)<br>% | 3.30     | (2)<br>4.7 | (5)<br>11.6  | (19)<br>44.2 | (12)<br>27.9  | (5)<br>11.6  | (43)<br>100.0  |
| 연령·성별 | 청년층 남성  | (빈도)<br>% | 3.60     | (3)<br>4.0 | (5)<br>6.7   | (26)<br>34.7 | (26)<br>34.7  | (15)<br>20.0 | (75)<br>100.0  |
|       | 청년층 여성  | (빈도)<br>% | 3.86     | (2)<br>2.0 | (5)<br>5.0   | (21)<br>21.0 | (49)<br>49.0  | (23)<br>23.0 | (100)<br>100.0 |
|       | 중장년층 남성 | (빈도)<br>% | 3.08     | (1)<br>3.8 | (5)<br>19.2  | (14)<br>53.8 | (3)<br>11.5   | (3)<br>11.5  | (26)<br>100.0  |
|       | 중장년층 여성 | (빈도)<br>% | 3.95     | -<br>-     | (3)<br>5.4   | (15)<br>26.8 | (20)<br>35.7  | (18)<br>32.1 | (56)<br>100.0  |
|       | 노년층 남성  | (빈도)<br>% | 3.04     | (2)<br>8.3 | (5)<br>20.8  | (9)<br>37.5  | (6)<br>25.0   | (2)<br>8.3   | (24)<br>100.0  |
|       | 노년층 여성  | (빈도)<br>% | 3.63     | -<br>-     | -<br>-       | (10)<br>52.6 | (6)<br>31.6   | (3)<br>15.8  | (19)<br>100.0  |
| 혼인 상태 | 기혼      | (빈도)<br>% | 3.36     | (1)<br>3.0 | (5)<br>15.2  | (12)<br>36.4 | (11)<br>33.3  | (4)<br>12.1  | (33)<br>100.0  |
|       | 비혼(미혼)  | (빈도)<br>% | 3.68     | (6)<br>2.7 | (15)<br>6.7  | (71)<br>31.7 | (85)<br>37.9  | (47)<br>21.0 | (224)<br>100.0 |
|       | 이혼      | (빈도)<br>% | 3.90     | (1)<br>3.2 | (2)<br>6.5   | (6)<br>19.4  | (12)<br>38.7  | (10)<br>32.3 | (31)<br>100.0  |
|       | 사별      | (빈도)<br>% | 3.58     | -<br>-     | (1)<br>8.3   | (6)<br>50.0  | (2)<br>16.7   | (3)<br>25.0  | (12)<br>100.0  |



생활 품앗이(병원동행, 식재료 공동 구입 등) ‘필요함’ 비율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 60.0%, 연령대별로는 청년층 53.7%, 연령·성별로는 청년층 여성 64.0%, 혼인상태별로는 사별 58.3%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 구분    |         | 5점 평균     | 5점 척도    |             |              |              |               | 합계           |                |
|-------|---------|-----------|----------|-------------|--------------|--------------|---------------|--------------|----------------|
|       |         |           | 전혀 필요 없음 | 필요 없음       | 보통           | 필요함          | 매우 필요함        |              |                |
| 전체    |         | (빈도)<br>% | 3.37     | (17)<br>5.7 | (44)<br>14.7 | (94)<br>31.3 | (100)<br>33.3 | (45)<br>15.0 | (300)<br>100.0 |
| 성별    | 남성      | (빈도)<br>% | 3.10     | (10)<br>8.0 | (24)<br>19.2 | (51)<br>40.8 | (24)<br>19.2  | (16)<br>12.8 | (125)<br>100.0 |
|       | 여성      | (빈도)<br>% | 3.57     | (7)<br>4.0  | (20)<br>11.4 | (43)<br>24.6 | (76)<br>43.4  | (29)<br>16.6 | (175)<br>100.0 |
| 연령대   | 청년층     | (빈도)<br>% | 3.39     | (15)<br>8.6 | (26)<br>14.9 | (40)<br>22.9 | (63)<br>36.0  | (31)<br>17.7 | (175)<br>100.0 |
|       | 중장년층    | (빈도)<br>% | 3.33     | (2)<br>2.4  | (12)<br>14.6 | (35)<br>42.7 | (23)<br>28.0  | (10)<br>12.2 | (82)<br>100.0  |
|       | 노년층     | (빈도)<br>% | 3.37     | -<br>-      | (6)<br>14.0  | (19)<br>44.2 | (14)<br>32.6  | (4)<br>9.3   | (43)<br>100.0  |
| 연령·성별 | 청년층 남성  | (빈도)<br>% | 3.17     | (9)<br>12.0 | (11)<br>14.7 | (25)<br>33.3 | (18)<br>24.0  | (12)<br>16.0 | (75)<br>100.0  |
|       | 청년층 여성  | (빈도)<br>% | 3.56     | (6)<br>6.0  | (15)<br>15.0 | (15)<br>15.0 | (45)<br>45.0  | (19)<br>19.0 | (100)<br>100.0 |
|       | 중장년층 남성 | (빈도)<br>% | 2.85     | (1)<br>3.8  | (7)<br>26.9  | (15)<br>57.7 | (1)<br>3.8    | (2)<br>7.7   | (26)<br>100.0  |
|       | 중장년층 여성 | (빈도)<br>% | 3.55     | (1)<br>1.8  | (5)<br>8.9   | (20)<br>35.7 | (22)<br>39.3  | (8)<br>14.3  | (56)<br>100.0  |
|       | 노년층 남성  | (빈도)<br>% | 3.13     | -<br>-      | (6)<br>25.0  | (11)<br>45.8 | (5)<br>20.8   | (2)<br>8.3   | (24)<br>100.0  |
|       | 노년층 여성  | (빈도)<br>% | 3.68     | -<br>-      | -<br>-       | (8)<br>42.1  | (9)<br>47.4   | (2)<br>10.5  | (19)<br>100.0  |
| 혼인 상태 | 기혼      | (빈도)<br>% | 3.33     | (1)<br>3.0  | (4)<br>12.1  | (14)<br>42.4 | (11)<br>33.3  | (3)<br>9.1   | (33)<br>100.0  |
|       | 비혼(미혼)  | (빈도)<br>% | 3.36     | (16)<br>7.1 | (34)<br>15.2 | (64)<br>28.6 | (74)<br>33.0  | (36)<br>16.1 | (224)<br>100.0 |
|       | 이혼      | (빈도)<br>% | 3.39     | -<br>-      | (5)<br>16.1  | (12)<br>38.7 | (11)<br>35.5  | (3)<br>9.7   | (31)<br>100.0  |
|       | 사별      | (빈도)<br>% | 3.75     | -<br>-      | (1)<br>8.3   | (4)<br>33.3  | (4)<br>33.3   | (3)<br>25.0  | (12)<br>100.0  |

공유부엌(공동 부엌공간을 활용한 함께 요리) ‘필요함’ 비율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 33.7%, 연령대별로는 노년층 44.2%, 연령·성별로는 노년층 여성 47.4%, 혼인상태별로는 이혼 41.9%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 구분    |         | 5점 평균     | 5점 척도    |              |              |               |              | 합계           |                |
|-------|---------|-----------|----------|--------------|--------------|---------------|--------------|--------------|----------------|
|       |         |           | 전혀 필요 없음 | 필요 없음        | 보통           | 필요함           | 매우 필요함       |              |                |
| 전체    |         | (빈도)<br>% | 3.05     | (27)<br>9.0  | (64)<br>21.3 | (110)<br>36.7 | (66)<br>22.0 | (33)<br>11.0 | (300)<br>100.0 |
| 성별    | 남성      | (빈도)<br>% | 3.04     | (11)<br>8.8  | (23)<br>18.4 | (51)<br>40.8  | (30)<br>24.0 | (10)<br>8.0  | (125)<br>100.0 |
|       | 여성      | (빈도)<br>% | 3.05     | (16)<br>9.1  | (41)<br>23.4 | (59)<br>33.7  | (36)<br>20.6 | (23)<br>13.1 | (175)<br>100.0 |
| 연령대   | 청년층     | (빈도)<br>% | 2.98     | (21)<br>12.0 | (40)<br>22.9 | (58)<br>33.1  | (33)<br>18.9 | (23)<br>13.1 | (175)<br>100.0 |
|       | 중장년층    | (빈도)<br>% | 2.99     | (6)<br>7.3   | (20)<br>24.4 | (32)<br>39.0  | (17)<br>20.7 | (7)<br>8.5   | (82)<br>100.0  |
|       | 노년층     | (빈도)<br>% | 3.42     | -<br>-       | (4)<br>9.3   | (20)<br>46.5  | (16)<br>37.2 | (3)<br>7.0   | (43)<br>100.0  |
| 연령·성별 | 청년층 남성  | (빈도)<br>% | 3.12     | (7)<br>9.3   | (12)<br>16.0 | (29)<br>38.7  | (19)<br>25.3 | (8)<br>10.7  | (75)<br>100.0  |
|       | 청년층 여성  | (빈도)<br>% | 2.88     | (14)<br>14.0 | (28)<br>28.0 | (29)<br>29.0  | (14)<br>14.0 | (15)<br>15.0 | (100)<br>100.0 |
|       | 중장년층 남성 | (빈도)<br>% | 2.54     | (4)<br>15.4  | (8)<br>30.8  | (11)<br>42.3  | (2)<br>7.7   | (1)<br>3.8   | (26)<br>100.0  |
|       | 중장년층 여성 | (빈도)<br>% | 3.20     | (2)<br>3.6   | (12)<br>21.4 | (21)<br>37.5  | (15)<br>26.8 | (6)<br>10.7  | (56)<br>100.0  |
|       | 노년층 남성  | (빈도)<br>% | 3.33     | -<br>-       | (3)<br>12.5  | (11)<br>45.8  | (9)<br>37.5  | (1)<br>4.2   | (24)<br>100.0  |
|       | 노년층 여성  | (빈도)<br>% | 3.53     | -<br>-       | (1)<br>5.3   | (9)<br>47.4   | (7)<br>36.8  | (2)<br>10.5  | (19)<br>100.0  |
| 혼인 상태 | 기혼      | (빈도)<br>% | 3.15     | (1)<br>3.0   | (7)<br>21.2  | (13)<br>39.4  | (10)<br>30.3 | (2)<br>6.1   | (33)<br>100.0  |
|       | 비혼(미혼)  | (빈도)<br>% | 2.97     | (25)<br>11.2 | (50)<br>22.3 | (80)<br>35.7  | (44)<br>19.6 | (25)<br>11.2 | (224)<br>100.0 |
|       | 이혼      | (빈도)<br>% | 3.29     | (1)<br>3.2   | (6)<br>19.4  | (11)<br>35.5  | (9)<br>29.0  | (4)<br>12.9  | (31)<br>100.0  |
|       | 사별      | (빈도)<br>% | 3.50     | -<br>-       | (1)<br>8.3   | (6)<br>50.0   | (3)<br>25.0  | (2)<br>16.7  | (12)<br>100.0  |

마을공동체(나눔 텃밭 조성, 치안활동 등) ‘필요함’ 비율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 45.1%, 연령대별로는 노년층 39.5%, 연령·성별로는 노년층 여성 52.6%, 혼인상태별로는 사별 50.0%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 구분    |         | 5점 평균     | 5점 척도    |              |              |               |              | 합계           |                |
|-------|---------|-----------|----------|--------------|--------------|---------------|--------------|--------------|----------------|
|       |         |           | 전혀 필요 없음 | 필요 없음        | 보통           | 필요함           | 매우 필요함       |              |                |
| 전체    |         | (빈도)<br>% | 3.15     | (29)<br>9.7  | (50)<br>16.7 | (103)<br>34.3 | (83)<br>27.7 | (35)<br>11.7 | (300)<br>100.0 |
| 성별    | 남성      | (빈도)<br>% | 3.04     | (11)<br>8.8  | (23)<br>18.4 | (52)<br>41.6  | (28)<br>22.4 | (11)<br>8.8  | (125)<br>100.0 |
|       | 여성      | (빈도)<br>% | 3.23     | (18)<br>10.3 | (27)<br>15.4 | (51)<br>29.1  | (55)<br>31.4 | (24)<br>13.7 | (175)<br>100.0 |
| 연령대   | 청년층     | (빈도)<br>% | 3.09     | (22)<br>12.6 | (29)<br>16.6 | (55)<br>31.4  | (50)<br>28.6 | (19)<br>10.9 | (175)<br>100.0 |
|       | 중장년층    | (빈도)<br>% | 3.20     | (7)<br>8.5   | (14)<br>17.1 | (29)<br>35.4  | (20)<br>24.4 | (12)<br>14.6 | (82)<br>100.0  |
|       | 노년층     | (빈도)<br>% | 3.33     | -<br>-       | (7)<br>16.3  | (19)<br>44.2  | (13)<br>30.2 | (4)<br>9.3   | (43)<br>100.0  |
| 연령·성별 | 청년층 남성  | (빈도)<br>% | 3.07     | (9)<br>12.0  | (9)<br>12.0  | (32)<br>42.7  | (18)<br>24.0 | (7)<br>9.3   | (75)<br>100.0  |
|       | 청년층 여성  | (빈도)<br>% | 3.10     | (13)<br>13.0 | (20)<br>20.0 | (23)<br>23.0  | (32)<br>32.0 | (12)<br>12.0 | (100)<br>100.0 |
|       | 중장년층 남성 | (빈도)<br>% | 2.85     | (2)<br>7.7   | (9)<br>34.6  | (8)<br>30.8   | (5)<br>19.2  | (2)<br>7.7   | (26)<br>100.0  |
|       | 중장년층 여성 | (빈도)<br>% | 3.36     | (5)<br>8.9   | (5)<br>8.9   | (21)<br>37.5  | (15)<br>26.8 | (10)<br>17.9 | (56)<br>100.0  |
|       | 노년층 남성  | (빈도)<br>% | 3.17     | -<br>-       | (5)<br>20.8  | (12)<br>50.0  | (5)<br>20.8  | (2)<br>8.3   | (24)<br>100.0  |
|       | 노년층 여성  | (빈도)<br>% | 3.53     | -<br>-       | (2)<br>10.5  | (7)<br>36.8   | (8)<br>42.1  | (2)<br>10.5  | (19)<br>100.0  |
| 혼인상태  | 기혼      | (빈도)<br>% | 3.09     | (1)<br>3.0   | (7)<br>21.2  | (14)<br>42.4  | (10)<br>30.3 | (1)<br>3.0   | (33)<br>100.0  |
|       | 비혼(미혼)  | (빈도)<br>% | 3.10     | (27)<br>12.1 | (36)<br>16.1 | (74)<br>33.0  | (61)<br>27.2 | (26)<br>11.6 | (224)<br>100.0 |
|       | 이혼      | (빈도)<br>% | 3.35     | (1)<br>3.2   | (6)<br>19.4  | (10)<br>32.3  | (9)<br>29.0  | (5)<br>16.1  | (31)<br>100.0  |
|       | 사별      | (빈도)<br>% | 3.67     | -<br>-       | (1)<br>8.3   | (5)<br>41.7   | (3)<br>25.0  | (3)<br>25.0  | (12)<br>100.0  |

## 2) 1인가구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

1인가구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는 ‘참여 의사가 있다’ 72.3%, ‘참여 의사가 없다’ 27.7%로 나타났다.

| 표 86 1인가구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 |     |       |
|------------------------|-----|-------|
| 구분                     | 빈도  | %     |
| 참여 의사가 있다              | 217 | 72.3  |
| 참여 의사가 없다              | 83  | 27.7  |
| 합계                     | 300 | 100.0 |

1인가구 프로그램에 ‘참여 의사가 있다’는 응답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 87.4%, 남성 51.2%, 연령대별로는 중장년층 80.5%, 청년층 74.9%, 노년층 46.5%, 연령·성별로는 노년층 여성 89.5%, 청년층 여성 88.0%, 중장년층 여성 85.7%, 중장년층 남성 69.2%, 청년층 남성 57.3%, 노년층 남성 12.5%, 혼인상태별로는 사별 83.3%, 이혼 77.4%, 비혼(미혼) 75.0%, 기혼 45.5%로 나타났다.

| 표 87 응답자 특성별 - 1인가구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 |         |           |               |              |                |
|----------------------------------|---------|-----------|---------------|--------------|----------------|
| 구분                               |         | 참여 의사가 있다 | 참여 의사가 없다     | 합계           |                |
| 전체                               |         | (빈도)<br>% | (217)<br>72.3 | (83)<br>27.7 | (300)<br>100.0 |
| 성별                               | 남성      | (빈도)<br>% | (64)<br>51.2  | (61)<br>48.8 | (125)<br>100.0 |
|                                  | 여성      | (빈도)<br>% | (153)<br>87.4 | (22)<br>12.6 | (175)<br>100.0 |
| 연령대                              | 청년층     | (빈도)<br>% | (131)<br>74.9 | (44)<br>25.1 | (175)<br>100.0 |
|                                  | 중장년층    | (빈도)<br>% | (66)<br>80.5  | (16)<br>19.5 | (82)<br>100.0  |
|                                  | 노년층     | (빈도)<br>% | (20)<br>46.5  | (23)<br>53.5 | (43)<br>100.0  |
| 연령·성별                            | 청년층 남성  | (빈도)<br>% | (43)<br>57.3  | (32)<br>42.7 | (75)<br>100.0  |
|                                  | 청년층 여성  | (빈도)<br>% | (88)<br>88.0  | (12)<br>12.0 | (100)<br>100.0 |
|                                  | 중장년층 남성 | (빈도)<br>% | (18)<br>69.2  | (8)<br>30.8  | (26)<br>100.0  |
|                                  | 중장년층 여성 | (빈도)<br>% | (48)<br>85.7  | (8)<br>14.3  | (56)<br>100.0  |

| 구분       |        |           | 참여 의사가 있다     | 참여 의사가 없다    | 합계             |
|----------|--------|-----------|---------------|--------------|----------------|
|          | 노년층 남성 | (빈도)<br>% | (3)<br>12.5   | (21)<br>87.5 | (24)<br>100.0  |
|          | 노년층 여성 | (빈도)<br>% | (17)<br>89.5  | (2)<br>10.5  | (19)<br>100.0  |
| 혼인<br>상태 | 기혼     | (빈도)<br>% | (15)<br>45.5  | (18)<br>54.5 | (33)<br>100.0  |
|          | 비혼(미혼) | (빈도)<br>% | (168)<br>75.0 | (56)<br>25.0 | (224)<br>100.0 |
|          | 이혼     | (빈도)<br>% | (24)<br>77.4  | (7)<br>22.6  | (31)<br>100.0  |
|          | 사별     | (빈도)<br>% | (10)<br>83.3  | (2)<br>16.7  | (12)<br>100.0  |

### 3) 1인가구 정책 및 서비스 관련 기타의견

1인가구 대상의 관련 정책이나 서비스 관련 기타의견을 수집하고, 이를 ‘안전’, ‘여가지원’, ‘경제적 지원’, ‘관계망 지원’, ‘정책관련’, ‘프로그램 다양화 및 확대’로 구분하였다.

| 표 88   | 1인가구 정책 및 서비스 관련 기타의견 |
|--|-----------------------|
| <b>안전</b>                                    |                       |
| 1인가구 치안 개선 정책 및 프로그램(4)                      |                       |
| 1인가구 병원동행 서비스 등 건강 이상 시 도움이 필요(2)            |                       |
| 1인가구의 정보보안 및 안전 관계망 형성                       |                       |
| 1인가구 비상연락시스템 필요                              |                       |
| <b>여가지원</b>                                  |                       |
| 1인가구의 지역별 커뮤니티 형성 및 장소제공                     |                       |
| 여가생활 활용법과 노후준비방법                             |                       |
| 여가활동 관련 다양한 지원 필요(독서, 원데이 클래스 등 취미동아리 모임)(5) |                       |
| <b>경제적 지원</b>                                |                       |
| 의식주 해결을 위한 경제적 지원(4)                         |                       |

| 관계망 지원  |
|---|
| 소통 및 만남의 기회 제공(4)                                 |
| 식재료 등 공동구매, 품앗이, 지식 나눔 서비스(3)                     |
| 관계 형성을 위한 교육(사이좋게 지내는 법 등)                        |
| 관계망 형성을 위한 오픈 플랫폼                                 |
| 정책관련  |
| 1인가구 주거, 경제, 건강, 여가 지원 정책 필요(6)                   |
| 사회의 안전망 강화 정책(5)                                  |
| 1인가구 지원 및 정책에 대한 안내 서비스(5)                        |
| 취업 기회 마련(짧은 시간 근로 등 건강에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의 일)          |
| 1인가구 제도적 차별 해소(청약제도, 가족수당 등)                      |
| 일상생활 등 사회적 서비스 제공(2)                              |
| 근로복지(노동시간 감소, 재택근무 활성화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방안 마련 필요      |
| 프로그램 다양화 및 확대                                     |
| 1인가구 지원 확대 필요(4)                                  |
| 다양한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10)                             |
| 1인가구에 맞는 정보, 여가, 생활, 사회교육, 자기계발 등 유익한 프로그램 개설(10) |
| 혼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위주로 조금씩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활동           |
| 자녀와 함께하는 봉사활동                                     |

## Ⅲ. 요약 및 제언

1. 요약

2. 제언





## Ⅲ. 요약 및 제언

### 1. 요약

본 조사는 부산에 거주하는 1인 가구 300명을 대상으로 생활현황, 사회적 관계망, 프로그램 욕구를 파악하여 사회적관계망 형성프로그램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 1) 응답자 특성

응답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연령별로는 20~30대가, 혼인상태는 비혼(미혼)이 많았다. 응답자 특성(성별, 연령, 혼인상태)에 따라 프로그램 필요성을 파악하여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1인가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2) 생활현황

1인가구가 혼자 생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직장 또는 학교 관계(거리상의 이유 등)’가 46%로 가장 많았지만 연령이 높을수록 ‘가족과의 불화 또는 배우자와 이혼 때문에’ 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혼자 사는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었으며 앞으로도 혼자서 생활하겠다는 응답은 노년층 여성(89.5%)이 높게 나타났다. 혼자 생활하면서 가장 불편한 점은 ‘식사 해결하기(23.0%)’,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 및 대처(21.6%)’, ‘집(방) 구하기, 이사 등 주거활동’, ‘가사·집안일(시설교체 등) 처리’(각 17.1%) 순으로 높았고, 가장 불안한 점은 ‘경제적 불안감(22.2%)’, ‘안전에 대한 불안감(17.7%)’, ‘주택비용 등으로 인한 주거불안정(15.1%)’ 순으로 의식주와 관련한 불편·불안 사항이 많았다. 스스로 평가하는 신체 및 정신 건강상태는 대체로 건강하다고 나타났으나 ‘외로움(70.7%)’, ‘우울(65.7%)’, ‘불안감(63.7%)’ 순으로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여가활동을 하는데 있어 느끼는 어려움은 ‘경제적 부담(37.3%)’이 가장 많았지만 연령이 높을수록 ‘적당한 프로그램이 없음’, ‘적당한 여가시설이나 장소가 없음’이 높게 나타났다.

### 3) 사회적 관계망

부모(63.4%), 친구(63.8%), 자녀(60.7%)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었으나, 이웃관계에 대한 만족도(28.8%)는 낮았고, 이혼, 사별일 경우 만족도는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에 대한 어려움으로는 ‘어려움이 없다(36.7%)’가 가장 높았지만, ‘가족 내 역할기대 및 요구(25.0%)’, ‘가족 간의 소통(19.7%)’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사회적 관계 활동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모든 연령대에서 ‘활동비 지원(39.7%)’이 높았고, 사회적 관계 활동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정보가 없어서(22.0%)’에 응답이 높았다. 생활 전반의 고민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대부분 가족 혹은 친구 및 동료에게 도움을 청하였고, 특히 중장년층 남성(50.0%), 이혼(38.7%)의 경우 위급상황에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대상이 없거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 간 사회적 관계 활동을 지속한 이유로는 ‘구성원간의 친밀감(26.6%)’과 ‘삶의 활력(25.1%)’에 대한 응답이 많았다.

### 4) 프로그램 요구도

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1인가구 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를 살펴보았다. 프로그램별 필요한 정도를 건강, 주거, 여가, 경제,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망으로 확인한 결과, 모든 프로그램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연령대별로는 중장년층, 청년층, 노년층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성별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난 분야와 분야별 세부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다.

청년층 남성은 ‘경제’ 분야에 요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각 분야별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건강]신체운동 프로그램, 요리 프로그램, [주거]부동산 및 재무 교육, 주거공간 개선, [여가]관람·감상활동, 관광활동, [경제]재테크 및 예금·적금 운용, 소비·지출 관리 교육, [가족관계]의사소통, [사회적 관계망]동아리 활동이 높게 나타났다.

청년층 여성은 ‘경제’, ‘주거’ 분야에 요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각 분야별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건강]신체운동 프로그램, 요리 프로그램, [주거]부동산 및 재무 교육, 주거 안전 지원, [여가]취미·자기개발 활동, 관람·감상활동, [경제]재테크 및 예금·적금 운용, 금융정보 관련 교육, [가족관계]가족문화프로그램, [사회적 관계망]동아리 활동이 높게 나타났다.

중장년층 남성은 ‘건강’ 분야에 요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각 분야별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건강]스트레스 완화 등 정신건강 회복 프로그램, 요리 프로그램, [주거]주거공

간 개선, [여가]관람·감상활동, 관광활동, [경제]노후설계교육, [가족관계]가족상담, [사회적 관계망]동아리 활동이 높게 나타났다.

중장년층 여성은 ‘주거’ 분야에 요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각 분야별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건강]신체운동 프로그램, 스트레스 완화 등 정신건강 회복 프로그램, [주거]주거안전 지원, 주거공간 개선, [여가]취미·자기개발 활동, 관람·감상활동, [경제]노후설계교육, 재테크 및 예금·적금 운용, [가족관계]가족문화프로그램, 의사소통교육, [사회적 관계망]동아리 활동, 생활품앗이가 높게 나타났다.

노년층 남성은 ‘건강’ 분야에 요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각 분야별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건강]요리 프로그램, 건강관리교육, [주거]부동산 및 재무 교육, [여가]봉사활동, 관광활동, [경제]재테크 및 예금·적금 운용, [가족관계]가족상담, 의사소통교육, [사회적 관계망]공유부엌이 높게 나타났다.

노년층 여성은 ‘주거’, ‘여가’ 분야에 요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각 분야별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건강]신체운동 프로그램, [주거]주거안전 지원, 주거공간 개선, 주거공동체 지원, [여가]관람·감상활동, 취미·자기개발 활동, [경제]노후설계교육, 소비·지출 관리 교육, [가족관계]의사소통교육, [사회적 관계망]생활품앗이, 동아리 활동이 높게 나타났다.

1인가구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에서는 ‘1인가구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가 72.3%로 높게 나타났으며 중장년층의 참여 욕구가 가장 높았다.

1인가구 대상의 관련 정책이나 서비스 관련 기타의견으로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안전에 대한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 2. 제언

### 1)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1인가구로 생활하는 가장 큰 이유로 청년층은 직장 및 학교 관계(거리상의 이유), 중장년층은 개인적인 편의와 자유, 노년층은 가족의 죽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프로그램 요구도에서 청년층은 경제, 주거 등 생활 안정에 대한 욕구, 중장년층은 운동, 취미 등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 노년층은 가족관계, 공동체 등 관계 중심의 욕구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1인가구라 함은 1인이 일상적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방식의 가구를 의미할 뿐, 성별, 생애주기, 1인가구 생활 이유, 1인가구 지속여부 등 여러 요인에 따라 프로그램 욕구는 다양하므로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 2) 중장년 1인가구 프로그램 확대 필요

중장년층은 정신건강과 관련한 우울, 불안감, 외로움을 자주 경험하고 있으며 그 중 외로움을 가장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기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이’가 다른 집단에 비해 적게 나타나, 위기나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주변 지지체계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중장년 1인가구는 타 연령에 비해 1인가구 진입경로가 이혼, 별거, 사별 등 비자발적 원인에 의해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부모 부재 등 제한적인 가족 지지망 등 향후 독거노인 가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장온정, 2015). 이처럼 지지체계에 있어 취약성을 가진 중장년의 사회적관계망이 단절되지 않도록 다양한 사회적관계망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3) 가족센터의 차별화된 1인가구 프로그램 마련

생활 전반의 고민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주된 행동 방식으로 ‘가족(부모·형제·자매 등)과 상의한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1인가구는 다양한 이유로 공간과 생활면에서 가족과 분리되었지만,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가족 간의 정서적 지지와 유대감은 삶의 만족도 중 심리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윤정현, 2016) 물리적 거리로 소원해진 가족과의 건강한 유대를 지속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혼 1인가구의 경우, 부모, 형제·자매,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다른 대상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혼, 사별, 비혼(미혼) 등에 따라 가족관계 어려움의 내용, 대상(원가족, 형성가족 등)이 다르므로 대상에 따른 접근 방식이 달라야 한다. 가족센터는 가족서비스를 전문

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으로 타 기관과 차별화된 1인가구 가족관계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4) 1인가구 지원 정책 및 공공서비스 강화

혼자 생활하면서 가장 불편한 점은 ‘식사 해결하기’, ‘응급상황에 대응 및 대처’, 혼자 생활하면서 가장 불안한 점은 ‘경제적 불안감’, ‘안전(성폭력, 범죄 등)에 대한 불안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1인가구 정책과 서비스와 관련한 기타 의견에서도 ‘1인가구 병원동행 서비스’, ‘응급상황 시 지원체계 마련’, ‘사회의 안전망 필요’ 등 안전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1인가구 주거지원 정책’, ‘1인가구 월세 지원’ 등 주거와 관련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1인가구 전용 주택 확대, 안전 체계 시스템 마련 등 1인가구를 위한 정책 및 공공서비스가 강화된다면 1인가구의 삶의 질은 향상될 것이다.

#### 5) 1인가구 사업 홍보 확대 및 지속적인 관계망 지원 마련

최근 사회적 관계 활동(모임 및 단체활동)의 경험이 있는 1인가구가 사회적 관계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로는 ‘구성원 간의 친밀감’, ‘삶의 활력’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 관계 활동의 어려운 점으로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정보가 없어서’가 가장 높았고, 사회적 관계 활동을 위해 필요한 지원은 ‘활동비 지원’, ‘동호회·문화 프로그램 정보 제공’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센터를 비롯한 기관에서 1인가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정보가 부족하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1인가구 프로그램, 커뮤니티, 상담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의 온라인 및 유관 기관을 통한 홍보에서 나아가 대규모 행사 시 홍보 캠페인 진행, 1인가구 소통 플랫폼 마련 등 다방면으로 홍보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1인가구의 자발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관계 형성을 위해선 구성원들 간의 친밀감 형성을 기반으로 한 관계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활동비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문정희·이재정·김형균 외(2017). 부산지역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종합정책 연구,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윤정현(2016). 가족관광이 사회관계 및 가족관계, 생활만족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관계, 관광레저연구 제28권 제9호

장은정(2015). 중년남성 1인가구주의 사회자본 형성과정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학회지, 제27집 3호

## | 부록 |

## 1. 성별, 연령에 따른 프로그램 필요성

| 표 89  |                                      | 성별, 연령에 따른 프로그램 필요성(5점 척도) |      |      |      |      |           |           |            |            |           |           |
|-------|--------------------------------------|----------------------------|------|------|------|------|-----------|-----------|------------|------------|-----------|-----------|
| 구분    |                                      | 성별                         |      | 연령   |      |      | 연령·성별     |           |            |            |           |           |
|       |                                      | 남성                         | 여성   | 청년층  | 중장년층 | 노년층  | 청년층<br>남성 | 청년층<br>여성 | 중장년층<br>남성 | 중장년층<br>여성 | 노년층<br>남성 | 노년층<br>여성 |
| 5점 평균 |                                      | 3.43                       | 3.86 | 3.67 | 3.79 | 3.55 | 3.42      | 3.86      | 3.46       | 3.94       | 3.45      | 3.67      |
| 건강    | 스트레스 완화 등 정신건강 회복 프로그램               | 3.31                       | 3.86 | 3.63 | 3.82 | 3.30 | 3.32      | 3.86      | 3.54       | 3.95       | 3.04      | 3.63      |
|       | 건강관리교육(영양교육 등)                       | 3.35                       | 3.62 | 3.42 | 3.61 | 3.67 | 3.28      | 3.53      | 3.27       | 3.77       | 3.67      | 3.68      |
|       | 신체운동 프로그램(요가, 등산 등)                  | 3.54                       | 4.11 | 3.89 | 4.00 | 3.56 | 3.61      | 4.10      | 3.50       | 4.23       | 3.33      | 3.84      |
|       | 요리 프로그램(반찬 만들기 등)                    | 3.53                       | 3.86 | 3.74 | 3.71 | 3.65 | 3.45      | 3.96      | 3.54       | 3.79       | 3.75      | 3.53      |
| 5점 평균 |                                      | 3.35                       | 3.82 | 3.60 | 3.75 | 3.48 | 3.41      | 3.75      | 3.25       | 3.99       | 3.29      | 3.71      |
| 주거    | 부동산 및 재무 교육(부동산계약, 전입신고, 대출업무 등)     | 3.51                       | 3.93 | 3.85 | 3.74 | 3.40 | 3.68      | 3.97      | 3.15       | 4.02       | 3.38      | 3.42      |
|       | 주거공간 개선(간단한 수리, 정리수납 등)              | 3.47                       | 3.89 | 3.66 | 3.94 | 3.51 | 3.47      | 3.81      | 3.62       | 4.09       | 3.33      | 3.74      |
|       | 주거안전 지원(범죄예방 · 자기 방어교육 등)            | 3.25                       | 3.95 | 3.63 | 3.79 | 3.49 | 3.35      | 3.85      | 3.08       | 4.13       | 3.13      | 3.95      |
|       | 주거공동체 지원(지역공터 텃밭 가꾸기, 우편물 및 택배 보관 등) | 3.18                       | 3.51 | 3.27 | 3.54 | 3.51 | 3.15      | 3.36      | 3.15       | 3.71       | 3.33      | 3.74      |
| 5점 평균 |                                      | 3.47                       | 3.84 | 3.70 | 3.75 | 3.52 | 3.53      | 3.82      | 3.37       | 3.93       | 3.38      | 3.70      |
| 여가    | 취미·자기개발 활동(그림, 악기, 교양강좌 등)           | 3.40                       | 4.07 | 3.85 | 3.82 | 3.51 | 3.48      | 4.12      | 3.27       | 4.07       | 3.29      | 3.79      |
|       | 관람·감상활동(영화, 공연, 스포츠, 전시 등)           | 3.61                       | 4.03 | 3.93 | 3.90 | 3.47 | 3.77      | 4.05      | 3.54       | 4.07       | 3.17      | 3.84      |
|       | 관광활동(여행, 나들이 등)                      | 3.56                       | 3.90 | 3.79 | 3.79 | 3.56 | 3.60      | 3.93      | 3.54       | 3.91       | 3.46      | 3.68      |
|       | 봉사활동                                 | 3.29                       | 3.37 | 3.21 | 3.50 | 3.53 | 3.25      | 3.17      | 3.12       | 3.68       | 3.58      | 3.47      |

| 구분         |  | 성별   |      | 연령   |      |      | 연령·성별     |           |            |            |           |           |
|------------|--|------|------|------|------|------|-----------|-----------|------------|------------|-----------|-----------|
|            |  | 남성   | 여성   | 청년층  | 중장년층 | 노년층  | 청년층<br>남성 | 청년층<br>여성 | 중장년층<br>남성 | 중장년층<br>여성 | 노년층<br>남성 | 노년층<br>여성 |
| 5점 평균      |  | 3.51 | 3.86 | 3.79 | 3.72 | 3.42 | 3.68      | 3.87      | 3.28       | 3.92       | 3.25      | 3.62      |
| 경제         | 재테크 및 예금·적금 운용                               | 3.61 | 3.94 | 3.89 | 3.76 | 3.53 | 3.76      | 3.98      | 3.27       | 3.98       | 3.50      | 3.58      |
|            | 금융정보 관련 교육(대출 및 부채관리, 신용등급관리, 주거대출 은행 사용법 등) | 3.38 | 3.89 | 3.78 | 3.70 | 3.19 | 3.60      | 3.92      | 3.19       | 3.93       | 2.88      | 3.58      |
|            | 노후(자금) 설계 교육                                 | 3.51 | 3.83 | 3.70 | 3.83 | 3.47 | 3.63      | 3.75      | 3.38       | 4.04       | 3.29      | 3.68      |
|            | 소비·지출 관리 교육                                  | 3.55 | 3.76 | 3.77 | 3.57 | 3.47 | 3.72      | 3.81      | 3.27       | 3.71       | 3.33      | 3.63      |
| 5점 평균      |  | 3.15 | 3.24 | 3.17 | 3.17 | 3.41 | 3.24      | 3.11      | 2.63       | 3.42       | 3.40      | 3.40      |
| 가족<br>관계   | 가족상담   | 3.16 | 3.18 | 3.14 | 3.11 | 3.42 | 3.23      | 3.08      | 2.69       | 3.30       | 3.46      | 3.37      |
|            | 의사소통교육                                       | 3.18 | 3.23 | 3.16 | 3.17 | 3.47 | 3.29      | 3.06      | 2.58       | 3.45       | 3.46      | 3.47      |
|            | 가족문화 프로그램(가족과 함께 하는 여가)                      | 3.10 | 3.31 | 3.20 | 3.22 | 3.33 | 3.20      | 3.20      | 2.62       | 3.50       | 3.29      | 3.37      |
| 5점 평균      |  | 3.14 | 3.43 | 3.30 | 3.30 | 3.36 | 3.24      | 3.35      | 2.83       | 3.52       | 3.17      | 3.59      |
| 사회적<br>관계망 | 동아리 활동(취미·여가, 자기개발, 봉사 등)                    | 3.38 | 3.86 | 3.75 | 3.67 | 3.30 | 3.60      | 3.86      | 3.08       | 3.95       | 3.04      | 3.63      |
|            | 생활 품앗이(병원 동행, 식재료 공동 구입 등)                   | 3.10 | 3.57 | 3.39 | 3.33 | 3.37 | 3.17      | 3.56      | 2.85       | 3.55       | 3.13      | 3.68      |
|            | 공유부엌(공동 부엌공간을 활용한 함께 요리)                     | 3.04 | 3.05 | 2.98 | 2.99 | 3.42 | 3.12      | 2.88      | 2.54       | 3.20       | 3.33      | 3.53      |
|            | 마을 공동체(나눔 텃밭 조성, 치안활동 등)                     | 3.04 | 3.23 | 3.09 | 3.20 | 3.33 | 3.07      | 3.10      | 2.85       | 3.36       | 3.17      | 3.53      |



## 2. 설문지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본 조사에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    |  |  |  |  |
|----|--|--|--|--|
| ID |  |  |  |  |
|----|--|--|--|--|

###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지원사업 프로그램 요구도 조사

안녕하십니까? 부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부산에 거주하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욕구**를 조사해 사회적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수집된 자료는 오로지 통계분석에만 사용되고, 그 외의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중에 힘드시겠지만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A. 응답자 특성

##### A1. 귀하는 1인가구 입니까?

- ① 예                      ② 아니요 ☞ **설문종료**

※ 1인가구란?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 즉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구"를 뜻합니다.

##### A2. 현재 거주 지역(구)

- ① 강서구    ② 금정구    ③ 기장군    ④ 남구    ⑤ 동구    ⑥ 동래구  
 ⑦ 부산진구    ⑧ 북구    ⑨ 사상구    ⑩ 사하구    ⑪ 서구    ⑫ 수영구  
 ⑬ 연제구    ⑭ 영도구    ⑮ 중구    ⑯ 해운대구    ⑰ 부산 외 타지역 ☞ **설문종료**

##### A3. 성별

- ① 남성            ② 여성

**A4. 연령**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A5. 혼인상태**

- ① 기혼                      ② 비혼(미혼)                      ③ 이혼                      ④ 사별                      ⑤ 기타(                      )

**A6. 주관적 경제**

- 하                      중하                      중                      중상                      상  
① ..... ② ..... ③ ..... ④ ..... ⑤

**A7. 학력**

- ① 무학                      ② 중졸이하                      ③ 고졸                      ④ 대졸 (대재)                      ⑤ 대학원졸

**A8. 취업상태**

- ① 취업                      ② 실업 (현재 무직이나 일을 구하고 있음)  
③ 비경제활동 (현재 무직이며 1개월 이상 일을 구하고 있지 않음)

**A8\_1. (A8의 ③ 응답자만) 비취업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육아가사                      ② 재학, 진학준비                      ③ 취업준비 및 직업교육 과정  
④ 건강상의 이유                      ⑤ 기타(                      )

**B. 생활현황**

**B1. 귀하가 1인가구로 생활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3년 미만                      ③ 3년 이상~5년 미만  
④ 5년 이상~10년 미만                      ⑤ 10년 이상

**B2. 귀하가 현재 혼자 생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직장 또는 학교 관계(거리상의 이유 등) 때문에
- ② 가족과의 불화 또는 배우자와 이혼 때문에
- ③ 가족의 죽음
- ④ 개인적 편의와 자유를 위해
- ⑤ 기타(   )

**B3. 귀하는 현재 혼자 사는 것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합니까?**

- ① 매우 불만족    ② 다소 불만족    ③ 보통    ④ 다소 만족    ⑤ 매우 만족

**B4. 귀하는 앞으로도 혼자서 생활할 생각입니까?**

- ① 앞으로도 계속 혼자 살 것이다
- ② 언젠가는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 것이다

**B5. 귀하는 현재 혼자 생활하면서 가장 불편한 점이 무엇입니까? (우선순위 3가지)**

|     |  |     |  |     |  |
|-----|--|-----|--|-----|--|
|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

- ① 식사 해결하기   ② 문화여가활동
- ③ 집(방) 구하기, 이사 등 주거활동                         ④ 응급상황에 대응 및 대처
- ⑤ 가사·집안일(시설교체 등) 처리                         ⑥ 공공업무(관공서, 은행 업무 등) 처리
- ⑦ 사회적 편견(시선)   ⑧ 불편한 점 없다
- ⑨ 기타(   )

**B6. 귀하는 현재 혼자 생활하면서 가장 불안한 점이 무엇입니까? (우선순위 3가지)**

|     |  |     |  |     |  |
|-----|--|-----|--|-----|--|
|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

- ① 경제적 불안감   ② 안전(성폭력, 범죄 등)에 대한 불안감
- ③ 소원해지는 가족관계에 대한 불안감                         ④ 계속 혼자 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 ⑤ 노화로 인한 질병 걱정   ⑥ 주택비용 등으로 인한 주거불안정
- ⑦ 노후·임종에 대한 염려   ⑧ 사회적 소외에 대한 불안감
- ⑨ 불안한 점 없다   ⑩ 기타(   )



**B11. 귀하의 주거지 결정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 2가지)**

|     |  |     |  |
|-----|--|-----|--|
| 1순위 |  | 2순위 |  |
|-----|--|-----|--|

- ① 교통 편리성
- ② 직장과의 거리
- ③ 주거비용(월세, 관리비 등)
- ④ 보안/방법
- ⑤ 주택의 내부 공간구조(면적, 실의 구성 등)
- ⑥ 시설관리수준 및 노후도
- ⑦ 상업 및 편의시설, 공원, 공공기관 등의 접근성
- ⑧ 지역적 친숙성(본가 거주 지역 등)
- ⑨ 기타( )

**B12. 귀하는 여가활동을 하는데 있어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① 일이 너무 바쁨
- ② 경제적 부담
- ③ 적당한 여가프로그램이 없음
- ④ 적당한 여가시설이나 장소가 없음
- ⑤ 함께 할 친구가 없음
- ⑥ 여가와 관련한 정보가 부족함
- ⑦ 하기 싫음/귀찮음
- ⑧ 기타( )

**B13. 귀하의 소득은 주로 어디에서 발생합니까?**

- ① 근로소득
- ② 가족지원
- ③ 정부지원
- ④ 금융 및 임대소득
- ⑤ 개인연금 또는 퇴직금
- ⑥ 기타( )

**B14. 귀하의 월평균 지출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식비
- ② 교통비
- ③ 통신비
- ④ 문화여가비
- ⑤ 교육비
- ⑥ 기타( )

**B15. 귀하의 부채(대출) 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 ① 부채 있음 (사용 용도: \_\_\_\_\_)  
ex) 거주주택 마련, 전(월)세 보증금,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
- ② 부채 없음

### C. 사회적 관계망

C1. 다음은 귀하의 가족, 친구, 이웃관계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 관계 만족도 | 매우 불만족 | 다소 불만족 | 보통 | 다소 만족 | 매우 만족 | 해당사항 없음 |
|--------|--------|--------|----|-------|-------|---------|
| 부모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형제·자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자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친구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이웃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C2. 다음은 귀하의 가족, 친구, 이웃과의 소통 및 접촉(만남, 전화) 빈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 소통 및 접촉 빈도 | 월 4회 이상 | 월 2~3회 | 월 1회 이하<br>(간헐적 또는 명절 등에만) | 소통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 부모         | ①       | ②      | ③                          | ④     | ⑤       |
| 형제·자매      | ①       | ②      | ③                          | ④     | ⑤       |
| 자녀         | ①       | ②      | ③                          | ④     | ⑤       |
| 친구         | ①       | ②      | ③                          | ④     | ⑤       |
| 이웃         | ①       | ②      | ③                          | ④     | ⑤       |

C3. 귀하가 경험하고 있는 가족관계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① 가족 간의 소통(대화 단절 등)
- ② 가족 내 역할기대 및 요구(첫째의 역할, 아들·딸의 역할 등)
- ③ 세대·가치관의 차이
- ④ 어려움 없다
- ⑤ 기타( )

**C4. 귀하가 생각하는 사회적 관계 활동(모임 또는 단체 활동)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① 타지 생활로 지인이 없어서  
 ② 성격(낮가림 등)  
 ③ 시간이 없어서  
 ④ 혼자 활동하는 것에 익숙해서  
 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정보가 없어서  
 ⑥ 어려움 없다  
 ⑦ 기타( )

**C5. 귀하는 생활 전반의 고민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주로 어떻게 행동합니까?**

- ①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혼자 해결한다  
 ② 가족(부모, 형제·자매 등)과 상의한다  
 ③ 친구 및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④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⑤ 외부 기관(구청) 및 전문가(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는다  
 ⑥ 기타( )

**C6. 각 상황에 대해 연락이 가능한 대상이 얼마나 있습니까?**

| 문항                       | 전혀<br>없음 | 적음 | 보통 | 많음 | 매우<br>많음 |
|--------------------------|----------|----|----|----|----------|
| 가끔이라도 연락을 하는 사이          | ①        | ②  | ③  | ④  | ⑤        |
|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이 | ①        | ②  | ③  | ④  | ⑤        |

**C7.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참여 경험이 있는 온·오프라인 사회적 관계 활동(모임 또는 단체 활동)이 있습니까?**

- ① 있음 ( 월 \_\_\_\_\_ 회 )          ② 없음

ex) 동호회, 자원봉사단체 등

**C7\_1. (C7의 ① 응답자만) 사회적 관계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 2가지)**

|     |  |     |  |
|-----|--|-----|--|
| 1순위 |  | 2순위 |  |
|-----|--|-----|--|

- ① 구성원 간의 친밀감
- ② 자기 개발
- ③ 신체 건강 증진
- ④ 유용한 정보 공유
- ⑤ 삶의 활력
- ⑥ 소속감
- ⑦ 기타( )

**C8. 사회적 관계 활동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동호회·문화프로그램 정보 제공
- ② 소통·교류 공간 제공
- ③ 활동비 지원
- ④ 활동에 필요한 강좌 제공 (ex. 독서동아리-작가강연프로그램)
- ⑤ 기타( )

**D. 프로그램 요구도**

**D1. 각 항목에 대한 필요도를 확인하는 문항입니다.**

| 구분 | 문항                     | 전혀<br>필요<br>없음 | 필요<br>없음 | 보통 | 필요<br>함 | 매우<br>필요<br>함 |
|----|------------------------|----------------|----------|----|---------|---------------|
| 건강 | 스트레스 완화 등 정신건강 회복 프로그램 | ①              | ②        | ③  | ④       | ⑤             |
|    | 건강관리교육(영양교육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    | 신체운동 프로그램(요가, 등산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    | 요리 프로그램(반찬 만들기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   |   |   |   |
|------------|--|---|---|---|---|---|
| 주거         | 부동산 및 재무 교육(부동산계약, 전입신고, 대출업무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            | 주거공간 개선(간단한 수리, 정리수납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            | 주거안전 지원(범죄예방·자기방어교육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            | 주거공동체 지원 <sup>1)</sup> (지역 공터 텃밭 가꾸기, 우편물 및 택배 보관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 여가         | 취미·자기개발 활동(그림, 악기, 교양강좌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            | 관람·감상활동(영화, 공연, 스포츠, 전시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            | 관광활동(여행, 나들이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            | 봉사활동   | ① | ② | ③ | ④ | ⑤ |
| 경제         | 재테크 및 예금·적금 운용                                       | ① | ② | ③ | ④ | ⑤ |
|            | 금융정보 관련 교육(대출 및 부채관리, 신용등급관리, 주거대출 은행 사용법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            | 노후(자금) 설계 교육   | ① | ② | ③ | ④ | ⑤ |
|            | 소비·지출 관리 교육  | ① | ② | ③ | ④ | ⑤ |
| 가족<br>관계   | 가족상담   | ① | ② | ③ | ④ | ⑤ |
|            | 의사소통교육   | ① | ② | ③ | ④ | ⑤ |
|            | 가족문화프로그램(가족과 함께하는 여가)                                | ① | ② | ③ | ④ | ⑤ |
| 사회적<br>관계망 | 동아리 활동(취미·여가, 자기개발, 봉사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            | 생활 품앗이(병원동행, 식재료 공동 구입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            | 공유부엌(공동 부엌공간을 활용한 함께 요리)                             | ① | ② | ③ | ④ | ⑤ |
|            | 마을공동체(나눔 텃밭 조성, 치안활동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 D2. 귀하는 1인가구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

- ① 참여 의사가 있다                      ② 참여 의사가 없다

1) 같은 주거 지역 내의 주민들끼리 개인의 가치관과 관심사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D3. 1인가구 대상의 관련 정책이나 서비스 등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 본 설문조사에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건강가정 2022-06

---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지원사업  
프로그램 요구도 조사**

발행인 주 국 회  
발행처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  
발행일 2022년 12월  
인쇄처 세종문화사(051-463-5898)

본 자료집의 저작권은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 있습니다. 무단복제를 금지합니다.

---



